

京畿古文書解題

옛 경기를 읽다

음지邑誌
양안量案
중기重記·사례事例·등록騰錄
공사문서公·私文書
가문문서家門文書



1 읍지邑誌

가평읍지加平邑誌	20
강화부지江華府誌	22
고양군여지승람高陽郡輿地勝覽	24
과천현읍지果川縣邑誌	26
광주부읍지廣州府邑誌	28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30
교하군읍지交河郡邑誌	32
김포군읍지金浦郡邑誌	34
남양군읍지南陽郡邑誌	36
마전군읍지麻田郡邑誌	38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	40
삭녕지朔寧誌	42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	44
시흥군읍지始興郡邑誌	46
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	48
안성군읍지安城郡邑誌	50
양근군읍지楊根郡邑誌	52
양성읍지陽城邑誌	54
양주군읍지楊州郡邑誌	56
양지군읍지陽智郡邑誌	58
양천군읍지陽川郡邑誌	60
여주읍지驪州邑誌	62
연천군읍지漣川郡邑誌	64
영종진읍지永宗鎭邑誌	66
영평군읍지永平郡邑誌	68
용인군지龍仁郡誌	70
음죽군읍지陰竹郡邑誌	72

이천군읍지利川郡邑誌	74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	76
장단군읍지長湍郡邑誌	78
적성현읍지積城縣邑誌	80
죽산군읍지竹山郡邑誌	82
중경지中京誌	84
지평군읍지砥平郡邑誌	86
진위읍지振威邑誌	88
통진읍지通津邑誌	90
과주군읍지坡州郡邑誌	92
포천군읍지抱川郡邑誌	94
풍덕군읍지豐德郡邑誌	96

2 양안量案

경기도수원군양안京畿道水原郡量案	100
경기도안성군양안京畿道安城郡量案	102
경기도양주군소재내수사장토사검개타양안 京畿道楊州郡所在內需司庄土查檢改打量案	104
경기도용인군양안京畿道龍仁郡量案	106
경기안산군양안京畿安山郡量案	108
경기양성군양안京畿陽城郡量案	110
경기양지군양안京畿陽智郡量案	112
경기여주군양안京畿驪州郡量案	114
경기음죽군양안京畿陰竹郡量案	116
경기진위군양안京畿振威郡量案	118

3 중기重記·사례事例·등록謄錄

경기각읍신정사례京畿各邑新定事例	122
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	124
경기관초京畿關草	126
경기수영각고도중기京畿水營各庫都重記	128
기영신정사례畿營新定事例	130
기영장계등록畿營狀啓謄錄	132
기전영사례畿甸營事例	134
기전영지畿甸營誌	136

4 공·사문서公·私文書

1401년 사패왕지賜牌王旨	140
1633년 경기수사京畿水使 해유문서解由文書	142
1660년 노 산복山福 소지所志 1	144
1660년 노 산복山福 소지所志 2	147
1660년 노 산복山福 의송議送	149
1756년 정홍순鄭弘淳 유서諭書	151
1756년 정홍순鄭弘淳 영서승書	153
1794년 경기암행어사봉서京畿暗行御史封書	155
1798년 경주인京主人 오성흠吳聖洽 고목告目	157
1798년 양천현령陽川縣令 임홍원林弘遠 서목書目	160
1799년 경기감사京畿監司 감결甘結	162
1799년 노문路文	164
1799년 양천읍리陽川邑吏 사통私通	166
1803년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 관關	168
1817년 박현익朴顯翼 의송議送	170
1821년 광주부廣州府 입안立案	172
1842년 서중보徐中輔 등 상서上書	174

1845년 이천도호부사利川都護府使	
해유문서解由文書	176
1846년 김원정金源鼎 등 상서上書	178
1847년 박정석朴鼎錫 단자單子	180
1875년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감결甘結	182
1875년 시흥현령始興縣令 관關	184
1887년 임영근任永根 단자單子	186
1887년 임영근任永根 산도山圖	188

5 가문문서家門文書

광명 오리 이원의 종가 고문서	192
광주 기곡 광주안씨 순암종가 고문서	194
군포 속달 동래정씨 정난종 종가 고문서	197
남양주 해주정씨 해평부원군 종가 고문서	201
수원 평강채씨 고문서	204
시흥 신안주씨 고문서	206
시흥 안동권씨 화천군파 고문서	208
시흥 이상기가 고문서	210
시흥 파평윤씨 고문서	212
안산 부곡 진주유씨 고문서	214
안성 양성 해주오씨 정무공파 고문서	217
양주(동두천) 안흥 광주정씨 고문서	220
여주 원주원씨 원두표 후손가 고문서	222
용인 오산 해주오씨 추탄공파 종가 고문서	224
이천 부발 풍천임씨 고문서	227
의정부 장암 반남박씨 서계 종가 고문서	230
하남 함평이씨 고문서	233
화성 거창신씨 고문서	235
화성 남양홍씨 고문서	237
화성 들목조씨 고문서	239
화성 수성최씨 한림공파 진사공후손 고문서	241
화성 함평이씨 고문서	243
화성 해풍김씨 고문서	245

들어
서며

-
1. 머리말
 2. 경기 고문서 현황
 3. 유형별 해설
 4. 맺음말



경기 고문서 개요와 현황

박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 머리말

이 연구는 경기도사京畿道史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고문서 자료 현황 파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전통시대 경기도사 연구를 위하여 현 시점에서 파악 가능한 고문서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차후 진행될 본격적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된 고문서에 대한 해설 작업을 목표로 하였다.¹⁾

우선 이 연구에서 다루는 고문서의 개념 내지 범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문서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발급자와 수취자라는 쌍방이 존재하고, 계약이나 증명 등 발급 목적이 명료하며, 그로 인한 법적 제도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기의 하한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기 이전까지를 하한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적용할 때 고문서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된다. 따라서 자료 활용 목적에 따라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1) 경기문화재단의 의뢰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교수(박성호)와 대학원생(권유정, 남은별, 송지혜, 한상민)이 함께 자료 조사와 집필을 수행하였다. 대상 선정 및 전체 해제는 박성호가 맡고, 각 장별 자료 해제는 대학원생이 분야별로 분담하여 집필하였다.

벗어나 호적, 양안, 일기 등 발급 및 수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필사자료도 고문서의 범주에서 다루기도 한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지을 수 있는 고문서가 일정한 소장처에 안정적으로 전래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시대 경기감영이나 각 군현 단위의 관아에서 보관되어왔을 문서가 온전히 전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경기도 관련 고문서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선행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적 한계를 감안하여 ‘경기 고문서’의 범주를 다소 유연하게 해석하여 각 군현의 읍지, 양안, 중기, 사례 등을 비롯하여 경기도 내에 세거한 가문 소장 고문서, 경기감영 및 예하 군현 명의로 발급된 개별 문서 등을 포괄하여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자료를 신규로 발굴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의 주요 고문헌 소장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목록, 검색 시스템, 전시 도록, 고문서 자료집 등을 근거로 경기도와 관련성이 높은 고문서를 선별하였다. 선별 결과 크게 읍지, 양안, 중기·사례·등록, 공·사문서, 가문 문서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전체 현황과 유형별 고문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기술하고자 한다.

2. 경기 고문서 현황

본 보고서에 수록된 경기도 고문서는 총 104개 항목이다. 물론 이 가운데 가문 문서는 가문별로 전래된 다량의 고문서를 한 항목으로 다루기 때문에 가문문서의 수효를 합산한다면 전체 고문서의 개별 점수는 이보다 훨씬 커진다.

우선 읍지는 《가평읍지》를 비롯하여 총 39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가평, 강화, 고양, 과천, 광주, 교동, 교하, 기포, 남양, 마전, 부평, 삭녕,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양근, 양성, 양주, 양지, 양천, 여주, 연천, 영종, 영평, 용인, 음죽, 이천, 인천, 장단, 적성, 죽산, 중경, 지평, 진위, 통진, 파주, 포천, 풍덕이 해당된다. 대부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자료이다. 이 가운데 지역별로 소장처를 달리한 동종의 읍지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례는 모두 같은 항

목으로 다루었다.

양안은 총 10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여주, 용인, 안성, 진위, 수원, 양성, 안산, 양지, 음죽, 양주 지역의 양안이다.

경기감영의 중기, 사례, 그리고 장계등록도 별도로 8 항목을 정리하였다. 조선시대 경기감영 운영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다만, 경기감영과 직접 관계된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된 수량이 많지 않아서 이번 조사를 계기로 좀 더 적극적인 자료 발굴이 요구된다.

공·사문서로 설정한 항목은 현재까지 각종 고문서 조사 수집 사업의 결과로 공개된 개별 고문서 가운데 경기감영, 경기도 각 군현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문서들은 뽑아 놓은 것으로서 총 24 항목을 수록하였다. 이 부분은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가운데 앞으로 공개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면, 향후 추가로 다루어야 할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적으로 경기도를 배경으로 작성된 문서나 경기감영 및 예하 관사 등에서 생산된 공문서와 사문서는 모두 여기에서 다룰 수 있다.

끝으로 가문문서에서는 경기도 내에 세거한 종가, 문중 등 경기도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역적 연고를 둔 개별 가문의 고문서를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발간된 각종 자료집, 도록, 온라인 자료관 등을 토대로 23개 가문 소장처를 추렸고, 해당 소장처에 소장된 고문서의 전체 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다. 소장처를 기준으로 23개 항목을 나누었지만, 개별 고문서의 수요를 합산해 보니 7,432점 가량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경기 고문서 현황

구분	읍지	양안	중기·사례·등록	공·사문서	가문문서	합계
항목	39	10	8	24	23 (7,432점)	104

3. 유형별 해설

현재 한국의 여러 고문헌 소장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는 고문서를 분류할 때 크게 문서 발급자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 문서 유형별로 나누는 방법, 내용에 따라 주제별로 나누는 방법 가운데서 각 기관이 추구하는 분류 목적에 맞추어 적합한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발급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주로 국왕문서·왕실문서·관부문서·사인문서 등으로 나눈 다음 그 하위 항목에 구체적인 문서명을 설정하고 있고²⁾, 문서 유형별로 나눌 때는 교령류·소차계장류·첩관통보류·증빙류·시문류 등과 같이 비슷한 성격의 문서들끼리 묶은 다음 그 하위에 개별 문서명을 배열하고 있으며³⁾, 주제별 분류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례 등과 같이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동일한 주제 항목 아래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문서를 열거하고 있다.⁴⁾

이번 연구는 특정 공간이나 소장처에 전래되어 서로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고문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라는 키워드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소장처에 전래된 고문서의 전체적인 현황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하던 고문서 분류법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고문서를 분류 및 배열하였다. 이미 목차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크게 <읍지邑誌>, <양안量案>, <중기重記·사례事例·등록騰錄>, <공·사문서公·私文書>, <가문문서家門文書>로 나눈 다음 그 하위에 개별 고문서를 자료명 기준가다다순으로 정리하였다.

<읍지>, <양안>, <중기·사례·등록>은 대체로 책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성책고문서成冊古文書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기재된 내용을 살펴볼 때 개별 고을의 연혁, 재정, 행정 등 편찬 당시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류帳簿類 또는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 고문서로 다루기도 한다. 여기서는 자료의 성격과 차후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성책고문서나 치부기록류 고문서로 묶지 않고 개별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여러 소장처의 낱장 고문서 가운데서 경기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뽑아서 <공·사문서>로 묶었고, 조선시대로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내에 세거한 가문에 전래된 고문서를 <가문문서>로 따로 분류하여 개략적인 현황을 요약 제시하였다.

2) 최승희, 증보판 《한국 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1989(초판).

3) 윤병태 외, 『한국고문서정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4) 전경목, 「고문서의 조사와 정리 방법론」, 『영남학』 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이하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유형별로 분류된 고문서의 개략적인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읍지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경기도 여러 고을의 제반 현황을 담은 읍지를 39 항목으로 나누어 요약 수록하였다. 앞서 경기 고문서 현황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평을 비롯한 39개 고을이 포함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 고문헌 소장처에 소장된 읍지 가운데서 경기도 부분을 추려냈다.

읍지의 구체적인 편찬 시기는 《영종진읍지》, 《영평군읍지》, 《적성현읍지》가 1842년(헌종 8)에 제작되었고, 《중경지》가 1881년(고종 18), 《양주군읍지》가 1895년(고종 32), 《안산군읍지》가 1900년(광무 4)에 제작되었으며, 나머지 읍지는 모두 1899년(광무 3)에 제작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원문 열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읍지는 조선후기 특정 고을의 연혁으로부터 경계, 호구, 토지, 군역 등 해당 지역의 제반 현황 정보를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읍지가 편찬될 시기를 기준으로 한 개괄적인 정보를 참고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이미 각 지역별 지역사 연구나 시군지 편찬에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가평읍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나. 양안

양안은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에 전국 각 지역별로 전답의 현황을 조사하여 장부 형태로 작성한 일종의 토지대장이다. 이 양안에 기재된 전답의 현황을 토대로 국가는 조세 부과 등의 근거로 삼았다. 대개 전답의 자호字號 및 지번을 기준으로 사표四標, 소유주나 경작자, 토지의 등급, 결부수結負數 등이 기재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소개하는 경기도 지역 양안은 수원, 안성, 양주, 용인, 안산, 양성, 양지, 여주, 음죽, 진위 등 10개 지역에 대한 것이다. 양안의 편찬 시기는 대부분 1899년(광무 3)~1902년(광무 6)인데, 자료에 따라 1901년(광무 5)에 편찬된 양안도 있고, 1902년(광무 6) 양지아문量地衙門이 지계아문地契衙門에 동폐합되면서 작성된 정서본正書本도 있다. 단, 《경기도양주군소재내수사장토사검개타양안京畿道楊州郡所在內需司庄土査檢改打量案》만은 1905년(광무 9) 2월에 작성된 것이다.

모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자료로서 시기적으로는 대한제국기에 시행된 양전量田 사업을 기반으로 편찬되었다. 따라서 이 양안들은 대한제국기 경기 지역의 토지 현황과 내수사의 장토 관리 등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

대한제국기에 접어든 1898년(광무 2)에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 양지아문이 설치되어 양전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1901년(광무 1) 전국적으로 큰 흉년이 들어 이 사업은 지속되지 못했고, 1902년(광무 6) 양전과 토지소유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계아문이 설립되면서 기존 양지아문의 업무가 지계아문으로 인계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양안은 모두 이 당시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통해 이루어진 양전 실무의 산물이다.

다. 중기, 사례,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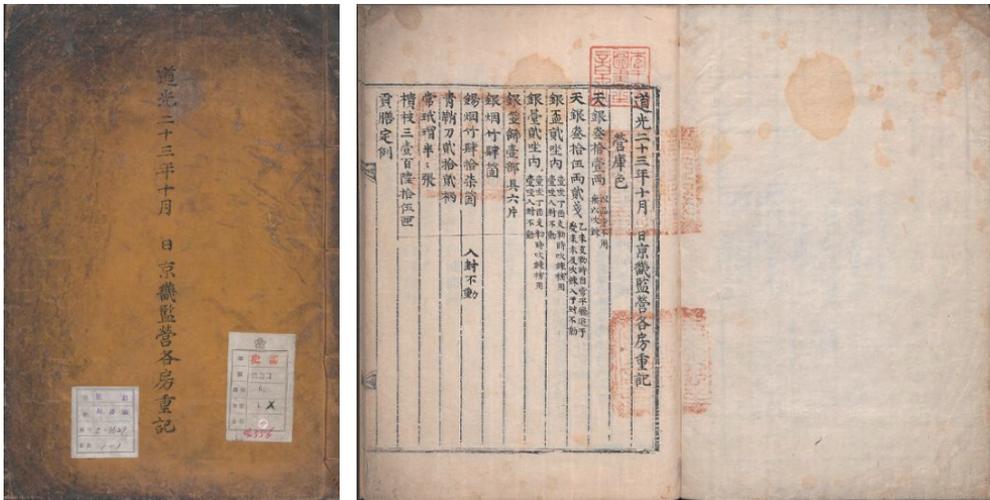
여기서는 읍지와 양안을 제외한 여타 성책成冊 형태의 고문서 8항목을 모았다. 자료명을 놓고 보면 사례事例, 중기重記, 등록騰錄과 같이 각기 다른 특징을 띠지만, ‘경기’, ‘기영’, ‘경기수영’ 과 같이 경기 감영 및 수영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성책고문서라는 공통점이 있다.

편찬 시기는 《기영장계등록》이 1783년(정조 7)~1784년(정조 8) 사이 경기도관찰사 심이지沈頤之가 왕에게 보고한 장계들을 수록하고 있어 다른 자료에 비해 이른 편이고,

나머지는 모두 1800년대 중·후반에 작성되었다.

《경기감영각방중기》와 《경기수영각고도중기》에는 각각 경기감영과 경기수영의 소관 업무에 따른 재물 현황 등이 일목요연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렇듯 중기는 작성 당시 관아에 보관된 여러 품목의 명칭과 수량을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관장(官長)의 해유(解由)를 위한 인수인계문서의 역할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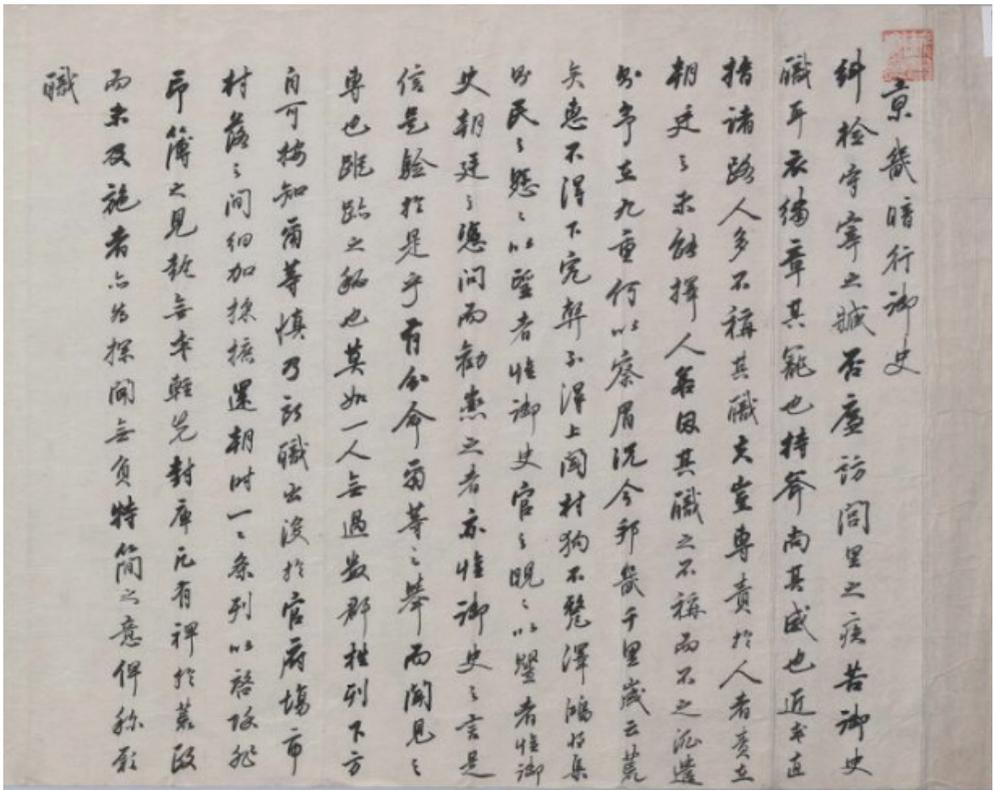
《경기각읍신정사례》를 비롯한 사례事例 3건은 모두 1894년(고종 31)에 작성되어 갑오개혁이 단행된 직후 경기도 내의 재정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경기관초》에는 1886년(고종 23)~1895년(고종 32) 사이 의정부에서 경기감영 및 경기도내 여러 관사에 보낸 공문서인 관關이 다량 등사되어 있고, 앞서 짧게 언급한 바와 같이 《기영장계등록》에는 경기도관찰사 심이지가 재임하고 있던 시기의 관찰사 장계가 수록되어 있어 당시 경기감영의 행정과 주요 사안을 살펴볼 수 있다.



《경기감영각방중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라. 공·사문서

공·사문서에는 낱장 형태의 원본 고문서 가운데서 발급자나 수취자,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경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들을 모아 24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어서 편성한 <가문 문서>에는 경기도에 세거한 가문 소장 고문서를 소장처별로 묶어서 소개한 반면, 경기도 이외의 소장처에 있는 고문서 가운데서도 경기도와 관련된 배경이나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낱장 고문서들을 선별하여 여기에서 다루었다.



1794년 경기암행어사봉서(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작성 시기로 보면 1401년(태종 1)부터 1887년(고종 24)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고, 문서의 유형도 국왕 명의로 내린 문서로부터 관에서 발급한 문서, 개인이 관에 제출한 문서 등 다양하다.

먼저 공문서로는 조선 개국 초인 1401년(태종 1)에 지안산군사知安山郡事 조흠에게 경기도 내에 소재한 토지를 하사하면서 왕명으로 발급된 사패왕지가 있다. 이때 하사된 토지는 지금의 수원, 화성, 여주, 광주 지역에 해당한다.

1633년(인조 11)과 1845년(헌종 11)의 해유문서는 각각 경기수사京畿水使와 이천도호부사利川都護府使의 관직 인수인계에 관한 공문서이다. 전임관으로부터 직무와 비품 등을 인계받은 후임관은 그 이상 유무를 직속상관에게 문서로 보고했고, 이 보고를 토대로 절차를 거쳐 중앙의 이조, 병조, 호조 등에서 해유解由(인수인계)의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 주었다. 이런 일련의 행정 절차를 해유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56년(영조 32) 정홍순에게 내려진 영서수첩과 유서諭書는 경기도관찰사에 제수된 정홍순에게 발급된 왕명문서다. 조선시대에는 신임 관찰사를 제수할 때 왕이 해당 도의 병권과 행정권을 관할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기면서 왕명의 상징인 교서敎書와 유서諭書를 발급했다. 그런데 1756년(영조 32)에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던 시기였으므로 왕의 교서 대신 왕세자의 영서가 발급되었다.

이 외에도 1794년(정조 18)에 경기암행어사에게 암행 임무를 부여하면서 발급한 봉서封書, 1798년(정조 22)에 양천현령 임홍원이 도순찰사都巡察使에게 몇몇 사안에 대해 보고한 서목書目, 경기도관찰사를 비롯하여 강화부유수, 시흥현령, 광주목사 등의 명의로 발급된 관關, 감결甘結, 입안立案 등의 공문서가 있다.

민간에서 발생한 사안을 다룬 문서로는 1660년(현종 1) 경기도 양주에 사는 노奴)산복이 상전을 대신하여 상전택 노비 추쇄推刷 문제로 경기도 금천현, 형조, 경기감영에 연차적으로 올린 문서가 있다. 전라도 해안현의 해남윤씨택의 노비 소유권 다툼과 관계된 문서로서 당시 양반가의 노비 분쟁 및 추쇄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기타 조선후기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산송山訟 문제에 대한 민원문서, 관찰사께 지역의 훌륭한 인재를 추천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연명聯名해서 제출한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마. 가문문서

가문문서에는 조선시대로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 세거한 가문 가운데 소장된 고문서의 현황이 공개된 가문 23곳의 현황을 수록하였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는 불천위不遷位 신위만 해도 144위가 있고, 후손가를 통해 제사 봉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타 지역 못지 않게 여전히 조선시대 이래의 종가와 문중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종가나 가문의 유지와 별도로 고서나 고문서 등의 문헌자료의 전래 유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나 현황 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사회, 도록, 자료집 등을 통해 비교적 잘 알려진 23개 가문의 사례를 수록하였지만, 향후 경기도 내 각 시군 단위에 대한 자세한 고문헌 조사 활동이 진행된다면, 소개할 수 있는 사례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수록한 대상은 광명시의 전주이씨 가문, 광주시의 광주안씨 가문, 군포시의 동래정씨 가문, 남양주시의 해주정씨 가문, 수원시의 평가채씨 가문, 시흥시의

신안주씨·안동권씨·전주이씨·과평윤씨 가문, 안산시의 진주유씨 가문, 안성시의 해주오씨 가문, 양주시의 광주정씨 가문, 여주시의 원주원씨 가문, 용인시의 해주오씨 가문, 이천시의 풍천임씨 가문, 의정부시의 반남박씨 가문, 하남시의 함평이씨 가문, 화성시의 거창신씨·남양홍씨·풍양조씨·수성최씨·함평이씨·해풍김씨 등 23개 가문의 7,400여 점의 고문서이다.

시기적으로는 조선전기인 15세기 사례로부터 조선후기 및 대한제국기에 작성된 문서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도 한 개인의 관료 생활로부터 지역의 일상에서 비롯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두루 담겨 있다. 이들 개별 문서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전통시대 경기도 내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새로운 사실과 이야기들이 발견될 것이다.

4. 맺음말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를 배경으로 생성된 고문서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 파악과 해설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전통시대 경기도 내의 관청 간에 유통된 문서, 민간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당대의 상황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다룬 고문서들은 모두 출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조사나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다만, 이 연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는 역시 여전히 경기도 전역에 산재하고 있을 고문서의 전체 현황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차후 지속적으로 경기도 관련 고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자료집이나 학술서 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으로 확장된다면 경기 고문서가 보여 줄 수 있는 유기적인 연계성 내에서 지금보다 더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읍지
邑誌

가평읍지加平邑誌
강화부지江華府誌
고양군여지승람高陽郡輿地勝覽
과천현읍지果川縣邑誌
광주부읍지廣州府邑誌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교하군읍지交河郡邑誌
김포군읍지金浦郡邑誌
남양군읍지南陽郡邑誌
마전군읍지麻田郡邑誌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
삭녕지朔寧誌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
시흥군읍지始興郡邑誌
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
안성군읍지安城郡邑誌
양근군읍지楊根郡邑誌
양성읍지陽城邑誌
양주군읍지楊州郡邑誌
양지군읍지陽智郡邑誌
양천군읍지陽川郡邑誌
여주읍지驪州邑誌
연천군읍지漣川郡邑誌
영종진읍지永宗鎭邑誌
영평군읍지永平郡邑誌
용인군지龍仁郡誌
음죽군읍지陰竹郡邑誌
이천군읍지利川郡邑誌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
장단군읍지長湍郡邑誌
적성현읍지積城縣邑誌
죽산군읍지竹山郡邑誌
중경지中京誌
지평군읍지砥平郡邑誌
진위읍지振威邑誌
통진읍지通津邑誌
파주군읍지坡州郡邑誌
포천군읍지抱川郡邑誌
풍덕군읍지豐德郡邑誌

가평읍지

加平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가평군(京畿道 加平郡)
크기	29.5 × 20.0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0월에 편찬된 『가평읍지(加平邑誌)』이다. 『가평읍지』는 현재 규장각 2종, 한국학중앙연구원 1종으로 총 3종이 전한다. 본 해제의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01)이며, 19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0월에 편찬된 『가평읍지(加平邑誌)』이다. 조선시대 가평군은 동으로는 춘천(春川), 남으로는 홍천(洪川), 양근(楊根), 서쪽으로는 양주(楊州), 포천(抱川), 북으로는 영평(永平), 낭천(狼川)과 맞닿은 고을이다. 본래 고구려 근평군(斤平郡)이었는데, 신라 때 가평군(嘉平郡)으로 고쳤다. 1018년(고려 현종 9) 춘천에 소속되었다가 1396(태조 5) 조종현(朝宗縣)을 가평의 영현으로 삼게하고 감무(監務)를 두었다. 1507년(중종 2) 중종의 태실이 있는 것으로 인해 군으로 승격되었다.

가평군의 읍지는 규장각 2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이다. 권수제에 광무 3년 10월 성책(成冊) 되었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연혁(沿革)부터 역대 수령을 기재한 선생안(先生案)까지 19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당시 군수였던 조준희(趙準熙)가 기재되어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2개의 읍지는 1842년 이후 필사된 읍지(奎 17373)와 1899년 5월에 편찬된 읍지(奎 10729)가 있다. 이중 1899년 5월에 편찬된 읍지는 장서각 소장본과 내용이 유사한데 각 읍지마다 항목이 일치하지 않으며, 동일 내용이 수록되었더라도 일부는 다른 항목에 기재되는 등 차이점이 다소 있다.

예컨대 규장각 소장 읍지의 경우 연혁, 선생안 등이 없는 반면, 장서각 소장본은 연혁과 선생안이 소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 장서각 소장 읍지에는 없는 진도선척(津渡船隻), 장시(場市), 점막(店

幕) 등이 규장각 소장본에는 기재되어 있어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있다.

본 해제 대상인 장서각 소장본에 기재된 선생안의 경우 을미병란(乙未兵亂)으로 인해 경진년 이전 선생안을 잃어버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선생안 첫 번째에 정광연(鄭匡淵)이 기재되어 있고, 부임일이 경진년임을 보아, 읍지에서 말하는 경진년은 1880년(고종 17)이다. 선생안에는 1880년 부임한 정광연부터 당시 군수인 조준희까지 18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역관으로 외교에서 활약한 변원규(卞元圭)도 있다.

본 문헌은 여타 읍지와 달리 누락된 항목이 일부 보이나, 규장각 소장본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규장각 소장본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조준희(趙準熙): 생몰년 미상, 1894년(고종 31) 동몽교관에 제수된 이후, 공릉령(恭陵令), 삭녕군수(朔寧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1897년(광무 원년) 가평군수에 제수되었으며, 1902년(광무 6)까지 가평군수로 재직하였다.
 - 변원규(卞元圭): 1837년(헌종 3)~1896년(건양 원년), 1855년(철종 6) 역과에 입격하여 한학역관(漢學譯官)이 되었다. 1880년(고종 17) 재자관(齎咨官)으로 텐진(天津)에서 이홍장(李鴻章)을 만나 군기 및 군사 훈련 관련 장정을 상의하였다. 이때의 공로를 인정받아 1881년(고종 19) 적성현감이 되었다가 다시 가평군수가 되었다.

참고 문헌

- 김홍매, 「역관 卞元圭의 생애와 중국사행 시의 교류」, 『국문학연구』 36, 국문학회, 201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http://jsg.aks.ac.kr>)

강화부지

江華府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강화군(京畿道 江華郡)
크기	32.3×21.4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작성된 『강화부지(江華府誌)』이다. 강화군의 읍지는 규장각 6종, 장서각 1종 등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의 奎 10703이며, 49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작성된 『강화부지(江華府誌)』이다. 조선시대 강화군은 동으로 통진(通津), 서쪽으로는 교동(喬桐), 북으로는 풍덕(豐德)과 바다를 마주보고 있으며, 남으로는 서해를 끼고 있다. 철종이 등극 이전에 있었던 곳이며, 조선시대 사고 중 하나인 강화사고(江華史庫)와 외규장각(外奎章閣) 등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지정학적으로 수도인 한양으로 향하는 수로가 지나며, 바다로 둘러싸인 탓으로 군사적 요충지였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읍지에 따르면 강화군은 본래 고구려 혈구군(穴口郡)인데, 신라 때 해구군(海口郡)으로 고쳤다. 고려 때에 들어 강화현(江華縣)으로 고쳤으며, 1018년(고려 현종 9) 현령을 두었다. 1232년(고려 고종 19년) 몽고군을 피하여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으며, 강화군(江華郡)으로 승격시켜 강도(江都)라 하였다. 1260년(고려 원종 원년) 개성으로 환도하면서 도읍의 기능은 소실되었다.

1377년(고려 우왕 3) 부(府)로 승격되었으며, 1413년(태종 13) 도호부로 고쳤다. 1895년(고종 32) 지방 제도 개정에 따라 강화군이 되었다.

강화군의 읍지는 규장각 6종, 장서각 1종 등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의 奎 10703이며, 49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 읍지들은 대부분 『강화부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1783년(정조 7), 1881년(고종 18), 1899년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1783년 읍지의 경우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기에 다수의 소장처가 존재한다.

본 해제 대상은 1899년 작성된 읍지로 시기상 가장 나중에 작성된 읍지이다. 여타 읍지와 달리 분량이 많으며, 4권 1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다. 권1에는 강역(疆域)부터 전부(田賦)까지 16개조가 수록되었으며, 권2는 궁전(宮殿)부터 사찰(寺刹)까지 8개조, 권3은 직제(職制)부터 열녀(烈女)까지 9개조, 권4는 문과(文科)부터 고금사실(古今事實)까지 7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구권(舊卷)이라는 항목과 발문이 있는데, 구권은 1783년 목관으로 간행된 『강화부지』의 부권(附卷)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며, 발문은 남궁호(南宮灝)가 쓴 것이다. 발문을 통해 1872년(고종 9) 병인양요, 신미양요 관련 사실을 수록하기 위하여 개수하였으며, 본 읍지가 1872년 읍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읍지는 강화부의 다양한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강화부의 군사, 사회적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다른 읍지와 비교, 대조하여 강화도 관련 연구 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

-
- 강화사고(江華史庫): 조선시대 사고로 1605년(선조 38) 설치되었다. 1660년(현종 1) 정족산으로 이견되었고, 지정학적으로 한양과 가까워 외사고 서적을 고출(考出)해야 할 때 우선적인 고출 대상이 되었다.

참고
문헌

강문식, 「조선 후기 강화사고의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제64집, 조선시대사학회, 201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고양군 여지승람

高陽郡輿地勝覽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고양군(京畿道 高陽郡)
크기	29.1 × 13.8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편찬된 『고양군여지승람(高陽郡輿地勝覽)』이다. 고양군의 읍지는 현재 규장각에 5종, 장서각 1종이 확인된다. 본 해제의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12)이며, 27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편찬된 『고양군여지승람(高陽郡輿地勝覽)』이다. 조선시대 고양군은 동으로 양주(楊州), 남으로는 한양(漢陽)과 맞닿아있으며, 양천(陽川)과 강을 맞대고 있다. 또 서 쪽으로는 김포(金浦)와 강을 두고 있으며, 북쪽은 교하(交河), 파주(坡州)와 맞닿은 고을이다.

읍지에 따르면 고양군은 본래 고구려 달을성현(達乙省縣)으로 신라 때 고봉(高峯)으로 개칭되었으며, 교하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양군에 소속된 행주(幸州)의 경우 본래 고구려 개백현(皆伯縣)이었으며, 신라 때 우왕(遇王)으로 바뀌어 한양군(漢陽郡)의 영현으로 삼았다. 이후 고려 초에 행주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한다. 두 현은 1018년(고려 현종 9) 양주에 속해졌으며, 1413년(태종 13) 두 현을 합쳐 고양현이 되었다. 1471년(성종 2)에는 경릉(敬陵)과 창릉(昌陵)이 있는 까닭으로 군으로 승격되었다.

신경준의 『도로고(道路考)』에 따르면 고양군은 서울과 평안도 의주(義州)를 잇는 의주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도로고(道路考)』에 기재된 검암점(黔巖店), 신원(新院), 벽제역(碧蹄驛) 등이 고양군 소재 지역이다.

고양군의 읍지는 규장각 5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12)이다. 건치연혁(建置沿革)부터 역대 수령을 기재한 선생안(先生案)까지 총 27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이중 능원(陵園)조에는 덕종의 경릉, 예종과 소혜왕후(昭惠王后)의 창릉, 희릉(禧陵), 효릉(孝陵), 익릉(翼陵), 명릉(明陵), 순창원(順昌

園), 소경원(昭慶園) 등 조선시대 능원과 고려 공양왕의 능이 기재되어 있다. 충묘(塚墓) 조에는 왕실 능원이 아닌 고양군 소재한 유명인사의 묘를 기재하고 있다. 이 중에는 최영(崔瑩), 월산대군(月山大君) 등의 인물들이 보인다.

선생안에는 하부(河傅), 김수렴(金守廉)을 기재한 다음, 병술년 9월 선생안이라는 명칭 아래 안복선(安復善, 1568~1656)부터 구본순(具本淳)까지 총 216명이 기재되어 있다. 안복선 앞에 기재된 설명을 살펴보면 열읍들은 다 선생안이 있으나 유독 본군(本郡)만은 전란을 거친 뒤 선생안이 없으니...로 시작하는 점으로 보아 여기서의 병술년은 전란이 끝난 뒤인 1646년(인조 24)인 점을 알 수 있다.

구본순은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보아 1899년 고양군수로 임명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읍지의 선생안은 1646년부터 1899년까지 약 250여년의 역대 수령이 기재된 것이다.

이외 읍지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중 『고양군지(高陽郡誌)』(奎 12706)는 1755년(영조 31)에 편찬된 읍지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외에도 1843년(헌종 10) 이후 작성된 『고양군읍지(高陽郡邑誌)』, 1891년(고종 29) 작성된 『고양군여지승람(高陽郡輿地勝覽)』 2종이 있다.

장서각 소장 읍지는 현재 확인되는 읍지 중 가장 마지막에 편찬된 읍지로 추후 고양군 관련 연구 진행 시 여러 읍지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하부(河傅): 생몰년 미상, 1424년 고양현감으로 부임하였으며, 1426년(세종 8) 감사 심도원(沈道源)과 함께 고양시에 있었던 벽제관(碧蹄館)을 수리하였다.
 - 김수렴(金守廉): 1574년(선조 7)~1651년(효종 2), 조선 중기 문신으로 평난공신(平難功臣) 김명원(金命元)의 아들이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과천현읍지

果川縣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과천군(京畿道 果川郡)
크기	31,6 × 23,1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편찬된 『과천현읍지(果川縣邑誌)』이다. 과천현은 1895년 이후 과천군이 되었는데, 목록의 제목은 『과천현읍지』로 되어 있어 해제에서도 이를 따랐다. 과천군의 읍지는 현재 규장각 3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14)이며, 32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편찬된 『과천현읍지(果川縣邑誌)』이다. 조선시대 과천현은 동과 남쪽으로 광주(廣州)에 둘러싸여 있으며, 서쪽으로 시흥(始興)과 맞닿아있고, 북으로는 한양(漢陽)과 강을 마주보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과천현은 본래 고구려의 울목군(粟木郡)으로 신라 때 울진(栗津)으로 고쳤으며, 고려 때 과주(果州)가 되었으나, 1018년(고려 현종 9) 광주(廣州)에 소속되었다. 이후 감무(監務)를 두었다가 1413년(태종 13) 과천현감으로 고쳤다. 1895년(고종 32) 지방 제도 개정으로 인해 군이 되었다. 읍지의 명칭은 기재된 내용을 보아 과천군인 시절 기재한 것인데, 목록의 제목에서 『과천현읍지(果川縣邑誌)』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 해제도 이를 따랐다.

신경준의 『도로고』에 따르면 과천은 서울과 제주를 이어주는 제주로(濟州路)가 거쳐가는 고을이다. 정조가 수원에 행차할 때 과천을 경유한 길이기도 하다.

과천군의 읍지는 규장각 3종, 장서각 1종이 전하는데, 본 해제의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14)이다. 읍지에는 사계(四界)부터 역대 수령을 기재한 선생안까지 총 32개조가 적혀있다. 이 중 성곽 관방봉수(城郭關防烽燧), 궁실(宮室), 능침(陵寢)은 내용이 없다.

본 읍지는 각 항목마다 항목을 설정한 이유 등을 서문처럼 풀이한 것이 특징이다. 권수에는 지도가 있다. 역원(驛院) 조에는 양재

역(良才驛), 노량원(露梁院), 인덕원(仁德院), 미륵원(彌勒院), 오금원(五金院), 요광원(要光院) 등이 기재되어 있다.

묘소(墓所) 조에는 효령대군(孝寧大君), 창빈(昌嬪) 등의 묘가 있다. 선생안에는 김덕해(金德海)부터 강상기(姜相驥)까지 221명이 기재되어 있다. 김덕해의 생몰년은 명확하지 않으나, 선생안에 따르면 만력(萬曆) 19년에 부임했다고 한다. 만력 19년은 1591년(선조 24)이므로 본 읍지의 선생안에는 1591년부터 1899년까지 300여년간 부임한 수령이 수록된 것이다.

규장각에 소장된 3종의 읍지로는 1891년(고종 28)에 작성된 『과천현읍지(果川縣邑誌)』(古 915.12-G994h), 1899년 작성된 『과천군읍지(果川郡邑誌)』(奎 10708, 古 915.12-G994c)이 있다. 이 중 1899년 작성된 2종의 읍지는 목록상 장서각 소장본과 체제가 동일하나, 장서각 소장본은 앞서 언급한 선생안이 추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
- 창빈(昌嬪): 1499년(연산군 5)~1549년(명종 4), 중종의 후궁이며, 선조의 할머니이다. 본관은 안산이며, 성씨는 이씨(李氏)로 1507년(중종 2) 궁녀로 입궐하였다. 1577년(선조 10) 정1품 창빈으로 추봉되었다. 묘소는 원래 양주 장흥리에 있었으나, 후에 과천 동작리로 이장하였다. 묘소는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되었다.

참고
문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광주부읍지

廣州府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광주부(京畿道 廣州府)
크기	26.7×19.0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5월에 작성된 『광주부읍지(廣州府邑誌)』이다. 광주부의 읍지는 규장각 5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奎 10701)이며, 35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5월에 작성된 『광주부읍지(廣州府邑誌)』이다. 조선시대 광주부는 매우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 마주한 고을이 많다. 동으로 양근(楊根), 남으로는 용인(龍仁), 수원(水原), 서쪽으로는 과천(果川), 안산(安山), 시흥(始興), 북으로는 한양(漢陽), 양주(楊州) 가평(加平) 등과 마주하고 있다.

읍지에 따르면 광주부는 본래 백제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기원전 6년(백제 온조 13) 위례성에서 이곳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한다. 이후 371년(백제 근초고왕 26) 남평양성(南平壤城)으로 도읍을 옮기었고, 신라가 광주의 땅을 차지하면서 남한산성을 고쳐 한산주(漢山州)로 삼았으며, 757년(신라 경덕왕 16) 한주(漢州)로 고치고, 940년(고려 태조 23) 광주(廣州)로 명칭을 고쳤다. 1018년(고려 현종 9) 광주목이 되었다. 이후 1627년(인조 5) 읍치를 옮기고, 1637년(인조 15) 부(府)로 승격시켰다.

광주부의 읍지는 규장각 5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의 奎 10701이다. 해당 읍지에는 35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능침(陵寢) 조에는 헌릉(獻陵), 정릉(靖陵)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성종의 태실(胎室)이 문헌 태봉(胎峯)도 기재되어 있다. 또 살펴보면 다수의 대군, 군의 묘가 기재되어 있다.

역원(驛院) 조에는 경안역(慶安驛), 덕풍역(德豐驛)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찰(寺刹) 조에는 망월사(望月寺), 동림사(東林寺), 청계사(淸溪寺), 봉은사(奉恩寺) 등 다수의 사찰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청계사는 왕실의 원찰(願刹)이기도 하다.

책판(冊板) 조에는 『사략(史略)』, 『통감(通鑑)』, 『천자문(千字文)』 등 22종의 책판이 수록되어 있으며, 『사략』 등 옛 책판의 경우 결락이 있다고 당시 상태를 기술해두었다.

권말에는 역대 수령을 기재한 선생안이 있는데, 1559년(명종 14) 부임한 윤현(尹鉉)부터 당시 부윤인 정인석(鄭寅奭)까지 약 350년에 걸쳐있다.

이외 규장각에는 1801년(순조 1) 읍지 2종, 1871년(고종 8) 읍지 1종이 더 있으며, 장서각 소장 읍지는 1899년 작성된 읍지이다. 광주부 관련 연구 진행 시 해당 읍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
- 성종 태실(胎室): 현재 서울 창덕궁 양화당 동북쪽 숲속에 위치한다. 원래 위치는 경기도 광주 경안면이었으나, 1928년 일제에 의하여 이봉되었다. 관련 자료로 규장각 소장의 『성종태실비석개수의궤(成宗胎室碑石改豎儀軌)』가 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교동군읍지

喬桐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교동군(京畿道 喬桐郡)
크기	29.7×18.6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2월 작성된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이다. 교동군의 읍지는 규장각 2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그 중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18)이며, 49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2월 작성된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이다. 조선시대 교동군은 동으로 강화도(江華島), 북으로는 황해도 연안(延安), 배천(白川)을 마주보고 있으며, 남과 북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는 고을이다.

읍지에 따르면 교동군은 본래 고구려 고목근현(高木根縣)이며, 신라 때 교동으로 고쳐 혈구군(穴口郡)의 속현으로 삼았다. 고려 때에도 이를 따랐으며, 고려 명종 대에 감무를 두었다. 1395년(태조 4) 만호겸지현사(萬戶兼知縣事)를 두고 후에 현감으로 고쳤다. 이후 1895년(고종 32) 혁파되었다가, 1896년(건양 원년) 다시 읍이 복구되면서 군이 되었다. 교동군은 중종반정으로 서인이 된 연산군의 유배지이기도 하다.

교동군의 읍지는 규장각 2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의 K2-4218이며, 49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임수(林藪), 능묘(陵墓), 역원(驛院)은 내용이 없다.

권수에는 지도가 부기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역대 수령을 기재한 선생안이 있다. 성지(城池) 조에는 화개산성(華蓋山城)이 적혀있다. 원래 내·외성이 있었으나 외성은 옮겨, 내성만 있다는 등의 설명이 있다. 교동도는 바다를 끼고 있고, 읍지 작성 당시 수령은 방어사를 겸하였으므로 병선(兵船) 조에 다양한 군선이 확인된다. 읍지에는 거북선(龜船) 1척, 전선(戰船) 2척, 방선(防船) 1척 등 총 19척이 확인되나, 마지막에는 세월이 오래되어 파손되었기에 해방영(海防營)에 보고하여 탈하(傾下)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환적(宦績) 조에는 역대 수령들을 기재하였는데, 김맹강(金孟江)부터 당시 군수였던 서상교(徐相喬)까지 309명이 기재되어 있다. 실록을 보면 김맹강은 1481년(성종 12) 당시 교동현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읍지는 1481년부터 1899년까지 410여년의 세월이 걸쳐있는 셈이다.

이외 규장각 소장인 2종의 『교동군읍지』(奎 10731, 古 915.12-G999g)는 표지를 보아 1899년 5월에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해제 대상 읍지는 위 읍지보다 7개월 뒤에 작성된 것이다. 교동군 관련 연구 진행 시 위 읍지들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
- 서상교(徐相喬): 1838(헌종 4)~?, 조선 말기 문신, 1886년(고종 23) 육영공원이 설치되자 주사가 되었다. 1892년(고종 29)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 1894년(고종 31) 상해에 있던 김옥균이 암살당하자 시신을 인수하여 귀국하였다. 인천부사, 교동군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1905년(광무 9)에는 궁내부특진관이 되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교하군읍지

交河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교하군(京畿道 交河郡)
크기	29.6 × 18.4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0월 편찬된 『교하군읍지(交河郡邑誌)』이다. 『교하군읍지』는 현재 규장각 2종, 장서각 1종이 소장되어 있다. 본 해제의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19)이며, 37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0월에 편찬된 『교하군읍지(交河郡邑誌)』이다. 조선시대 교하군은 동으로 파주(坡州), 남으로는 고양(高陽)과 맞닿아있으며, 서쪽으로 통진(通津), 북쪽으로 장단(長湍)과 개성(開城)과 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 본래 고구려의 천정구현(泉井口縣)이었으나, 신라 때 교하현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1018년(고려 현종 9) 양주(楊州)에 소속시켰으며, 1418년(태종 18) 현감을 두었다. 1731년(영조 7) 장릉(長陵)을 천장한 뒤, 군으로 승격되었다.

교하군의 읍지는 규장각 2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이다. 표지를 통해 광무 3년 10월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연혁(沿革)부터 역대 수령을 기재한 선생안(先生案)까지 37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진보(鎭堡), 목장(牧場), 관애(關陔), 누정제영(樓亭題詠), 형승(形勝), 성지(城池)는 내용이 없다.

권수에는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지도에는 교하군의 마을 및 주요 지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말미에 수록된 선생안은 조방영(趙邦穎)부터 당시 군수였던 황궁연(黃兢淵)까지 181명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조방영은 16세기 활동한 인물이므로 선생안에는 약 4세 기간의 역대 수령이 기재된 셈이다.

역원으로는 냉정원(冷井院)과 낙하원(洛河院)이 기재되어 있으나 협주를 통해 1899년(광무 3) 당시에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군내에 소재한 묘(墓)에 대한 기록 중에는 조선 전기 명신인 황희(黃喜)의 묘도 확인된다.

이의 규장각 소장 읍지(奎 10727, 古 915.12-G999h)의 경우 표지를 통해 동년 5월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서각 소장본과 달리 선생안이 부기되어 있지 않다. 구성도 차이가 있어 추후 교하군 관련 연구를 진행할 시 읍지간의 비교, 대조를 할 필요가 있다.

- 조방영(趙邦穎): 1535년(중종 30)~?, 1564년(명종 19) 문과에 급제하였다. 아버지는 양성현감을 지낸 조전(趙詮)이다.
- 황궁연(黃兢淵): 생몰년 미상, 1893년(고종 30) 선공감 가감역(假監役)에 제수된 이후, 이천군수(伊川郡守)를 역임하고 1899년 교하군수에 임명되었다.
- 황희(黃喜): 1363년(공민왕 12)~1452년(문종 2), 1376년(우왕 2) 음보로 복안궁녹사(福安宮錄事)가 되었다가 1389년(공양왕 원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고려 멸망 이후 한동안 고려의 유신으로 은둔하다가 1394년(태조 3) 태조의 요청으로 관직에 나아갔다. 세종대의 명재상으로 활약하였으며 저서로는 『방촌집(龐村集)』이 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http://jsg.aks.ac.kr>)

김포군읍지

金浦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김포군(京畿道 金浦郡)
크기	28.9×18.5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0월에 편찬된 『김포군읍지(金浦郡邑誌)』이다. 김포군의 읍지는 현재 규장각 1종, 장서각 1종이 확인된다. 본 해제의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26)이며, 22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0월 편찬된 『김포군읍지(金浦郡邑誌)』이다. 조선시대 김포군은 동으로 고양(高陽)과 강을 마주 보고 있으며, 남으로는 양천(陽川), 부평(富平), 북으로는 통진(通津)과 맞닿아 있다. 서쪽으로는 서해를 끼고 있다.

읍지에 따르면 김포군은 본래 고구려 검포(黔浦)로 신라 때 장제(長堤)로 개칭되었다. 조선 건국 초기 금양(金陽)으로 개칭하고, 양천에 소속시켰다. 그 후 양천이 금천(衿川)에 소속되면서 김포는 부평의 속현이 되었다, 1416년(태종 16) 김포현으로 바꾸었으며, 원종(元宗)의 능인 장릉(章陵)이 봉건(封建)된 이후 군으로 승격되었다.

신경준의 『도로고』에 따르면 김포군은 서울과 강화도를 이어주는 강화로(江華路)가 지나는 고을이었다. 강화로는 여러 사료들을 살펴보면 역대 왕들이 장릉에 봉심(奉審)하기 위하여 다니는 길로도 활용되었으며, 연산군이 교동으로 폐위될 때와 철종이 왕이 되어 한성으로 가기 위해 지나간 길이기도 하다.

김포군의 읍지는 규장각과 장서각에 각각 1종이 있다.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26)이다. 읍지는 건치연혁(建置沿革)부터 역대 수령을 기재한 선생안(先生案)까지 총 22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이중 역도(驛睹), 전각(殿閣), 성첩(城堞)조는 내용이 없다.

앞부분에는 지도가 있으며, 능침(陵寢)조에는 장릉이 기재되어 있다. 사찰(寺刹)조에는 봉릉사(奉陵寺), 망해사(望海寺), 학서암(鶴棲菴)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김포군의 역대 수령을 기록한 선생안이 있다. 선생

안은 김광환(金光煥)부터 장윤환(張允煥)까지 총 169명이 수록되어 있다. 김광환은 1609년(광해군 1)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므로 김포의 수령이 된 것은 17세기 초 이후로 볼 수 있다. 장윤환은 1899년 당시 김포군수였으므로 선생안은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약 300년 가까운 시기의 수령이 기재된 것이다.

장서각 소장 외에도 규장각에 읍지가 소장되어 있는데, 해당 읍지는 동년 5월에 편찬된 것이다. 동일항목의 경우 내용이 같으나, 일치하지 않는 항목도 있어 김포군 관련 연구 진행 시 서로 교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원종(元宗): 1580년(선조 13)~1619년(광해군 11), 선조의 아들이며, 인조의 아버지이다. 1587년(선조 20) 정원군(定遠君)으로 봉해지고, 1604년(선조 37)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인조 즉위 이후 대원군이 되었으며 1632년(인조 10) 묘호가 정해지면서 추존왕이 되었다. 능(陵)은 김포에 소재한 장릉(章陵)이다.
 - 봉릉사(奉陵寺): 원래 명칭은 고상사(高上寺)로 신라 진흥왕 재위시기인 6세기 중후반에 창건되었다. 원종의 장릉이 김포에 이장된 이후, 현 위치로 옮겼으며, 장릉을 보호하는 사찰로 삼고, 명칭을 봉릉사로 바꾸었다. 현 명칭은 금정사(金井寺)로 조계사의 말사이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남양군읍지

南陽郡邑誌

작성연대	[추정 :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남양군(京畿道 南陽郡)
크기	32.2×21.4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남양군읍지(南陽郡邑誌)』이다. 남양군의 읍지는 규장각에 2종이 전한다. 그 중 본 해제 대상은 奎 10705이며, 40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남양군읍지(南陽郡邑誌)』이다. 조선시대 남양군은 동과 남으로 수원(水原)을 맞대고 있으며, 서쪽과 북쪽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남양군은 본래 고구려 당성현(唐城縣)이며, 신라 때 당은군(唐恩郡)으로 고쳤다. 고려 때 다시 당성으로 고쳤다가 1018년(고려 현종 9) 수주(水州)의 속현으로 삼았다. 이후 인주(仁州)로 관할을 옮겼으며, 1290년(고려 충렬왕 16) 남양 출신인 홍다구(洪茶丘)가 원나라에서 정동행성우승(征東行省右丞)이 되자 직위를 지식주사(知益州事)로 승격시켰다. 이후 강녕도호부(江寧都護府), 익주목(益州牧)으로 승격되었다. 1310년(고려 충선왕 2) 목을 폐지함에 따라 남양부(南陽府)로 강등되었으며, 1413년(태종 13) 도호부로 바뀌었다. 이후 1895년(고종 32) 지방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군이 되었다.

남양군의 읍지는 규장각에 2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奎10705이며, 40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성지(城池), 관방(關防), 교량(橋梁), 궁실(宮室)은 내용이 없다.

권수에는 지도가 부기되어 있다. 진보(鎭堡) 조에는 화양진(花梁鎭)이 기술되어 있으며, 능묘(陵墓) 조에는 신빈 김씨(愼嬪金氏)의 능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장시(場市) 조에는 읍내장(邑內場), 청산장(靑山場), 기지장(機池場) 등 남양군에 서던 시장이 기재되어 있다. 환적(宦積) 조에는 남양군의 역대 수령들이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에 기재된 인물은 구정

환(具鼎煥)인데, 구정환은 1767년(영조 43) 남양부사에 제수된 자이다.

이외에도 규장각에는 1891년(고종 28)부터 1894년(고종 31) 사이에 작성된 『남양부읍지(南陽府邑誌)』가 있다. 위 두 읍지는 명확한 작성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남양부읍지』의 경우 읍지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시기를 유추할 수 있다. 본 해제 대상인 『남양군읍지』는 남양군이라는 표현과 당시 다른 읍지들의 작성 시점을 기반으로 유추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양군은 1895년(고종 32)에 부에서 군으로 변경되므로 읍지는 1895년 이후 작성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시기 대다수의 읍지가 1899년에 작성된 것으로 미루어 본 읍지도 이 시점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본 해제 대상 읍지는 『남양현읍지』와 함께 비교·검토하여 남양군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
- 신빈 김씨(愼嬪金氏): ?~1464년(세조 10), 세종의 후궁이다. 1435년(세종 17) 영해군 이장(李璋)을 낳았다. 세종 승하 후 비구니가 되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마전군읍지

麻田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마전군(京畿道 麻田郡)
크기	28,9×18,9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2월 편찬된 마전군의 읍지이다. 규장각에 소장된 3종의 읍지에는 없는 연혁(沿革), 선생안(先生案) 등이 기재되어 내용이 풍부한 편이다. 수록 내용을 살펴보면 연혁으로 시작하며, 선생안의 경우 역대 수령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1890년(고종 27) 동헌(東軒)에 화재가 났으므로 남은 기록을 베껴둔다는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선생안에는 박세무(朴世茂)를 시작으로 당시 군수였던 정완영(鄭旼永)까지 총 172명이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편찬된 『마전군읍지』이다. 마전군은 지금의 연천군 미산면, 왕징면, 군남면 일대에 있던 조선시대 고을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삼국시대 백제, 고구려 속현이었다가 통일신라대에 임단현(臨端縣)으로 개칭되면서 우봉군(牛峯郡)에 소속되었다. 이후 고려시대 들어 마전(麻田)으로 불렸으며, 조선 건국 이후 공양왕의 아우인 왕우(王瑀)에게 고려 왕씨의 제사를 받들게 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마전군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3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1종의 읍지가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 『마전군읍지』의 특징을 간략히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다.

규장각 소장 奎17374의 경우 1841년(헌종 7)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확인되는 읍지 중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이외 2종은 1899년 5월에 편찬된 자료이며,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 분량을 살펴보면 1841년 편찬된 읍지의 경우 2장, 1899년 편찬된 2종은 각각 3장으로 내용이 간략한 편이다.

반면, 장서각에 소장된 자료의 경우 1899년에 편찬된 읍지이나, 12월에 편찬되었음을 통해 같은 년도 편찬된 규장각 소장본보다 7개월 뒤에 기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전체 15장으로 규장각 소장본에 비해 내용이 풍부한 편이다. 특히 규장각 소장본에는 기술

되지 않은 연혁, 선생안 등이 부기되어 활용 가치가 높다.

그러나 마전군의 당시 모습을 반영한 고지도는 규장각에 소장된 奎10725에만 부기되어 있어 마전군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경우 장서각 소장본과 규장각 소장 奎10725를 상호 참조할 필요가 있다.

-
- 박세무(朴世茂) : 1487년(성종 18)~1564년(명종 19), 1531년(중종 26) 문과에 급제하고, 1539년 마전군수에 제수되었다. 조선시대 아동들의 학습서 중 하나인 『동몽선습』을 공저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 정완영(鄭玩永) : 생몰년 미상, 행적은 알 수 없으나, 1888년(고종 25) 선전관이 되고, 1895년(고종 32) 함안군수를 거친 뒤 1897년 마전군수로 부임하였다. 마전군수로 1897년부터 1899년(고종 36) 12월까지 재직하였다.

참고 문헌

- 류부현, 「『童蒙先習』의 著者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집 3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9.
- 최영성, 「『童蒙先習』 著者에 대한 再論」, 『孔子學』 32, 한국공자학회, 2017.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http://jsg.aks.ac.kr>)

부평군읍지

富平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부평군(京畿道 富平郡)
크기	29.8×17.9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1월 작성된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이다. 부평군의 읍지는 규장각 3종,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1종, 장서각 1종,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1종이 전한다. 그 중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41)이며, 24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1월 작성된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이다. 조선시대 부평군은 동으로 양천(陽川), 시흥(始興), 남으로는 인천(仁川), 북으로는 김포(金浦)와 맞닿아있으며, 서쪽으로는 바다와 접해있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읍지를 참고하면 부평군은 본래 고구려 주부토군(主夫吐郡)인데, 신라 때 장제군(長堤郡)으로 고쳤다. 고려 때 수주(樹州)로 고치고, 995년(고려 성종 14)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 1005년(고려 목종 8) 혁파하고, 1018년(고려 현종 9) 지수주사(知樹州事)로 고쳤다. 1215년(고려 고종 2)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로 고치고, 1308년(고려 충렬왕 34) 길주목(吉州牧)으로 승격되었다. 1310년(고려 충선왕 2) 목이 폐지되면서 부평부(富平府)로 강등되었다. 1413년(태종 13) 부를 도호부로 고쳤다. 1895년(고종 32) 지방 제도 개정에 따라 부평군이 되었다.

부평군의 읍지는 규장각 3종, 존경각 1종, 장서각 1종,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41)이며, 24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권수에는 지도가 부기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역대 수령을 기재한 선생안이 있다. 역원(驛院) 조에는 금륜역(金輪驛), 구슬원(球瑟院), 대야원(大也院)이 있으며, 읍치와의 거리를 기재해두었다. 불우(佛宇) 조에는 만월사(萬月寺), 명월사(明月寺), 봉일사(奉日寺)가 적혀있으며, 마지막에는 ‘계양산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라는 표

현을 통해 당시 이미 폐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권말에 위치한 선생안은 고려조 동북 9성을 설치한 윤관(尹瓘)부터 당시 군수였던 신찬희(申贊熙)까지 285명이 기재되어있다. 선생안에는 빠진 사람도 있지만 처음으로 기재된 윤관은 12세기 인물이므로 대략 700년 가까운 시기가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읍지 이외에도 규장각 소장의 1698년(숙종 24) 무렵 작성된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古 915.12-B889b), 1842년(헌종 8) 무렵 작성된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奎 17361), 1899년 작성된 5월에 작성된 『부평군읍지』(奎 10715)가 있으며, 성균관대학교에도 1899년 작성된 읍지가 있다. 부평군읍지는 프랑스에도 그 소재가 확인되는데, 동양언어문화학교 소장으로 부기된 선생안을 참고하면 1870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보아 본 해제 대상은 현재 확인되는 읍지 중 가장 마지막 시기 작성된 읍지이며 추후 부평군 관련 연구 진행 시 다른 읍지와 비교, 검토를 통해 부평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
- 신찬희(申贊熙): 1863년(철종 14) 부장(部將)을 시작으로, 사과(司果), 훈련판관(訓練判官), 연일현감(延日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성균관대학교 존경각(<http://oldbook.skku.edu>)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삭녕지

朔寧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삭녕군(京畿道 朔寧郡)
크기	29.4 × 19.0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1월 편찬된 삭녕군의 읍지이다. 삭녕군 관련 읍지는 현재 규장각 3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본 해제의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43)이며, 19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1월에 편찬된 『삭녕지(朔寧誌)』이다. 조선시대 삭녕군은 동으로 철원(鐵原), 남으로 연천(漣川), 장단(長湍), 서쪽으로 토산(兔山), 북으로 안협(安峽)과 맞닿아있던 고을이다. 현재는 행정구역이 강원도이나, 조선시대에는 경기도에 속하였다.

읍지에 따르면 삭녕군은 본래 고구려 소읍두현(所邑豆縣)이며 신라 때 삭읍(朔邑)으로 개칭하여 토산군의 속현이 되었다. 고려 때에 삭녕으로 개칭하였고, 1018년 고려 현종 9) 승령현(僧嶺縣)과 함께 동주(東州)에 소속되었다.

1403년(태종 3) 삭녕이 신의왕후(神懿王后)의 외향(外鄉)인 까닭으로 승령현을 합쳐 지군사(知郡事)로 승격시켰다. 1414년(태종 14) 안협현을 합쳐 안삭군(安朔郡)이 되었다가 1416년(태종 16) 다시 안협현을 뚫으로써 삭녕군이 되었다.

삭녕군의 읍지는 규장각 3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43)이며, 연혁(沿革)부터 역대 수령이 기재된 선생안까지 총 19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역참(驛站), 능침전각(陵寢殿閣), 성첩봉수(城堞烽燧)는 내용이 없다. 권수에는 지도가 부기되어 있다.

읍지 항목 중에는 사찰(寺刹)조에는 관음사(觀音寺), 장군사(將軍寺), 용복사(龍腹寺), 신흥사(新興寺)가 기재되어 있다. 이 중 용복사의 경우 17세기 중반 『고봉화상선요(高峰和尚禪要)』(1628년), 『금강경(金剛經)』(1632년), 『선가귀감(禪家龜鑑)』(1633년) 등 다수의 불서를

간행한 사찰이기도 하다. 이 중 1632년 간행된 『금강경』의 시주질을 살펴보면 해당 사찰이 함경도 안변(安邊)의 석왕사(釋王寺)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말에 수록된 선생안은 이유직(李惟直)부터 신성균(申性均)까지 200명의 수령들이 기재되어 있다. 선생안에 따르면 이유직은 임진년에 부임하였다고 하는데, 이유직의 생년이 1552년(명종 7)인 점으로 미루어 여기서의 임진년은 1592년(선조 25)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읍지의 선생안은 1592년부터 읍지가 작성된 1899년까지 300여년의 수령이 수록된 것이다.

또 규장각에는 1842년(헌종 8) 이후 작성된 『삭녕지(朔寧誌)』(奎 17372), 19세기 후반 편찬된 『삭녕지(朔寧誌)』(奎 17372, 古 915.12-Sa18n)가 있다. 삭녕군 관련 연구 진행 시 위 읍지들을 비교·검토하여 사회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 석왕사(釋王寺): 조선시대에는 함경도, 현재는 북한 강원도에 소재한 사찰이다. 북한의 국보 제94호이기도 하다. 고려 말에 창건되었으며, 태조 이성계가 석왕사란 액호를 내렸다. 6.25전쟁 시 불이문 등 일부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다.
- 이유직(李惟直): 1552년(명종 7)~?, 변성군(邊城君) 이계연(李繼連)의 후손이다. 1583년(선조 16)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 선전관으로 의주까지 선조를 호종하였다. 이후 호성공신(扈聖功臣)에 책록되었고, 삭령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묘소는 서산시 팔봉면 호리에 있다.
- 신성균(申性均): 1866년(고종 3)~?, 조선 말기 문신이다. 1886년(고종 23) 정시(庭試)에 급제하였다. 1896년에는 중추원 1등의관에 올랐으며, 1905년 11월에는 을사조약의 파기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수원군읍지

水原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수원군(京畿道 水原郡)
크기	32.4×21.4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5월 작성된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이다. 수원군의 읍지는 규장각에 5종이 전한다. 본 해제 대상은 5종 중 古 915.12-Su93g이며, 목록을 통해 51개조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5월 작성된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이다. 조선시대 수원군은 동으로 용인(龍仁), 남으로는 진위(振威), 서쪽으로는 남양(南陽), 북으로는 광주(廣州)와 맞닿아있는 고을이다.

읍지에 따르면 수원군은 본래 고구려 매홀군(買忽郡)인데, 신라 때 수성군(水城郡)이 되었다. 이후 고려 태조 왕건이 남쪽으로 영토를 넓힐 때 군의 사람인 김칠(金七), 최승규(崔承珪) 등이 협력하여 공을 세움으로써 수주(水州)로 승격되었다. 1271년(고려 원종 12) 몽고군이 쳐들어와 백성들을 약탈하였는데, 대부도(大阜島) 백성들이 몽고군을 죽였다. 중앙에서는 반란으로 보고 부사(副使) 안열(安悅)로 하여금 민란을 토벌토록 하였다. 이 때의 공으로 수주는 도호부로 승격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목(牧)으로 승격되었다.

1310년(고려 충선왕 2) 수원부(水原府)로 강등되었으며, 공민왕(恭愍王) 대에 군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부가 되었다. 이후 조선 태종대에 들어 도호부(都護府)가 되었으며, 1789년(정조 13) 현릉원(顯陵園)을 수원으로 옮기게 되면서 유수부(留守府)가 되었다. 1895년(고종 32) 지방 제도 개정에 따라 수원군이 되었다.

고구려 지명에서 홀은 신라 때 개칭되면서 대개 성으로 바뀌는데, 수원의 옛 지명인 매홀의 홀도 같은 원리로 성으로 개칭된다. 여기서 물을 의미하는 수를 통해 매라는 표현이 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에 수원의 옛 지명은 국어사적으로도 관심을 가지는 곳

이다.

또 신경준의 『도로고』에 따르면 수원군은 서울과 제주도를 이어주는 제주로(濟州路)가 거쳐가는 고을이기도 하다.

수원군의 읍지는 규장각에 5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古 915.12-Su93g이다, 해제자는 수원군의 읍지 중 가장 늦은 시기 만들어진 읍지이면서 행정명칭이 수원군으로 정확하게 기재된 읍지로 선별하였다. 해당 읍지에는 51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사찰(寺刹) 조에는 용주사(龍珠寺)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부 선생안(府先生案), 유수선생안(留守先生案) 등의 선생안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수원의 역대 수령들을 살펴볼 수 있다.

본 해제 읍지 이외 규장각 소장 선생안은 1831년(순조 31) 『화성지(華城志)』, 1785년(정조 9)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1791년(정조 15)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1899년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등이 있다. 본 해제 읍지와 함께 위 읍지들을 살펴 수원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최승규(崔承珪), 김철 등 200여명과 함께 고려에 귀순하였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시흥군읍지

始興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시흥군(京畿道 始興郡)
크기	29×18.8cm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2월 편찬된 『시흥군읍지(始興郡邑誌)』이다. 시흥군의 읍지는 현재 규장각 2종, 장서각 1종, 성균관대 1종이 전한다.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42)이며, 19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2월에 편찬된 『시흥군읍지(始興郡邑誌)』이다. 조선시대 시흥군은 동으로 과천(果川), 남으로 안산(安山), 서쪽으로 인천(仁川), 부평(富平), 북으로 양천(陽川)과 맞닿아 있고, 한양과 강을 마주보고 있다.

읍지에 따르면 시흥군은 본래 고구려 잉벌현(仍伐縣)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를 보아 잉벌노현(仍代奴縣)의 오기인 듯하다. 이후 신라 때 곡양(穀壤)으로 개칭하여 울진군(栗津郡)에 속현이 되었다. 고려 초에 금천(衿川)으로 개칭하였고, 1018년(고려 현종 9) 수주(樹州)의 속현으로 삼았다. 1414년(태종 14)에 과천현을 합하여 금과현(衿果縣)으로 삼았다가, 몇 개월 뒤 되돌렸으며, 양천현(陽川縣)을 합하여 금양현(衿陽縣)으로 삼았으나, 1416년(태종 16)에는 금천으로 다시 개칭하였다. 1795년(정조 19) 금천을 시흥으로 바꾸었다. 이후 1895년(고종 32) 지방 제도 개정으로 인하여 군이 되었다.

시흥군의 읍지는 규장각 2종, 장서각 1종, 성균관대 소장본 1종이 전한다.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42)이며, 연혁(沿革)부터 역대 수령이 기재된 선생안까지 총 19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명환(名宦), 능침전각(陵寢殿閣), 성첩봉수(城堞烽燧)는 내용이 없다. 권수에는 지도가 부기되어 있다.

인물(人物)조에는 고을 출신자로 이름을 날린 사람을 기재하고 있는데, 고려조의 장군 강감찬(姜邯贊)도 여기에 기재되어 있다. 사

찰(寺刹)조에는 호암사(虎巖寺), 망월사(望月寺), 염불사(念佛寺) 등이 기재되어 있다.

권말에는 역대 수령을 기재한 선생안이 있는데, 이명빈(李命賓)부터 이병의(李丙儀)까지 112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명빈은 1655년(효종 6) 금천현감으로 제수되어 하직한 기록이 『승정원일기』에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본 읍지의 선생안은 1655년부터 읍지가 작성된 1899년까지 약 250년 정도에 걸쳐져 있는 것이다.

본 해제 대상 이외에도 시흥군의 읍지는 규장각 2종, 성균관대 1종이 더 있다. 모두 같은 년도에 작성된 읍지인데, 규장각 소장 『경기도시흥군읍지(京畿道始興郡邑誌)』(奎 10711)는 5월, 『시흥군읍지』(想白古 915.11-Si28)는 11월에 작성되었으며, 성균관대학교 소장 읍지도 5월에 편찬되었으므로 장서각 소장본이 가장 후대에 작성된 읍지임을 알 수 있다. 해당 읍지는 시흥군 관련 연구를 진행할 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

-
- 이명빈(李命賓): 생몰년 미상, 본관은 완산이다. 내자봉사(內資奉事), 청하현감(淸河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 이병의(李丙儀): 생몰년 미상, 1899년 내부시찰관(內部視察官)을 시작으로 시흥군수, 사천군수(泗川郡守)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성균관대학교 존경각(<http://oldbook.skku.edu>)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안산군읍지

安山郡邑誌

작성연대	1900년(광무 4)
편찬자	경기도 안산군(京畿道 安山郡)
크기	28.8×18.8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본 문헌은 1900년(광무 4) 3월 작성된 『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이다. 안산군의 읍지는 규장각 4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55)이며, 20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현재 확인되는 경기도 읍지 중 가장 늦은 시기 작성된 것이다.

본 문헌은 1900년(광무 4) 3월 작성된 『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이다. 조선시대 안산군은 동으로 시흥(始興), 남으로는 광주(廣州), 북으로는 인천(仁川)과 맞닿아있으며, 서쪽은 바다와 접해있는 고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안산군은 본래 고구려 장항구현(獐項口縣)이며, 신라 때 장구군(獐口郡)이 되었다. 고려 때 안산군이 되었으며, 1018년(고려 현종 9) 수주(水州)의 속현이 되었다. 1308년(고려 충렬왕 34) 고려 문종이 태어난 땅인 까닭으로 지군사(知郡事)로 승격되었다. 이후 조선시대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안산군의 읍지는 규장각 4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의 K2-4255이다. 해당 읍지에는 20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권수에는 지도가 부기되었으며, 권말에는 선생안이 기재되어 있다. 능침전각(陵寢殿閣) 조에는 소릉(昭陵)의 옛 유지(遺址)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소릉은 단종을 낳은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이다. 1441년(세종 23) 사망하였으며, 1452년(단종 즉위년) 문종과 함께 합장되면서 현릉(顯陵)으로 능호가 바뀌었다.

권말의 선생안에는 홍가신(洪可臣)부터 당시 군수였던 남계술(南啓述)까지 198명이 기재되어 있다. 선생안에 따르면 홍가신은 1585년(선조 18) 부임하였으므로 1900년까지 300여년간의 수령이 기재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읍지의 특징은 이 선생안을 들 수 있다. 현재 확인되는 다른

읍지에는 선생안이 부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현재 확인되는 경기도 읍지 중 가장 늦은 시기 작성된 읍지인 점이다. 현전 경기도 내 고을 읍지의 마지막 편찬 년도는 대개 1899년(광무 3)인 점에 반해 본 읍지는 1900년이다.

이외 안산군의 읍지로는 규장각 소장 4종이 있다. 규장각에는 1842년(헌종 8) 작성된 『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奎 17366)와 1871년(고종 8) 작성된 『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古 915.12-An81s) 등이 있다.

본 해제 대상 읍지는 위 4종의 읍지와 함께 비교·검토하여 안산군의 사회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
- 현덕왕후(顯德王后): 1418년(태종 18)~1441년(세종 23), 문종의 비이자 단종의 어머니이다. 1441년 단종을 출산하고 3일 뒤에 하직하였다. 안산에 예장되었으며, 1450년(문종 즉위년) 왕후로 추송되었다.
 - 홍가신(洪可臣): 1541년(중종 36)~1615년(광해군 7), 읍지에서는 1585년(선조 18) 부임했다고 하나, 실록에서는 1584년(선조 17) 안산군수가 되었다. 1596년(선조 29) 박명현(朴名賢), 임득의(林得義) 등과 함께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하였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안성군읍지

安城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안성군(京畿道 安城郡)
크기	32.3×21.5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5월에 작성된 『안성군읍지(安城郡邑誌)』이다. 안성군의 읍지는 규장각 2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의 奎 10726이며, 27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5월에 작성된 『안성군읍지(安城郡邑誌)』이다. 조선시대 안성군은 동으로 죽산(竹山), 남으로 음성(陰城), 진천(鎭川), 목천(木川), 서쪽으로 직산(稷山), 양성(陽城), 북으로는 양지(陽智)와 맞닿은 고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읍지를 참조하면 안성군은 본래 고구려 내 혜홀(奈兮忽)로 신라 때 백성군(白城郡)으로 고쳤다. 이후 고려 때 안성현(安城縣)이 되었으며, 1018년(고려 현종 9) 수주(水州)에 소속시켰다가, 천안부(天安府)로 소속을 바꾸었다. 1172년(고려 명종 2) 감무를 두었다. 1361년(고려 공민왕 10) 홍건적(紅巾賊)의 침입 당시 남하를 막은 공으로 지군사(知郡事)로 승격되었다. 1399년(정종 원년) 양량부곡(陽良部曲)이 양지현으로 독립하고, 1413년(태종 13) 충청도로부터 경기도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이후 1895년(고종 32) 지방 개편에 따라 안성군이 되었다.

안성군의 읍지는 규장각 2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의 奎 10726이며, 27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표지에는 작성시기인 광무 3년 5월이 기재되어 있고, [안성군인(安城郡印)]이 답인되어 있다.

군액(軍額) 조에는 지방대(地方隊) 병액(兵額) 53명, 우등포수(優等砲手) 20명이 기재되어 있고, 원액(原額) 아래에는 순교(巡校) 4명, 별순교(別巡校) 12명, 청사(廳使) 5명 등이 적혀있다.

안성군의 사직미(社稷米)는 200석인데, 그 아래에 7개의 창고가 기재되어 있다. 창고는 동리창(東里倉), 거곡창(居谷倉) 등인데, 내

용을 통해 당시 사적미 200석은 7곳의 창고에 나뉘어 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우(佛宇)로는 청룡사(靑龍寺), 은적암(隱寂庵), 내원사(內院寺), 석남사(石南寺)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장시(場市) 조에는 읍장(邑場) 1곳만 있다고 되어 있다. 역원(驛院) 조에는 강부역(康富驛), 광보원(光寶院), 대비원(大悲院)이 기재되어 있다. 권말에는 공해(公廨) 조가 있는데, 군내 주요 건물의 칸수 등이 적혀있다.

이외 안성군의 읍지로는 19세기 작성된 『안성현읍지(安城縣邑誌)』(규장각 소장, 奎 17369)과 1899년 작성된 『안성읍지(安城邑誌)』(장서각 소장, K2-4256) 등이 있다.

추후 안성군 관련 연구 진행 시 위 읍지들을 비교, 검토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
- 청룡사(靑龍寺): 1265년(고려 원종 6), 명본대사(明本大師)가 창건하였다. 원래 명칭은 대장암(大藏庵)이다. 1364년(고려 공민왕 13) 나옹화상(懶翁和尚)이 중창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현 안성시 서운면 서운산에 있으며, 용주사(龍珠寺)의 말사이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양근군읍지

楊根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양근군(京畿道 楊根郡)
크기	32.0×21.3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5월에 작성된 『양근군읍지(楊根郡邑誌)』이다. 양근군의 읍지는 규장각 3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奎 10728)이며, 30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5월에 작성된 『양근군읍지(楊根郡邑誌)』이다. 조선시대 양근군은 동으로 지평(砥平), 남으로는 여주(驪州), 이천(利川), 양지(陽智) 서쪽으로는 광주(廣州), 북으로는 양주(楊州), 가평(加平)과 맞닿은 고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양근군은 원래 고구려의 양근군이 며, 신라 때 빈양(濱陽)으로 고쳐 소천군(洙川郡)의 속현이 되었고, 고려 때 양근으로 다시 고쳐 1018년(고려 현종 9) 광주(廣州)에 소속시켰다. 1175년(고려 명종 5) 감무를 두었으며, 1269년(고려 원종 10) 위사공신(衛社功臣) 김자정(金自廷)의 내향인 까닭으로 익화현(益和縣)으로 승격시켰다. 이후 1356년(고려 공민왕 5) 국사 보우(普愚)의 모친인 정씨(鄭氏)의 고향인 이유로 군으로 승격되었다.

신경준의 『도로고』에 따르면 양근은 서울과 강원도 평해(平海)를 이어주는 평해로가 거쳐가는 고을이다. 『도로고』 평해로 노선의 덕곡(德谷), 양근 등이 바로 양근군에 속한 지역이다.

양근군의 읍지는 규장각 3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본 해제의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奎 10728)이다. 읍지에는 사방도리(四方道里)부터 충효열인(忠孝烈人)까지 30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봉수(烽燧) 조는 내용이 없다.

읍지의 서명은 『양근군읍지여지도성책(楊根郡邑誌與地圖成冊)』으로 되어있으나, 여지도성책은 주목으로 점이 찍혀있다. 이로 보아 여지도성책이란 표현은 서명에서 제거한 듯하다. 본 해제에서는 이를 따라 『양근군읍지』를 서명으로 삼았다. 본 읍지는 표지에

광무 3년 5월이 기재되어 작성된 시기를 알 수 있다.

권수에는 채색지도가 기재되어 있다. 진도(津渡) 조에는 용진도(龍津渡), 갈산진(葛山津), 상심진(上心津), 월루진(月樓津) 등 8개의 진도와 그 위치가 기재되어 있다. 성지(城地) 조에는 함공성(咸公城)이 기재되어 있는데 읍지에는 고려 때 사람들이 이곳에서 몽고군을 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해당 읍지 외에도 규장각에 소장된 양근군의 읍지로는 1894년 작성된 『양근군사례(楊根郡事例)』, 1899년 작성된 2종의 『양근군읍지』가 있다. 또, 장서각에도 『양근군읍지』가 있다. 장서각 해체에 따르면 해당 읍지에는 다른 읍지에는 없던 선생안이 부기되어 있으며, 1572년(선조 5)부터 1899년까지 224명의 수령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 읍지들은 추후 양근군 관련 연구 진행 시 대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함공성(咸公城): 현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에 소재한 삼국시대 산성. 고려 후기 몽고군 침입 시 인근 주민이 이곳으로 피난하였으나, 『고려사』에 따르면 1253년(고려 고종 40) 포위공격을 당하자 당시 방호별감(防護別監) 윤춘(尹椿)이 나와 항복하였으며, 1291년(고려 충렬왕 17)에 함락 당했다고 한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양성읍지

陽城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양성군(京畿道 陽城郡)
크기	32.4 × 22.4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5월에 작성된 『양성읍지(陽城邑誌)』이다. 양성군의 읍지는 규장각 2종,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1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의 奎 10732이며, 34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5월 작성된 『양성읍지(陽城邑誌)』이다. 조선시대 양성군은 동으로 양지(陽智), 남으로 안성(安城), 직산(稷山), 평택(平澤), 서쪽으로는 진위(振威), 북으로는 용인(龍仁)과 맞닿은 고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읍지를 참조하면 양성군은 본래 고구려 사북홀(沙伏忽)로 신라 때 적성(赤城)으로 고쳐 백성군(白城郡)의 속현으로 삼았다. 이후 고려 때 양성현이 되었으며, 1018년(고려 현종 9) 수주(水州)에 소속시켰다가, 1175년(고려 명종 5) 감무를 두었다. 1413년(태종 13) 감무를 현감으로 바꾸었고, 충청도로부터 경기도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이후 1895년(고종 32) 지방 개편에 따라 양성군이 되었다.

음죽군의 읍지는 규장각 2종, 존경각 1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의 奎 10732이며, 34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각 항목의 명칭은 주목으로 사각형 틀을 표기하여 살펴보기가 편리하다.

권수에는 지도가 부기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작성 시기인 광무 3년 5월과 당시 군수인 이관구(李觀九)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관직(官職) 조를 살펴보면 현감 1명, 훈도 1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는 양성군은 군수가 다스리는 곳이므로 현감이라는 용어는 이전 읍지의 표현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요역(徭役) 조에는 서울에 상납하는 결전(結錢)으로 매 결당 5전

1푼이 있고, 본관에 납부하는 잡역은 매 결당 1냥이라고 기재되어있다. 이외 변경된 내용을 신증(新增) 아래에 부기하였으며, 마지막의 병금무(并今無)를 통하여 당시 모두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우(佛宇) 조에는 청원사(淸原寺), 수도사(修道寺), 덕적사(德積寺) 등이 기재되어 있고, 도로(道路) 조에는 소사로(素沙路), 관문로(官門路) 등 도로 명칭이 있다. 도로의 명칭이 기재된 점은 여타 읍지에서 보기 드물기에 주목할 만하다.

이외 규장각 소장 읍지로는 1891년(고종 28) 작성된 『양성현읍지(陽城縣邑誌)』(古 915.12-Y17s)가 있으며, 성군관에는 1899년 작성된 『양성군읍지부지도(陽城郡邑誌附地圖)』, 장서각에는 1898년(광무 2) 작성된 『양성읍지』(K2-4261)가 있다.

추후 양성군 관련 연구 진행 시 위 읍지들을 비교, 검토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
- 청원사(淸原寺): 읍지에는 原으로 나오나 源 또는 願으로도 쓴다. 삼국시대에 창건되었다고 하며 창건시기 및 창건자는 알 수 없다. 현 안성시 원곡면에 있으며, 용주사(龍珠寺)의 말사이다. 문화재로 7층 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6호)이 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성균관대학교 존경각(<http://oldbook.skku.edu>)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양주군읍지

楊州郡邑誌

작성연대	[1895년(고종 32) 이후]
편찬자	경기도 양주군(京畿道 楊州郡)
크기	32.5×21.5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95년(고종 32) 이후 편찬된 『양주군읍지(楊州郡邑誌)』이다. 양주군의 읍지는 현재 규장각, 장서각, 일본 천리대학에 각각 1종씩 소장되어 있다. 본 해제의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奎 10733)이며, 31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5년(고종 32) 이후 편찬된 『양주군읍지(楊州郡邑誌)』이다. 조선시대 양주군은 동으로는 포천(抱川), 가평(加平) 남으로는 양근(楊根), 광주(廣州), 한양(漢陽) 서쪽으로는 고양(高陽), 파주(坡州), 북으로는 적성(積城), 마전(麻田), 연천(漣川), 영평(永平)과 맞닿은 고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본래 고구려 남평양성(南平壤城)이었는데, 백제 근초고왕 때에 백제에 병합되었다. 이후 신라 진흥왕 때 신라에 병합되었다가 755년(신라 경덕왕 14) 한양군(漢陽郡)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고려 때 양주로 변경되었으며, 1104년(고려 승종 9) 남경유수관(南京留守官)으로 승격되었다. 1308(고려 충렬왕 34) 한양부로 고쳐졌다. 조선 건국 이후 도읍이 한양으로 정해지자 부치가 여러 번 옮겨지다가 1397년(태조 6) 견주(見州)의 옛터에 자리를 잡았다. 1413년(태종 13) 도호부(都護府)가 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목(牧)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양주군이 되었다.

양주는 지정학적으로 서울의 동북에 위치하여, 함경도 경흥(慶興)과 강원도 평해(平海)를 이어주는 대로가 지나가는 고을이었다. 또한 『누판고(鑿板考)』에 따르면 『정재집(定齋集)』의 목판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읍지에 따르면 회암사(檜巖寺), 개경사(開慶寺) 등 여러 사찰이 소재되어 있으며, 서울과 인접한 닻인지 건원릉(健元陵), 현릉(顯陵), 광릉(光陵) 등 조선왕릉이 많이 기재되어 있다.

『양주군읍지』는 규장각, 장서각, 일본 천리대학(天理大學)에 각각 1종이 전한다. 일본 천리대학에 소장된 읍지는 1996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영인한 바 있다. 위 읍지 중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이다. 앞에는 양주군의 채색지도가 배치되어 있고, 건치연혁(建置沿革)부터 관방(關防)까지 31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 해제에 따르면 본 읍지는 19세기 중반 편찬된 『양주목읍지』를 저본으로 하였으며, 다른 읍지와 비교하여 당시 양주군의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 누판고(鑄板考): 정조가 서유구(徐有渠) 등에게 명하여 1796년(정조 20) 편찬한 전국 책판해제목록이다. 내용은 어찬서(御撰書), 어정서(御定書), 경사자집(經史子集)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해당 문헌은 조선후기 국가 차원에서 편찬한 대표적인 책판목록이다.
- 정재집(定齋集): 조선 후기 문신 박태보(朴泰輔)의 문집. 간행시기는 미상이며, 책판은 경기도 양주 석림사(石林寺)에 보관되었다가 뒤에 경상도 성주로 옮겨졌다.

참고 문헌

옥영정, 「경상감영 책판목록의 현황과 기록내용 분석-『누판고』와 『서책목록』을 중심으로-」, 『영남학』 6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http://jsg.aks.ac.kr>)

양지군읍지

陽智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양지군(京畿道 陽智郡)
크기	30,0×19,2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0월 작성된 『양지군읍지(陽智郡邑誌)』이다. 양지군의 읍지는 규장각 3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그 중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64)이며, 23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0월 작성된 『양지군읍지(陽智郡邑誌)』이다. 조선시대 양지군은 동으로 이천(利川), 남으로 죽산(竹山), 안성(安城), 서쪽으로 양성(陽城), 용인(龍仁), 북으로 광주(廣州)와 접한 고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양지군은 본래 고려 수주(水州)에 속한 양량촌 부곡(陽良村部曲)이며, 1399년(정종 원년) 양지현으로 바꾸었다. 1413년(태종 13) 기존에 감무를 현감으로 고치면서 읍치는 광주 내의 추계향(秋溪鄉)으로 옮겼으나 땅이 좁아 주변 4개의 부곡을 합쳤다. 1895년(고종 32) 지방 제도 개정 시 양지군으로 변경되었다.

신경준의 『도로고』에 따르면 양지군은 서울과 경상도 동래(東萊)를 이어주는 동래로(東萊路)가 거치는 고을이기도 하다.

양지군의 읍지는 규장각 3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64)이며, 23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관리예속액수(官吏隸屬額數) 조에는 군수 1명, 향장(鄉長) 1명, 순교(巡校) 4명, 수서기(首書記) 1명, 서기 6명 등 양지군의 주요 인원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 공해(公廩) 조에는 군내 주요 건물에 기재되어 있는데, 다른 읍지에 수록된 것과 달리 책실(冊室)이 기재된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서책(書冊) 조에는 『대학(大學)』, 『소학(小學)』, 『경민편(警民編)』,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오례의(五禮儀)』 등이 기재되어 있다.

권말에는 역대수령을 수록한 선생안이 있다. 선생안에는 양완

(梁瑗)부터 당시 군수인 신용균(申容均)까지 198명의 수령들이 기재되어 있다. 읍지에 따르면 양완은 1470년(성종 원년) 부임하였으므로 선생안은 420여년의 시기가 걸쳐져 있는 셈이다.

규장각 소장 읍지로는 1842년(헌종 8) 편찬된 『경기지(京畿誌)』의 읍지를 후대에 필사한 『양지현읍지(陽智縣邑誌)』(奎 17365), 1891년(고종 28) 『양지현읍지』(古 915.12-Y17j), 1899년(광무 3) 작성된 『양지군읍지』(奎 10723)가 있다. 이 중 1899년 『양지군읍지』는 5월에 작성되었으므로 본 해제 대상의 읍지보다 5개월 앞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 경민편(警民編): 1519년(중종 14) 김정국(金正國)이 편찬, 간행한 책이다. 백성을 교화할 목적으로 편찬되었으며, 향촌질서 유지에 필요한 항목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양천군읍지

陽川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양천군(京畿道 陽川郡)
크기	33×21.4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5월 편찬된 『양천군읍지(陽川郡邑誌)』이다. 양천군의 읍지는 현재 규장각 4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본 해제의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奎 10721)이며, 38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5월에 편찬된 『양천군읍지(陽川郡邑誌)』이다. 조선시대 양천군은 동으로 시흥(始興), 남으로 부평(富平), 서쪽으로 김포(金浦)와 맞닿아있으며, 북쪽으로는 한양(漢陽), 고양(高陽)과 강을 마주하고 있던 고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양천군은 본래 고구려 재차과의 현(齊次巴衣縣)으로 신라 때 공암(孔巖)으로 고쳐 울진군(栗津郡)의 속현이 되었고, 1018년(고려 현종 9) 수주(樹州)의 속현으로 바뀌었다. 이후 1310년(고려 충선왕 2) 양천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후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편 시 군으로 변경되었다.

신경준의 『도로고』에 따르면 양천군은 서울과 강화도를 이어주는 강화로(江華路)가 지나는 고을이었다. 관련 사료를 살펴보면 강화로는 연산군이 교동으로 폐위될 때와 철종이 왕이 되어 한성으로 가기 위해 지나간 길이기도 하다. 강화로가 지나는 길목 부근에는 공암진(孔巖津)이 있는데, 공암진은 형제투금(兄弟投金)설화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양천군의 읍지는 규장각 4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奎 10721)이다. 읍지는 연혁(沿革)부터 인물성씨(人物姓氏)까지 총 38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권수에는 채색지도가 부기되어 있고, 권말에는 당시 수령이었던 박준우(朴準禹)의 성명과 [양천군수지장(陽川郡守之章)]이 담인되어 있다.

환적(宦績)조에는 나흠(羅洽)부터 당시 군수인 박준우(朴準禹)까지 173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자료로 장서각 소장의

『양천군선생안(陽川郡先生案)』과 『양천읍지(陽川邑誌)』가 있다. 장서각 소장 선생안 및 읍지에는 박준우 다음에 부임한 권세규(權世圭)가 추가되어 총 174명이 기재되어 있다.

군액(軍額)조에는 기병, 보병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릉(仁陵)의 군보(軍保) 2명과 경릉(景陵)의 군보 3명은 모두 혁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점막(店幕)조에는 염창점막(鹽倉店幕), 군내면(郡內面)의 점막, 삼정면(三井面) 개화리(開花里)의 점막, 진목정점막(眞木亭店幕) 등의 명칭과 위치가 기재되어있고, 또 염창리의 도기점(陶器店)이 한 곳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외 양천군의 읍지들은 모두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것이며, 규장각 소장 『양천현읍지(陽川縣邑誌)』(古 915.12-Y17ch)는 1842년(헌종 8) 편찬된 『경기지(京畿誌)』에 수록된 읍지와 흡사하다. 본 해제 문헌은 양천군의 여러 읍지들과 비교하여 19세기 양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
- 박준우(朴準禹): 생몰년 미상, 순강원수봉관(順康園守奉官)을 시작으로 외아문주사(外衙門主事), 외부교섭국장(外部交涉局長) 등을 역임했다. 1895년(고종 32) 11월 양천군수에 임명되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여주읍지

驪州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여주군(京畿道 驪州郡)
크기	32.4×21.4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작성된 『여주읍지(驪州邑誌)』이다. 여주군의 읍지는 규장각 2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의 奎 10710이며, 16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2월 작성된 『여주읍지(驪州邑誌)』이다. 조선시대 여주군은 동으로 원주(原州), 남으로 충주(忠州), 서쪽으로는 음죽(陰竹), 이천(利川), 북쪽으로는 양근(楊根), 지평(砥平)과 맞닿은 고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여주군은 본래 고구려 골내근현(骨乃斤縣)인데, 신라 때 황호(黃驪)로 고쳐 소천군(洑川郡)의 속현이 되었다. 고려 때 황려(黃驪)로 고쳐졌으며, 1018년(고려 현종 9) 원주(原州)에 소속되었다. 1305년(고려 충렬왕 31) 순경왕후(順敬王后) 김씨(金氏)의 고향인 까닭으로 여흥군(驪興郡)으로 승격시켰으며, 우왕이 폐위되어 여흥으로 옮겨지자 황려부(黃驪府)로 승격되었다. 1389년(창왕 1) 다시 여흥군으로 강등되었는데, 이는 우왕이 강릉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1401년(태종 원년)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의 내향인 까닭으로 여흥부로 승격시켰으며, 1413년(태종 13) 도호부로 고쳤다. 1469년(예종 1) 여주로 개칭되었으며, 1895년(고종 32) 지방 제도 개편 시 여주군으로 변경되었다.

여주군의 읍지는 규장각 2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의 奎 10710이며, 16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진도(津渡) 조에는 양조진(陽沼津), 혼암진(欣巖津), 여강진(驪江津)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역촌(驛村) 조에는 신진역(新津驛), 안평역(安平驛), 양화역(楊花驛)이 기재되어 있다. 장시(場市) 조에는 읍장(邑場), 억교장(億橋場) 등 당시 여주에 섰던 시장 명칭과 지역을

소개하고 있다.

사찰(寺刹) 조에는 신륵사(神勒寺), 원당사(願堂寺), 묘련암(妙蓮菴) 등이 적혀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원당사의 경우 당시 폐사였음을 알 수 있다.

본 해제 대상 외에도 규장각에는 1842년(헌종 8) 무렵 작성된 『여주목읍지(驪州牧邑誌)』(奎 17368)가 있고, 장서각에는 1899년 10월 이후 작성된 『여주읍지(驪州邑誌)』(K2-4267)가 있다. 장서각 소장 자료의 경우 다른 읍지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생안이 부기된 것이 특징이다.

-
-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 1365년(고려 공민왕 14)~1420년(세종 2), 태종의 비이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남편 이방원을 도왔다. 세종이 즉위한 1418년 후덕왕대비(厚德王大妃)로 봉해졌으며, 1420년 사망하였다. 능은 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헌릉(獻陵)이다.
 - 신륵사(神勒寺): 신라 진평왕 시절 원효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고려 때에는 벽절(壁刹寺)이라고 불렸는데 경내의 다층전탑으로 인해 유래된 말이다. 나옹화상(懶翁和尚)이 입적한 곳이며, 현재는 용주사(龍珠寺)의 말사가 되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연천군읍지

漣川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연천군(京畿道 漣川郡)
크기	32.4×21.3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5월 편찬된 연천군의 읍지이다. 규장각에는 총 2종의 『연천군읍지』가 소장되어 있으며, 이 중 1899년 편찬된 읍지가 본 해제 문헌에 해당한다. 해당 읍지에는 연천군의 지도가 간략히 제시되어 있으며, 건치연혁(建置沿革)부터 군기(軍器)까지 25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편찬된 『연천군읍지(漣川郡邑誌)』이다. 조선시대 연천군은 당시 영평군(永平郡), 양주목(楊州牧), 마전군(麻田郡) 등과 맞닿아있던 고을이다. 건치연혁을 살펴보면 연천군은 삼국시대 고구려 공목달현(工木達縣)이었으며, 통일신라 시기 공성(功成)으로 개칭되어 철성군(鐵城郡)의 영현이 되었다. 이후 고려 때 장주(漳州)로 개칭되었으나, 충선왕(忠宣王) 등극 이후 피휘(避諱)로 인해 연천으로 다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연천군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2종의 읍지가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 『연천군읍지』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규장각 소장 奎17371의 경우 1841년(헌종 7)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확인되는 읍지 중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다른 하나는 1899년에 편찬된 읍지이다. 위 두 종의 읍지는 총묘(塚墓)조가 도드라지는 요소인데, 여기에는 기황후(奇皇后)의 무덤으로 전해지는 황후총(皇后塚), 전서(篆書)로 유명한 허목(許穆)의 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황후총의 경우 현재 ‘전(傳)기황후릉터’라는 명칭으로 연천군 향토유적 18호로 지정된 바 있다.

공청(公廳)과 각청(各廳)조에는 군내 주요 건물의 칸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역원(驛院)에는 옥계역(玉溪驛), 송절원(松折院) 등이 소개되어 있으나, 당시 모두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시(場市)에는 차탄장(車灘場), 군영장(軍營場)이 기재되어 있다.

1899년 자료에는 선생안(先生案)이 부기되지 않았으나, 1841년 읍지 사적(仕籍)에 이덕순(李德純)부터 김시중(金時中)까지 117명의 역대 수령들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 기재된 이덕순의 경우 증종연간 관직을 역임한 이덕순으로 보인다.

연천군의 모습을 담은 고지도는 1899년 읍지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1841년 읍지와 『경기지(京畿誌)』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1872년(고종 9) 연천현지도 등이 남아있어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참조할 필요가 있다.

- 기황후(奇皇后): 생물년 미상, 본관은 해주, 고려 말 권신 기철(奇轍)의 여동생으로 원나라 순제(順帝)의 2황후이자, 북원(北元) 소종(昭宗)의 어머니이다. 원나라 멸망 이후 행적은 명확하지 않다.
- 허목(許穆): 1595년(선조 28)~1682년(숙종 8), 본관은 양천이다. 전서(篆書)로 유명하며, 대표적인 필적으로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가 있다. 이외에도 『척주지(陟州誌)』, 『정체전중설(正體傳重說)』, 『동사(東事)』, 『방국왕조례(邦國王朝禮)』, 『경설(經說)』, 『경례유찬(經禮類纂)』, 『미수기언(眉叟記言)』 등의 다양한 저서를 남겼다.
- 김시중(金時中): 생물년, 본관, 행적은 명확하지 않다. 1841년 12월 11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 전라도 흥덕(興德)의 현감이었다가 연천현감으로 제수되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영종진읍지

永宗鎭邑誌

작성연대	1842년(헌종 8) 이후
편찬자	경기도 영종진(京畿道 永宗鎭)
크기	30,0×21,3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42년(헌종 8)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영종진읍지(永宗鎭邑誌)』이다. 영종진의 읍지는 규장각,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각각 1종씩 전한다. 그 중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의 奎 17355이며, 24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42년(헌종 8)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영종진읍지(永宗鎭邑誌)』이다. 조선시대 영종진은 인천(仁川), 부평(富平), 통진(通津), 강화(江華) 등 고을과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고을이다.

읍지에 따르면 영종진의 옛 명칭은 자연도(紫燕島)로 승정(崇禎) 계사년에 진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승정은 명나라 승정제의 재위 시기를 의미하는데, 승정제의 재위년 중 계사년은 없다. 『승정원 일기』를 살펴보면 이 때의 계사년은 1653년(효종 4)임을 알 수 있다. 1681년(숙종 7) 첨사(僉使)로 승격되어 어영청(御營廳)에 소속되었다.

이후 교동(喬桐)의 수영(水營)에 소속되었다가, 1758년(영조 34) 어영청에 다시 소속되면서 독진(獨鎭)으로 설치되었다.

영종진의 읍지는 규장각에 2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奎 17355이며, 건치연혁(建置沿革)부터 토산(土産)까지 24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아사(衙舍) 조에는 정세당(淨洗堂), 내아(內衙), 태평헌(太平軒), 중영(中營) 등 영종진의 주요 건물이 기재되어 있다.

창우(倉宇) 조에는 영종진에 소재한 창고와 그 성격이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영고(營庫)의 경우 환미(還米)가 들어오는 창고라는 성격이 기재되어 있고, 병고(兵庫)에는 공전(公錢)이 들어오는 창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병고의 예를 통해 창고의 명칭만으로 성격을 유추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선(戰船) 조에는 방선(防船) 2척, 병선(兵船) 2척 등 46척이 기재

되어 있다. 또 행궁(行宮) 조에는 월미도(月尾島)에 있음을 기재하고, 정전(正殿) 등 주요 건물의 칸수 등을 기재하고 있다. 사찰(寺刹) 조에는 구담사(瞿曇寺)가 기재되어 있으며, 구담사에는 승장(僧將) 1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는 1891년(고종 28) 작성된 『영종진읍지(永宗鎭邑誌)』가 있다. 영종진 관련 연구 진행 시 규장각과 존경각에 소장된 읍지를 비교, 대조할 필요가 있다.

-
- 구담사(瞿曇寺): 670년(신라 문무왕 10) 창건된 사찰로 처음에는 백운사(白雲寺)였다. 이후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나 명칭이 구담사로 변경되었다. 현재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백운산에 위치하고 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영평군읍지

永平郡邑誌

작성연대	[1842년(헌종 8) 이후]
편찬자	경기도 영평군(京畿道 永平郡)
크기	30,2×21,2cm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42년(헌종 8) 편찬된 『경기지(京畿誌)』의 읍지를 후대에 필사한 읍지이다. 『영평군읍지(永平郡邑誌)』는 현재 규장각 2종, 성균관대 1종으로 총 3종이 전한다. 본 해제의 대상은 1842년 이후 필사된 규장각 소장본(奎 17360)이며, 방리(坊里)부터 책판(冊板)까지 41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42년(헌종 8) 편찬된 『경기지(京畿誌)』의 읍지를 후대에 필사한 『영평군읍지(永平郡邑誌)』이다. 영평군은 본래 고구려 양골현(梁骨縣)으로 신라 때 동음(洞陰)으로 개칭하여 견성군(堅城郡, 현재의 경기도 포천)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1018년(고려 현종 9)에는 동주(東州)에 소속시켰다.

후에 고려 위사공신(衛社功臣)인 강윤소(康允紹)의 고향인 이유로 영흥현(永興縣)으로 승격되었고, 1394년(태조 3) 당시 화주(和州)를 영흥부(永興府)로 개칭하면서 같은 명칭인 영흥현을 영평현(永平縣)으로 개칭하였다. 1618년(광해 10) 포천(抱川)에 포함시켰으며, 1836년(헌종 2) 익묘(翼廟)의 태실을 다시 봉축한 이후 군(郡)으로 승격되었다.

영평군은 북으로는 철원(鐵原), 김화(金化), 서로는 연천(漣川), 양주(楊州), 남으로는 포천, 가평(加平), 동으로는 춘천(春川)과 맞닿은 고을이다. 읍치로부터 동쪽 15리에는 평구도(平丘道)에 소속된 양문역(梁文驛)이 있는데, 신경준의 『도로고(道路考)』에 따르면 서울과 함경도 경흥(慶興)을 이어주던 경흥로(慶興路)가 지나가는 곳이다. 이를 보아 당시 영평군은 조선의 주요 교통로가 지나가던 고을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영평군의 읍지는 규장각 2종, 성균관대 1종이 전하며, 내용적으로는 1842년 이후 필사본인 奎 17360이 가장 풍부하다. 이외 2종의 읍지는 1899년(광무 3) 편찬된 읍지이나, 내용은 소략하다.

본 해제의 『영평군읍지』 창고(倉庫) 조에는 무기가 기재되어 있어, 당시 영평군 소장 군기물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재된 무기는 조총, 활, 화살, 탄, 화약 등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청(公廳)과 아사(衙舍) 조에는 군내 주요 건물의 칸수를 제시하고 있다.

다수의 읍지에서 보이는 선생안(先生案), 고지도 등은 수록되지 않았다. 영평군 관련 지도는 규장각 소장의 1899년 읍지(奎 10722), 『경기지(京畿誌)』 등에 수록되어 있어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참조할 필요가 있다.

-
- 강윤소(康允紹): 1237~?, 고려 왕족 왕전(王佺) 집안 노비 출신이다. 몽고어 해독에 능해 고려 원종의 총애를 받고, 여러 관직을 거쳐 관직이 장군에 이르렀다. 위사공신(衛社功臣) 중 한명이다.
 - 위사공신(衛社功臣): 1258년(고려 고종 45) 일어난 무오정변(戊午政變)의 공신들에게 내려진 칭호.
 - 익묘(翼廟): 익종(翼宗, 1809~1830)의 묘호. 태실은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포천시 향토유적 제30호로 지정되었다. 태실을 개축한 기록으로 규장각 소장의 『익종태실가봉석난간조배의궤(翼宗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가 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성균관대학교 존경각(<https://east.skku.edu>)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용인군지

龍仁郡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용인군(京畿道 龍仁郡)
크기	27.1 × 19.8cm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작성된 『용인군지(龍仁郡誌)』이다. 용인군의 읍지는 규장각 4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그 중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의 奎 10706이며, 27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작성된 『용인군지(龍仁郡誌)』이다. 조선시대 용인군은 동으로 양지(陽智), 남으로는 양성(陽城), 진위(振威), 서쪽으로는 수원(水原), 북으로는 광주(廣州)와 맞닿은 고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용인군은 본래 고구려의 구성현(駒城縣)이며, 신라 때 거서(巨黍)로 고쳐 한주(漢州)의 속현으로 삼았다. 고려 때 용구현(龍駒縣)으로 고쳤고, 1018년(고려 현종 9) 광주(廣州)의 속현이 되었다. 이후 1413년(태종 13) 처인현(處仁縣)과 합하여 용인현(龍仁縣)이 되었다. 이후 1895년(고종 32) 용인군이 되었다.

용인군의 읍지는 규장각 4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의 奎 10706이며, 27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권수에는 지도가 기재되어 있으며, 수록된 내용 중 형승(形勝), 성지(城池), 진보(鎭堡), 제언(堤堰), 목장(牧場), 관액(關隘), 누정(樓亭), 물산(物産)은 내용이 없다.

향교(鄉校) 조에는 성전(聖殿) 3칸, 대청(大廳), 신문(神門) 등의 건물 칸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공해(公廡) 조에는 군 내에 소재한 주요 건물의 칸수가 기재되어 있다. 서원(書院) 조에는 심곡서원(深谷書院)이 적혀있는데, 내용을 통해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가 배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총묘(塚墓) 조에는 정몽주(鄭夢周), 남은(南閻), 심온(沈溫), 조광조(趙光祖), 남구만(南九萬) 등 알려진 인물들의 묘소가 기재되어 있다.

이외 규장각에는 1758년(영조 34) 작성된 『용인현읍지(龍仁縣邑誌)』도 있다.

誌』(奎 17357), 1891년(고종 28) 작성된 『용인현읍지성책(龍仁縣邑誌成冊)』(古 915.12-Y8h), 본 해제 대상 읍지와 같은 『용인군지』(古 915.12-Y8g)가 있다. 장서각 소장본은 해제에 따르면 여타 읍지와 달리 225명의 수령이 수록된 선생안이 부기되어 있다고 한다.

- 남은(南閔): 1354년(고려 공민왕 3)~1398년(태조 7), 1374년(고려 공민왕 23) 성균시에 급제하였다. 1388년(고려 우왕 14) 요동 정벌 시 이성계를 따라 종군하였으며, 회군을 진언했다. 조선 건국 이후 개국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때 죽임을 당했다.
- 심온(沈溫): 1375년(고려 우왕 1)~1418년(세종 즉위년), 세종의 장인이다. 고려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조선 건국 이후 간관을 맡았다. 세종 즉위 이후 국구(國舅)로 영의정에 올랐으며, 사은사로 명나라에 갔을 때 동생 심정(沈澄)이 태종을 비난한 것으로 인하여 귀국 도중 체포되어 사사되었다.
- 남구만(南九萬): 1629년(인조 7)~1711년(숙종 37), 동춘당 송준길(宋浚吉)에게 수학하고, 1656년(효종 7) 과거에 급제했다. 이조정랑, 대사성, 함경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687년(숙종 13) 영의정에 올랐다. 문장에 뛰어났으며, 저서로 『약천집(藥泉集)』 등이 있다.

참고
문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음죽군읍지

陰竹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음죽군(京畿道 陰竹郡)
크기	29.2×19.4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1월 작성된 『음죽군읍지(陰竹郡邑誌)』이다. 음죽군의 읍지는 규장각 3종,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1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86)이며, 16개 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1월 작성된 『음죽군읍지(陰竹郡邑誌)』이다. 조선시대 음죽군은 동과 남으로 충주(忠州)에 둘러싸여있고, 서쪽으로 죽산(竹山), 북쪽으로 이천(利川), 여주(驪州)와 맞닿은 고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읍지를 참조하면 음죽군은 본래 고구려 노음죽현(奴音竹縣)인데, 신라 때 음죽으로 고쳐, 개산군(介山郡)의 속현으로 삼았으며, 1018년(고려 현종 9) 충주의 속현으로 삼았다. 이후 감무를 두었으며, 1413년(태종 13) 현감으로 고쳐 경기도에 소속시켰다. 1895년(고종 32) 지방 제도 개정에 따라 음죽군이 되었다.

음죽군의 읍지는 규장각 3종, 존경각 1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86)이며, 16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토산(土産)은 내용이 없다.

권수에는 지도가 부기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역대 수령을 적은 선생안이 위치한다. 방리(坊里) 조에는 면(面) 별로 각 마을을 기재하였으며, 관문과의 거리를 각 마을별로 기재해두었다. 역도(驛賭) 조에는 유춘역(留春驛), 무극역(無極驛)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찰(寺刹) 조에는 명적암(明寂庵)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폐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첩(城堞) 조에는 설성(雪城)이 기재되어 있다. 권말에 위치한 선생안은 임목(林穆)부터 당시 군수인 이병덕(李秉德)까지 162명의 수령들이 기재되어 있다. 실록에 따르면 임목은 1427년(세종 9) 음

죽현감을 맡고 있었으므로 약 450여년 정도의 시간이 걸쳐져있는 셈이다. 그러나 중간에 공극이 있어 모든 수령을 기재한 것은 아니다.

이외 읍지로는 규장각, 존경각 등에 소장된 것이 있다. 규장각 소장본의 경우 1842년(헌종 8) 작성된 『경기지(京畿誌)』의 읍지를 후대에 필사한 것(奎 17370)과 1895년(고종 32)작성된 『음죽현읍지(陰竹縣邑誌)』(古 915.12-Eu57h), 1899년 5월에 작성된 『음죽군읍지』(奎 10724)가 있으며, 작성 시기 미상의 읍지 1종이 존경각에 있다.

위 읍지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 해제 대상은 시기상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것이며, 선생안이 부기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
- 임목(林穆): 1371년(고려 공민왕 20)~1448년(세종 30), 본관은 부안이다. 아버지는 고려 조 공조전서(工曹典書)를 지낸 임난수(林蘭秀)이다. 음죽현감, 양양도호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 이병덕(李秉德): 생몰년 미상, 1898년(광무 2) 음죽군수에 임명되었으며, 1900년(광무 4) 증산군수(甌山郡守)로 임명되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성균관대학교 존경각(<http://oldbook.skku.edu>)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이천군읍지

利川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이천군(京畿道 利川郡)
크기	29,3 × 18,3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1월 작성된 『이천군읍지(利川郡邑誌)』이다. 이천군의 읍지는 규장각 2종, 장서각 1종, 일본 동양문고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87)이며, 42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1월 작성된 『이천군읍지(利川郡邑誌)』이다. 조선시대 이천군은 동으로 여주(驪州), 남으로 음죽(陰竹), 죽산(竹山), 서쪽으로는 양지(陽智), 북쪽으로는 광주(廣州)와 맞닿은 고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이천군은 본래 고구려 남천현(南川縣)이며, 신라 진흥왕 때 주(州)로 승격시켰다. 경덕왕 때에는 황무(黃武)로 고쳐 한주(漢州)의 속현으로 삼았다. 고려 태조 왕건이 남정(南征)할 때, 이천 사람 서목(徐穆)이 인도를 잘하여 강을 건널 수 있었으므로 이천군(利川郡)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1390년(고려 공양왕 2) 공양왕의 조모인 신씨(申氏)의 고향인 까닭으로 남천군(南川郡)으로 승격시켰다가, 1393년(태조 2) 다시 이천현으로 고치고, 감무를 두었다. 1413년(태종 13)에는 현감으로 고쳤다.

또 읍지에 따르면 1431년(세종 13) 지현사(知縣事)가 되고, 1444년(세종 26) 호(戶)가 천(千)을 넘어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1895년(고종 32) 지방 제도 개정에 따라 이천군이 되었다.

이천군의 읍지는 규장각 2종, 장서각 1종, 일본 동양문고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287)이며, 42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관액(關陌), 봉수(烽燧), 물산(物産), 진보(鎭堡), 목장(牧場), 진공(進貢), 어염(魚鹽), 비판(碑版), 요역(徭役), 능침전각(陵寢殿閣), 명환(名宦)은 내용이 없다.

권수에는 지도가 부기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역대 수령을 적은

선생안이 위치한다. 창고(倉庫) 조에는 군기고(軍器庫) 등 군 내 주요 창고의 명칭과 위치를 기재해두었다.

역원(驛院) 조에는 오천역(五川驛), 아천역(牙川驛), 발소고척참(撥所高尺站), 대포참(大浦站), 소사참(素沙站)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찰(寺刹) 조를 살펴보면 안흥사(安興寺), 정악사(定岳寺) 등 당시 이천에 있던 사찰을 기재해두었다. 장시(場市) 조에는 관문 앞(官門前) 시장, 군량시(郡梁市), 오천시(五川市) 등이 기재되어 있다.

선생안은 서상옥(徐相鉦)부터 당시 군수였던 정봉시(鄭鳳時)까지 23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서상옥은 1870년(고종 7) 이천부사가 되었다. 이를 통해 본 읍지의 선생안은 다른 읍지에 비해 매우 짧은 시기를 수록하고 있다. 이렇게 짧은 시기를 수록한 사유는 읍지에 없으나, 다른 읍지들의 사례를 보아 이전 선생안이 소실되어 이전 수령을 기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본 해제 대상 외에도 이천군의 읍지는 규장각 소장 2종, 일본 소재 1종이 있다. 규장각에는 1899년 5월 작성된 읍지와 이를 후대에 작성한 읍지가 있는데, 내용을 비교하면 본 해제 읍지가 가장 후대에 작성된 것이다. 또, 일본 동양문고에는 작성 시기 미상의 『이천부읍지(利川府邑誌)』가 소장되어 있다. 동양문고 소장 읍지는 한국학자료센터와 연계된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를 통해 볼 수 있다.

-
- 서상옥(徐相鉦): 1819년(순조 19)~1893년(고종 30), 달성 서씨로 아버지는 서철순(徐喆淳)이다. 현릉령(顯陵令), 예산현감(禮山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 정봉시(鄭鳳時): 1855년(철종 6)~1937년, 초계 정씨로, 1896년(건양 1) 춘천부 참서관(參書官)을 시작으로 춘천군수(春川郡守), 이천군수(利川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인천부읍지

仁川府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인천군(京畿道 仁川郡)
크기	29.1 × 19.1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작성된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이다. 인천부의 읍지는 규장각 3종 장서각 2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의 K2-4290이며, 29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작성된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이다. 조선시대 인천부는 동으로 시흥(始興), 남으로 안산(安山), 북으로 부평(富平)과 맞닿아 있으며, 서쪽으로는 바다와 접한 고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읍지에 따르면 인천부는 본래 고구려 매소홀현(買召忽縣)인데, 신라 때 소성(邵城)으로 고치고, 울진군(栗津郡)의 속현으로 삼았다. 매소홀현은 미추홀(彌趨忽) 또는 경원매소(慶原買召)라고도 한다. 1018년(고려 현종 9) 수주(樹州)의 속현으로 삼았다가 고려 숙종 때에 이르러 인예왕후(仁觀王后) 이씨(李氏)의 내향인 까닭으로 경원군(慶源郡)으로 승격되었고, 고려 인종 때에는 순덕왕후(順德王后) 이씨(李氏)의 내향인 까닭으로 지인주사(知仁州事)로 승격되었다. 이후 1391년(고려 공양왕 3) 경원부(慶源府)로 승격되었다.

조선조에 이르러 1392년(태조 원년) 인주(仁州)로 복구되었으며, 1413년(태종 13) 인천군이 되었다. 1460년(세조 6)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외향인 까닭으로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1895년(고종 32) 지방 제도 개정에 따라 인천군이 되었다.

인천부의 읍지는 규장각 3종, 장서각 2종이 전한다. 모두 서명은 『인천부읍지』이나 작성된 시기는 1842년(헌종 8), 1891년(고종 28), 1899년으로 차이가 있다.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의 K2-4290이며, 29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관방(關防), 불우(佛宇)는 내용이 없다.

성지(城池) 조에는 미추홀고성(彌鄒忽古城)이 기재되어 있으며, 봉수(烽燧) 조에는 성산봉수(城山烽燧)가 기재되어 있다.

총묘(塚墓) 조에는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있는 것은 기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먼저 적은 뒤, 미추왕릉(彌鄒王陵) 외 다수의 묘를 기재하고 있다. 또, 공해(公廨) 조에는 인천부 주요 건물의 명칭과 칸수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창고(倉庫) 조에는 읍창(邑倉) 하나만이 있다고 적혀있다.

마지막에 실린 선생안은 이현(李賢)부터 당시 군수인 하상기(河相驥)까지 347명의 수령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
- 인예왕후(仁獻王后) 이씨(李氏): ?~1092년(고려 선종 9), 고려 문종의 왕비이다. 자식은 고려통, 대각국사 의천(義天) 등 10남 4녀를 낳았다. 본관은 해주(仁州)로 지금의 인천이다. 1092년 평양에서 하직하였으며, 대릉(戴陵)에 묻혔다.
 - 순덕왕후(順德王后) 이씨(李氏): ?~1118년(고려 예종 13), 고려 예종의 왕비이자, 고려 인종의 어머니이다. 본관은 해주이다. 1118년 하직하였으며, 유릉(綏陵)에 묻혔다.
 -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년(태조 4)~1446년(세종 28), 세종의 비이자 문종의 어머니이다. 본관은 청송, 성은 심씨(沈氏)이다. 1446년 하직하였으며, 헌릉(獻陵)에 장사지냈다. 이후 세종의 영릉(英陵)으로 이장되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장단군읍지

長湍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장단군(京畿道 長湍郡)
크기	32.1×22.0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8월 편찬된 『장단군읍지(長湍郡邑誌)』이다. 『장단군읍지』는 현재 규장각에 3종이 소장되어 있다. 본 해제의 대상은 奎 10737이며, 19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8월에 편찬된 『장단군읍지(長湍郡邑誌)』이다. 조선시대 장단군은 동으로 연천(漣川), 마전(麻田), 적성(積城)과 맞닿아있고 남으로는 파주(坡州), 교하(交河)와 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개성(開城), 북쪽으로는 토산(兔山), 삭녕(朔寧)과 맞닿아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본래 고구려의 장천성(長淺城)이었으며, 신라 때 장단으로 개칭하여 우봉군(牛峯郡)의 속현이 되었다.

1001년(고려 목종 4년) 한언공(韓彦恭)의 내향(內鄉)인 이유로 단주(湍州)로 승격되었으며, 1018년(고려 현종 9) 다시 장단현이 되었다. 또 읍지의 연혁조를 살펴보면 1414년(태종 14) 임강현(臨江縣)을 합하여 장단현으로 삼았으며, 이후 임진현(臨津縣)을 합하여 임단현(臨湍縣)으로 삼았다. 1469년(예종 원년) 진을 설치하고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광해군 대에 이르러 읍치를 옮기고, 1621년(광해군 13) 방어사로 승격되었다가, 1765년(영조 41) 파주목에 방어사를 이양하였다. 1895년(고종 32) 지방 제도 개정에 따라 군이 되었다.

장단군의 읍지는 규장각 3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奎 10737이다. 표지를 통해 광무 3년 8월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강역(疆域)부터 명환(名宦)까지 19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이중 봉름(奉廩)에는 관수미(官需米) 120석,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 140석, 아록미(衙祿米) 20석, 가급미(加給米) 5석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해(公廩)조에는 주요 건물의 위치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또, 우발(郵撥)조에는 동파역(東坡驛), 도원역(桃源驛) 등 당시 역참 6

개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중 참(站)의 경우 발장(撥將)이 1명씩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장시(場市)조에는 부내장(府內場), 사천장(沙川場) 등 5개 장시와 장 서는 날이 기재되어 있다. 능묘(陵墓)조에는 52명의 묘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신라 경순왕릉(敬順王陵), 고려 문종의 경릉(景陵), 고려 숙종의 영릉(英陵), 고려 명종의 지릉(智陵) 등 역대 왕릉부터 기재하고 있다. 이 중 경릉의 경우 1906년(광무 10) 도굴당한 기록이 실록에서 확인된다.

권수에는 채색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지도에는 장단군의 주요 지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읍지 속 기재된 내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외 규장각 소장 읍지 중 奎 17367의 경우 1842년 편찬된 『경기지(京畿誌)』의 읍지를 후대에 필사한 것이다. 古 915.12-J255d는 본 해제대상 읍지와 같이 동년 동월에 작성되었으며, 내용 및 편제가 큰 차이가 없다. 본 해제대상과 비교해보면 보다 정돈된 필체로 적혀있으며, 지도는 부기되어 있지는 않다.

-
- 한언공(韓彦恭): 940년(고려 태조 23)~1004년(고려 목종 7), 고려 전기 문신으로 990년 송나라에 사은사로 다녀오면서 송 태종이 지은 「전소요연화심륜(詮逍遙蓮花心輪)」을 가지고 돌아왔다. 장단현이 단주로 승격되었던 1001년은 한언공이 문하시중에 오른 해이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main.do>)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적성현읍지

積城縣邑誌

작성연대	[1842년(헌종 8) 이후]
편찬자	경기도 적성현(京畿道 積城縣)
크기	30.1×21.3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42년(헌종 8) 편찬된 『경기지(京畿誌)』에 수록된 읍지를 후대에 필사한 자료이다. 적성현 관련 읍지는 현재 규장각 3종, 장서각 1종이 소장되어 있다. 본 해제의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奎 17356)이며, 23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42년(헌종 8) 편찬된 『경기지(京畿誌)』의 읍지를 후대에 필사한 것이다. 조선시대 적성군은 동으로 양주(楊州), 남으로는 양주, 파주(坡州), 서쪽으로는 장단(長湍), 북으로는 마전(麻田)과 맞닿은 고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본래 고구려의 칠중성(七重城)이며, 신라 때 중성(重城)으로 고쳐 내소군(來蘇郡)의 속현으로 삼았다. 고려 때 적성으로 이름을 고치고, 장단현의 속현으로 삼았다. 이후 1106년(고려 예종 1) 감무를 두었다. 1413년(태종 13) 현감으로 고치고, 1895년(고종 32) 군으로 승격하여 한성부에 소속시켰다.

적성군의 읍지는 규장각 3종, 장서각 1종이 있다.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의 1842년 이후 필사본인데, 비교적 내용이 상세하기 때문에 선별하였다. 본 읍지에는 다른 읍지와 달리 지도가 없으나, 후대 작성된 읍지를 참고하면 당시 적성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해제 대상인 『적성현읍지(積城縣邑誌)』는 건치연혁(建置沿革)부터 기우제단(祈雨祭壇)까지 23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직관(職官)조에는 적성현의 주요 인원 편성이 적혀있는데, 현감 1명,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2명, 군관(軍官) 50명, 장교(將校) 25명, 군기감관(軍器監官) 5명, 토포군관(討捕軍官) 25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예(吏隸)로 아전 18명, 지인(知印) 10명, 가사령(假使令) 8명, 관노(官奴) 3명, 관비(官婢) 4명이 기재되어 있어 적성현의 편성 체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체제는 1899년(광무 3) 읍지 등과 비교하여 다소 차이가 있어, 적성군으로 개편되었을 때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학교(學校)조에는 보통 향교, 서원 등이 기재되는 편인데, 여기에는 무청(武廳), 군관청(軍官廳), 토포청(討捕廳) 등이 기재되어 있어 특이하다. 역원(驛院)조에는 상수역(湘水驛), 단조역(丹棗驛), 광수원(廣修院) 등이 기재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와 비교하면 역참이 2개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상수역(橡樹驛)의 경우 『지리지』에서 ‘세속에 서 상수(湘水)라고 잘못 칭한다.’ 라는 내용을 통해 잘못 알려진 상수(湘水)가 더 널리 통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읍지는 여러 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적성현의 변화를 보다 세밀히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

•무청(武廳): 각 감영 및 군 단위에 딸린 장교의 적소.

참고 문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http://jsg.aks.ac.kr>)

죽산군읍지

竹山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죽산군(京畿道 竹山郡)
크기	32.4×21.6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8월 작성된 『죽산군읍지(竹山郡邑誌)』이다. 죽산군의 읍지는 규장각 4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奎 10720의 1)이며, 18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8월 작성된 『죽산군읍지(竹山郡邑誌)』이다. 조선시대 죽산군은 동으로 이천(利川), 음죽(陰竹), 남으로 충주(忠州), 서쪽으로 안성(安城), 북으로는 양지(陽智)와 맞닿은 고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읍지를 참조하면 죽산군은 본래 고구려 개차산군(皆次山郡)인데, 신라 때 개산군(介山郡)으로 고쳤다. 고려 때에는 죽주(竹州)가 되었으며 1018년(고려 현종 9) 광주(廣州)에 소속되었다. 1172년(고려 명종 2)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1413년(태종 13) 죽산현이 되었다. 1434년(세종 16)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며, 1543년(중종 38) 도호부가 되었으며, 1895년(고종 32) 충주 관할이었다가, 1896년(건양 원년) 죽산군이 되었다.

죽산군의 읍지는 규장각 4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奎 10720의 1)이며, 18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권수에는 지도가 부기되어 있다. 군액(軍額) 조는 내용이 있으나, 혁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우역(郵驛) 조에는 분행역(分行驛), 좌찬역(佐贊驛)의 명칭과 소재지,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장시(場市) 조에는 백암장(白巖場), 주천장(注川場)의 소재지와 개시일,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찰(寺刹) 조에는 칠장사(七長寺), 봉무암(鳳舞菴), 고사(高寺)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고적(古跡) 조가 위치하는데, 옛 산성(古山城)과 사찰 조에서 나왔던 칠장사가 기재되어 있다.

이의 규장각에는 1832년(순조 32) 작성된 『죽산읍지』, 1891년(고종 28) 작성된 『죽산부읍지』 등이 있으며, 본 해제 대상과 똑같은 『죽산군읍지』(奎 10720의 2)도 있다. 장서각 소장본의 경우 서명은 『죽산군읍지』이며, 다른 읍지들과 달리 266명의 역대 수령을 수록한 선생안이 부기되어 있다.

-
- 칠장사(七長寺): 636년(신라 선덕여왕 5)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창건하였다. 이후 고려조에 들어 혜소국사(慧炤國師)가 백련암(白蓮庵)에서 수도할 때 7명의 악인을 교화하여 7명 모두가 도를 깨달아 일곱 현인(七賢)이 되었으므로 산 이름을 칠현산으로 했다고 한다. 사찰 소재 문화재로는 혜소국사비(보물 제488호), 대웅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4호), 소조사천왕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5호) 등이 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중경지

中京誌

작성연대	1881년(고종 18)
편찬자	경기도 개성부(京畿道 開城府)
크기	31,6×20,4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81년(고종 18) 간인된 『중경지(中京誌)』이다. 개성군의 읍지는 규장각 6종,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1종 등이 전한다. 그 중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古 4790-3)이며, 52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81년(고종 18) 간인된 『중경지(中京誌)』이다. 조선시대 개성군은 동으로 장단(長湍), 북으로는 금천(金川), 토산(兔山)과 맞닿아있으며, 서쪽으로는 배천(白川)과 강을 마주보고 있으며, 남으로는 강화도(江華島), 통진(通津)과 바다를 마주보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읍지에 따르면 개성군은 본래 고구려 부소갑(扶蘇岬)인데, 신라가 고구려를 통일한 이후 송악군(松岳郡)으로 고쳤으며, 919년(고려 태조 2) 도읍을 송악산 남쪽에 정한 뒤, 개주(開州)로 승격시켰다.

995년(고려 성종 14) 개성부(開城府)로 고쳤고, 거란의 침공 이후 1018년(고려 현종 9) 개성부를 파하고 현령을 두었다. 1029년(고려 현종 20) 강감찬에 의하여 나성을 쌓았다. 1062년(고려 문종 16) 지개성부사(知開城府事)로 승격시킨 뒤 1308년(고려 충렬왕 34) 개성부(開城府)로 승격시켜, 도성 안을 관장하게하고 개성현령을 따로 두어 도성 밖을 관할하게 하였다.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지 1년 뒤인 1395년(태조 4)에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를 두고 개성현령은 파하였다. 1438년(세종 20) 개성유수부로 삼았으며, 1823년(순조 23) 풍덕군이 개성부에 통합된다. 1895년(고종 32)에는 지방 제도 개정에 따라 개성부에서 개성군으로 바뀌었다.

개성군의 읍지는 규장각 6종,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古 4790-3)이며, 52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개성군의 읍지는 일반적인 조선시대 읍지와 달리 대부분 간인본이라는 특징이 있다. 본 해제 대상도 목활자로

인출된 자료이다.

권수에는 역대 읍지들의 서·발문이 있다. 이를 통하여 읍지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범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은 개성군의 지도가 부기되어 있다. 해당 지도 또한 여타 읍지와 달리 전체 개성군의 지도와 개성군의 성(城) 안 모습이 그려진 지도 2종이 존재한다. 본 읍지는 12권 6책으로 장정되어 있다.

권1에는 고려 태조부터 1872년(고종 9) 고종의 개성부 행차까지가 수록되어 있으며, 권2에는 고려 및 조선시대 개성의 제도와 강역 변천을 수록되어 있다. 권4의 궁전(宮殿) 조에는 개성에 소재한 고려 궁전과 조선의 궁을 수록하였다. 권6의 관방(關防) 조에는 산성 및 진(鎭)의 연혁, 규모, 관제, 군병, 군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 권12에는 역대 수령 및 관원들의 명단을 기재하였다.

추후 개성군 관련 연구 진행 시 여러 읍지들을 비교, 검토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main.do>)
-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지평군읍지

砥平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지평군(京畿道 砥平郡)
크기	32.2×21.4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5월에 작성된 『지평군읍지(砥平郡邑誌)』이다. 지평군의 읍지는 규장각, 장서각, 성균관대 존경각에 각 1종씩 전한다.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奎 10716)이며, 31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5월에 작성된 『지평군읍지(砥平郡邑誌)』이다. 조선시대 지평군은 동으로 원주(原州), 남으로는 여주(驪州), 서쪽으로는 양근(楊根), 북으로는 홍천(洪川)과 맞닿아 있다.

읍지에 따르면 지평군은 본래 고구려의 지현현(砥峴縣)이며, 신라 때 지금의 명칭으로 고쳐서 삭주(朔州)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때 광주에 소속시켰으며, 신우(辛禡) 때 유온(乳媪) 장씨(張氏)의 고향인 까닭으로 감무를 두었으나 후에 그것을 혁파하였다. 1391년(공양왕 3) 철장(鐵場)을 두었다. 1413년(태종 13) 현감으로 고쳤다. 1895년(고종 32) 군으로 변경되어 춘천부에 소속되었다. 1896년(건양 원년) 경기도로 다시 복귀되었다. 1908년(융희 2) 양근군(楊根郡)과 통합하여 양평군(楊平郡)이 되었다.

신경준의 『도로고』에 따르면 지평은 서울과 강원도 평해(平海)를 이어주는 고을이다. 『도로고』에는 지평(砥平)이 저평(抵平)으로 기재되어 있다.

지평군의 읍지는 규장각, 장서각, 성균관대에 각 1종씩 전한다. 본 해제의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奎 10716)이다. 읍지에는 건치연혁(建置沿革)부터 군병(軍兵)까지 31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단묘(壇廟) 조에는 문묘(文廟), 성황사(城隍祠)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공해(公廡)에는 현내 주요 건물에 대한 칸수가 기재되어 있다. 역원(驛院) 조에는 전곡역(田谷驛), 백동역(白冬驛), 지덕원(之德院)이

기재되어 있다. 목장(牧場)조에는 목장이 없다고 되어있으며, 분양마(分養馬) 1필을 매년 8월에 받아와서 외양(喂養)하고 익년 5월에 사복시로 들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찰(寺刹) 조에는 상원사(上元寺), 윤필암(潤筆庵), 용문사(龍門寺)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상원사는 고려시대 창건된 것으로 보이며, 1462년(세조 8) 세조가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중수하였다고 한다. 이 때 최항(崔恒)의 「관음현상기(觀音現相記)」는 지금도 전한다.

이외 소장된 지평군의 읍지들은 모두 1899년 작성된 것이며,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은 3월에 작성된 것이다. 장서각 소장본인 『지평군읍지부선생안(砥平郡邑誌附先生案)』은 작성된 달을 알 수 없으나 서명을 통해 다른 읍지와 달리 선생안이 부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 지평군 관련 연구 진행 시 세 읍지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관음현상기(觀音現相記): 1462년(세조 8) 세조가 관음보살을 뵈고, 그 때 장면을 그림으로 국내에 배포하기 위하여 최항에게 명하여 간행한 책이다. 규장각 등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성균관대학교 존경각(<http://oldbook.skku.edu>)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진위읍지

振威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진위군(京畿道 振威郡)
크기	34.0×24.2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0월에 작성된 『진위읍지(振威邑誌)』이다. 진위군의 읍지는 규장각 3종,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1종, 장서각 1종, 미국 버클리대학교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313)이며, 40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0월에 작성된 『진위읍지(振威邑誌)』이다. 조선시대 진위군은 동으로 양성(陽城), 남으로 평택(平澤), 서쪽으로 수원(水原), 북쪽으로 용인(龍仁)과 맞닿은 고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읍지를 참조하면 진위군은 본래 고구려 부산현(釜山縣)인데, 신라 때 진위로 고쳐 수성군(水城郡)의 속현으로 삼았다. 고려도 이를 그대로 따랐는데, 1172년(고려 명종 2) 감무를 두었고, 뒤에 영(營)으로 승격시켰다. 조선조도 이를 따랐으며, 1424년(세종 6) 송장(松莊)을 진위현에 소속시켰다. 이후 1895년(고종 32) 지방 제도 개정에 따라 진위군이 되었다.

진위군의 읍지는 규장각 3종, 존경각 1종, 장서각 1종, 미국 버클리대학교 1종이 전한다.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313)이며, 40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표지 이면(裡面)에는 광무 3년 11월이 기재되어 있다. 권수에는 지도가, 권말에는 선생안이 기재되어 있다. 항목 중 능침전각(陵寢殿閣), 성첩(城堞), 역도(驛賭), 목장(牧場), 연혁(沿革), 봉수(烽燧) 조는 내용이 없다.

역원(驛院) 조에는 장호원(長好院), 이방원(李方院) 등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승람에 소재된 것이나, 혁파되었으며 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찰(寺刹) 조에는 만기사(萬奇寺)가 기재되어 있다. 선생안에는 이희백(李希伯), 이빈(李贇) 등으로 시작하여 당시 군수인 김사필(金思弼)까지 수록되어 있다. 이희백과 이빈의 사적은 명확하지 않음

나, 이번의 경우 조선 전기 고양군수를 역임한 인물이 있다. 해당 인물이 읍지 속의 이빈이 맞다면 본 읍지의 선생안은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약 200여년 정도의 수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읍지 이외 진위군의 읍지로는 규장각 소장의 1843년(헌종 9) 작성된 『진위현읍지(振威縣邑誌)』(奎 17363), 1891년(고종 28) 작성된 『진위현읍지』(古 915.12-J562e), 1899년 5월 작성된 『경기도진위군읍지여지도성책(京畿道振威郡邑誌與地圖成冊)』(奎 10714)과 존경각 소장의 1899년 작성된 『진위군읍지여지도(振威郡邑誌與地圖)』, 미국 버클리대학교 소장의 『진위군읍지』 등이 있다. 위 읍지들을 살펴본 결과 진위군의 선생안은 장서각 소장본에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진위군 관련 연구 진행 시 위 읍지들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기사(萬奇寺): 942년(고려 태조 25) 창건되었으며, 세조 때 중수되었다. 대웅전에는 철조여래좌상(보물 제567호) 등의 문화재가 봉안되어 있다. 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무봉산에 위치하며, 용주사(龍珠寺)의 말사이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성균관대학교 존경각(<http://oldbook.skku.edu>)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http://www.aks.ac.kr>)

통진읍지

通津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통진군(京畿道 通津郡)
크기	29.5 × 19.0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편찬된 『통진읍지(通津邑誌)』이다. 통진군의 읍지는 현재 규장각 1종, 장서각 1종이 확인된다.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321)이며, 20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편찬된 『통진읍지(通津邑誌)』이다. 조선시대 통진군은 동으로 교하(交河), 북으로 개성(開城), 서쪽으로 강화(江華)와 강을 마주보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김포(金浦)와 맞닿은 고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통진군은 본래 고구려 평유압현(平唯押縣)으로 신라 때 분진(分津)으로 고쳤으며, 고려 때 통진이 되었다. 1391년(고려 공양왕 3) 수안현(守安縣)과 동성현(童城縣)을 합하고 감무를 두었다. 이후 1413년 감무를 현감으로 변경하였다. 김포(黔浦)로 신라때 장제(長堤)로 개칭되었다. 조선 건국 초기 금양(金陽)으로 개칭하고, 양천에 소속시켰다.

또, 읍지에 따르면 1695년(숙종 21) 통진부사로 승격시켜 진무좌영장(鎭撫左營將)을 겸하게 하였고, 1895년(고종 32) 통진군으로 바꾸었다.

신경준의 『도로고』에 따르면 통진군은 서울과 강화도를 이어주는 강화로(江華路)가 지나는 고을이었다. 관련 사료를 살펴보면 강화로는 연산군이 교동으로 폐위될 때와 철종이 왕이 되어 한성으로 가기 위해 지나간 길이기도 하다.

통진군의 읍지는 규장각과 장서각에 각각 1종이 있다.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321)이다. 읍지는 계경(界境)부터 역대 수령을 수록한 선생안까지 총 20개조가 있다. 이 중 능침전각(陵寢殿閣), 고적(古蹟), 제영(題詠)조는 내용이 없다.

앞부분에는 지도가 있으며, 성첩(城堞)조에는 문수산성을 소개

하고 있다. 사찰(寺刹)조에는 문수사(文殊寺)를 기재하고 있으며, 선생안에는 이박(李樸), 이소(李韶) 등으로 시작하여 최석민(崔錫敏)까지 총 263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박의 경우 생몰년 등을 알 수 없으나, 이소의 경우 1566년(명종 21) 통진현감으로 재직 중임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본 선생안은 16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약 350여 년간 역대 수령을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규장각 소장 읍지는 선생안이 없으나 장서각 소장본 읍지에는 없는 항목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통진 김포군 관련 연구 진행 시 서로 교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문수산성(文殊山城): 1694년(숙종 20) 축성되었다. 산 정상에 위치한 문수사라는 사찰에서 명칭이 유래되었다. 현재 사적 제139호로 지정되어 관리 중이며, 2017년 장대 등이 복원되었다.
 - 최석민(崔錫敏): 1858년(철종 9)~1915년, 1894년(고종 31) 의정부 주사를 시작으로 관직에 나아갔다. 1898년(광무 2) 6월 통진군수에 제수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한 공으로 남작 작위를 받았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파주군읍지

坡州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파주군(京畿道 坡州郡)
크기	30.1×20.0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원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0월에 편찬된 『파주군읍지(坡州郡邑誌)』이다. 『파주군읍지』는 현재 규장각 2종, 한국학중앙연구원 1종이 전한다. 본 해제의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K2-4323)이며, 24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10월에 편찬된 『파주군읍지(坡州郡邑誌)』이다. 조선시대 파주군은 동으로는 양주(楊州), 남으로는 고양(高陽), 서쪽으로는 교하(交河), 북으로는 장단(長湍)과 맞닿은 고을이다. 백제와 고구려 때에는 파해평사현(坡害平史縣)이었으며, 신라 때 들어 파평으로 고치고 내소군(來蘇郡)의 속읍으로 삼았다. 1018년(고려 현종 9) 장단현 속읍으로 삼았다가 1063년(고려 문종 17) 개성부 속읍이 되었다.

조선시기에는 1398년(태조 7) 서원군(瑞原郡)과 합쳐져 원평군(原平郡)이었다가 1461년(세조 7) 세조의 왕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의 내향(內鄉)인 까닭으로 파주목으로 승격되었다. 1895년(고종 32) 행정 개편으로 파주군이 되었다.

신경준의 『도로고(道路考)』에 따르면 파주군은 서울과 의주를 이어주는 의주길이 지나가는 고을이다. 『도로고』에 수록된 분수원(分水院)부터 임진(臨津)까지가 파주에 속한다.

파주군의 읍지는 규장각 2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장서각 소장본이다. 권수제를 통해 광무 3년 10월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연혁(沿革)부터 역대 수령을 기재한 선생안(先生案)까지 24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말미에 수록된 선생안은 이헌국(李憲國)부터 당시 군수였던 이필영(李弼永)까지 304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헌국은 16세기 중후반 활동한 인물이므로 16세기 중후반부터 19세기 말까지의 역대 수

령이 기재된 셈이다.

또 다른 읍지들과 달리 능침(陵寢)조에 다수의 능이 기재되어 있다. 예종의 원비인 장순왕후(章順王后)의 공릉(恭陵), 성종의 비인 공혜왕후(恭惠王后)의 순릉(順陵), 진종의 비인 효순왕후(孝純王后)의 영릉(永陵)이 있으며, 인조와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장릉(長陵) 옛터도 파주에 있었다.

이외 소장처로는 규장각에 소장된 읍지는 1899년 5월에 작성된 읍지(奎10712)와 1842년 이후 작성된 『파주목읍지』(奎 17358)가 있다. 이외 1871년(고종 8) 작성된 『경기읍지(京畿邑誌)』에도 읍지가 수록되어 있다. 추후 파주 관련 지역 연구를 진행할 경우 장서각 소장본을 위 3종의 읍지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정희왕후(貞熹王后): 1418년(태종 18)~1483년(성종 14), 세조의 비이며, 예종의 어머니이다. 예종 승하 후 성종의 후견인이 되어 수렴청정을 하였다.
 - 이헌국(李憲國): 1525년(중종 20)~1602년(선조 35), 1551년(명종 6) 문과에 급제하였다. 1589년(선조 22) 평난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광해군을 보필하여 호성공신에 책록되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http://jsg.aks.ac.kr>)

포천군읍지

抱川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포천군(京畿道 抱川郡)
크기	33,6 × 23,9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편찬된 『포천군읍지(抱川郡邑誌)』이다. 『포천군읍지』는 현재 규장각 3종, 한국학중앙연구원 1종으로 총 4종이 전한다. 본 해제의 대상은 1899년 필사된 규장각 소장본(奎 10730)이며, 29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편찬된 『포천군읍지(抱川郡邑誌)』이다. 조선시대 포천군은 동으로는 가평(加平), 남쪽과 서쪽은 양주(楊州), 북으로는 영평(永平)과 맞닿은 고을이다. 본래 고구려 마홀군(馬忽郡)이었는데, 견성군(堅城郡)으로 개칭되고, 고려 초 포천군으로 명명되었다. 이후 1018년(고려 현종 9) 양주목에 소속되고, 1413년(태종 13) 포천현이 되었다. 이후 1895년(고종 32) 군으로 승격되었다.

신경준의 『도로고(道路考)』에 따르면 포천은 서울부터 함경도 경흥(慶興)을 이어주는 경흥로(慶興路) 노선 중 하나였다. 『도로고』에 기재된 축석령(祝石嶺)부터 장거리(場巨里)는 포천에 소재한 곳이다. 이를 통해 당시 포천군이 주요 교통로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포천군의 읍지는 규장각 3종, 장서각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표지에 [포천군인(抱川郡印)]의 인장이 답인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는 관찰부(觀察府)가 기재되어 있어 당시 포천군이 관찰부에 올린 책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에는 당시 군수였던 이헌영(李憲榮)이 기재되고, 하단에 [포천군수지장(抱川郡守之章)]이 답인되어 있다.

이외 규장각 소장본에는 본 해제 문헌과 같은 양식의 읍지(奎 10730)가 있는데, 표지를 보아 내부(內府)에 올려진 것이다. 또 다른 읍지는 서명이 『견성지(堅城誌)』(古 4790-9)로 서문에 따라 1758년(영조 34)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장서각 소장본은 1899년 작성

된 것인데 해제에 따르면 『경기지(京畿誌)』에 수록된 읍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본 문헌은 여러 읍지에서 보이는 역대 수령이 기재된 선생안(先生案)이 없으나, 해제에 따르면 장서각 소장본은 부기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참조할 필요가 있다.

-
- 신경준(申景濬): 1712년(숙종 38)~1781년(정조 5), 호는 여암(旅庵)이다. 신숙주의 동생 신말주(申末舟)의 후손으로 1754년(영조 30) 문과에 급제하였다. 『여지승람(輿地勝覽)』,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 등을 감수하였으며, 『문헌비고』 중 「여지고(輿地考)」를 담당하였다. 저서로는 『강계지(疆界志)』·『산수경(山水經)』·『도로고(道路考)』 등 다수 있다.
 - 도로고(道路考): 1770년(영조 46) 여암 신경준이 지은 조선의 육로, 수로 등이 기재된 문헌. 왕들이 다닌 어로(御路), 서울을 기점으로 의주, 경흥, 평해, 동래, 제주, 강화도에 이르는 6개 대로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 이헌영(李憲榮): 1854년(철종 5)~?, 1894년(고종 31) 문과에 급제하였다. 부교리(副校理), 예안군수(禮安郡守) 등을 역임하였으며, 1899년 포천군수에 제수되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http://jsg.aks.ac.kr>)

풍덕군읍지

豐德郡邑誌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편찬자	경기도 풍덕군(京畿道 豐德郡)
크기	32.4×21.2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5월 작성된 『풍덕군읍지(豐德郡邑誌)』이다. 풍덕군의 읍지는 규장각, 장서각에 각각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奎 10735)이며, 16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1899년(광무 3) 5월 작성된 『풍덕군읍지(豐德郡邑誌)』이다. 조선시대 풍덕군은 동으로 장단(長湍), 서쪽으로는 배천(白川), 북으로는 개성(開城)과 맞닿아있으며, 남으로는 통진(通津), 강화(江華)와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고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읍지를 참고하면 풍덕군은 본래 고구려 덕물현(德勿縣)이며 신라 때 덕수(德水)로 개칭하여 경기도에 소속시켰으며, 해풍현(海豐縣)과 합하여 풍덕군이 되었다. 조선조에 들어 1649년(효종 즉위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관향인 까닭으로 부로 승격되었으며, 1703년(숙종 29) 혁파하여 개성부로 이속되었다가, 1746년(영조 22) 다시 복구되었다. 이후 1895년(고종 32) 지방 제도 개정에 따라 풍덕군이 되었다.

현재 풍덕군은 북한에 위치하였으며, 황해도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경기도에 속하므로 본 해제에 추가하였다.

풍덕군의 읍지는 규장각과 장서각에 각각 1종이 전한다. 이 중 본 해제 대상은 규장각 소장본(奎 10735)이며, 16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읍지에서는 풍덕군에 소재한 능묘를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능침(陵寢) 조에는 제릉(齊陵), 후릉(厚陵) 등 조선시대 왕릉이 기재되어 있으며, 묘소(墓所) 조에는 진안대군(鎭安大君), 익안대군(益安大君) 등 왕실 인사의 묘가 기재되어 있다. 진안대군의 묘소 기록에는 석물과 비각(碑閣)을 지난 경오년(庚午年) 가을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조의 능침을 따로 부기하였는데, 풍릉(豐陵), 정릉(貞陵), 영릉(榮陵)을 기재하고 있다.

일반적인 읍지와 같이 고을과 관련된 인물,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항목이 있으며, 결총(結摠), 호총(戶總), 군병(軍兵)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읍지 이외에도 장서각 소장 『풍덕군읍지(豐德郡邑誌)』가 있으며, 장서각 소장본의 경우 역도(驛路), 토산(土産), 선생안 등 다양한 항목이 더 있다. 소장처 해체에 따르면 선생안에는 31명의 수령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추후 풍덕군 관련 연구 진행 시 위 읍지들을 비교, 검토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
-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년(광해군 10)~1674년(현종 15), 효종의 비이다. 본관은 덕수이며, 병자호란 이후 효종과 같이 심양(瀋陽)으로 같이 끌려갔다. 능은 영릉(寧陵)으로 현 경기도 여주시에 있다. 관향인 풍덕군이 부로 승격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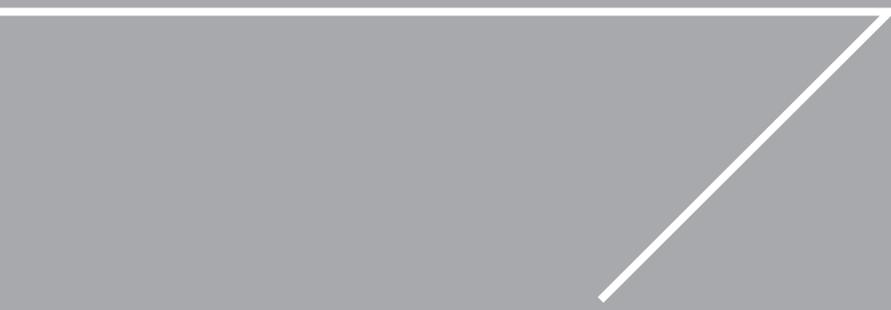
참고
문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2

양안
量案





경기도수원군양안京畿道水原郡量案

경기도안성군양안京畿道安城郡量案

경기도양주군소재내수시장토사검개타양안
京畿道楊州郡所在內需司庄土查檢改打量案

경기도용인군양안京畿道龍仁郡量案

경기안산군양안京畿安山郡量案

경기양성군양안京畿陽城郡量案

경기양지군양안京畿陽智郡量案

경기여주군양안京畿驪州郡量案

경기음죽군양안京畿陰竹郡量案

경기진위군양안京畿振威郡量案



경기도 수원군 양안

京畿道水原郡量案

작성연대	1900년(광무 4) / 1903년(광무 7)
편저자	양지아문(量地衙門) / 지계아문(地契衙門)
크기	31,7×41,4 / 44,2×26,6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기도수원군양안(京畿道水原郡量案)』은 1900년(광무 4) 양지아문(量地衙門)에 의해 작성된 총 73책의 필사본(筆寫本)과 1903년(광무 7) 지계아문(地契衙門)에 의해 작성된 총 66책의 필사본(筆寫本)의 양안이다.

양지아문(量地衙門)은 1899년(광무 3)~1901년(광무 5) 사이에 전국 331개 군(郡) 가운데 124개 군(郡)을 대상으로 양전사업(量田事業)을 시행하였는데 1900년(광무 4)의 양안은 표지의 조사안(調查案)을 통해 1900년(광무 4)에 작성된 중초본(中草本)으로 보이며, 1903년(광무 7)의 양안은 1902년(광무 6) 3월 양지아문이 지계아문(地契衙門)에 통합되면서 지계아문에서 중초본(中草本)을 정서하여 정서본(正書本)으로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양안(量案)은 수원군(水原郡)의 39개 면(面)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표지에는 초사(初查), 재사(再查), 초서(初書), 재사(再查), 초준(初准), 재준(再准)을 행한 일시와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한 조사안(調查案)이 붙어 있다.

1900년(광무 4) 중초본은 수원군의 전체적 상황을 기록한 군총목(郡總目)이 군총목(郡總目)에는 군계(郡界), 자호수(字號數), 전답적척(田畓積尺), 전답결총(田畓結總), 실전답결총(實田畓結總), 거민(居民), 공해(公廩)로 기록되어있고 각 면(面)마다 면의 면총목(面總目) 군총목과 동일한 양식으로 기재되어있다.

양전(量田)의 내용으로는 양안의 내용은 자호(字號), 지번(地番), 양전의 방향(量田方向), 지형(地形), 예좌(溜座), 사표(四標), 장광척(長廣尺), 전답도형(田畓圖形), 적척수(積尺數), 토지등급(土地等級), 결부수(結負數), 시주(時主), 시작(時作), 대주(垓主), 가주(家主), 간수(間數) 등으로 기록되었으며 일자오결(一字五結)의 원칙이 대체로 준수되

었다.

1903년(광무 7)의 정서본(正書本)은 이전의 중초본(中草本)을 정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전 양전의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아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중초본의 지형도(地形圖)를 생략하고, 두락(斗落)과 일경수(日耕數)를 추가하고, 시주(時主)의 이름만 기록하고, 자호(字號)를 모두 붙이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 양지아문(量地衙門) : 1898년(광무 2)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로 양전 사업은 1901년(광무 5) 전국적인 흉년으로 12월부터 중단되었고, 양지아문은 다음해인 1902년(광무 6) 3월 지계아문(地契衙門)에 통합되었다.
- 지계아문(地契衙門) : 대한제국 정부는 근대적 개혁을 위한 기초사업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했으나, 이후 양전(量田)과 함께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지계(地契) 발행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1901년(광무 5)에 지계아문을 신설하였다. 이후 1902년(광무 6) 3월 기존의 양지아문과 업무상 중복되자 지계아문에 양지아문을 통합시켰다.
- 양안(量案) :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전지(田地)를 측량하여 만든 토지대장으로 국가적인 수세가 이루어진 모든 시기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조선시대의 자료만이 전한다. 전안(田案)·철권·도행장(導行帳)·전적(田籍) 등으로도 불렸다. 국가에서 전세(田稅)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기록한 장부로서, 농민층의 토지소유 상황, 농가소득 정도, 계층분화의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

경기도 안성군 양안

京畿道安城郡量案

경기 안성군 양안

京畿安城郡量案

작성연대	1901년(광무 5) / 1902년(광무 6)
편저자	양지아문(量地衙門) / 지계아문(地契衙門)
크기	31×39 / 36×61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기도안성군양안(京畿道安城郡量案)』은 총 30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1901년(광무 5) 3월에 양지아문(量地衙門)에 의해 작성된 양안이며, 『경기안성군양안(京畿安城郡量案)』은 총 24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1902년(광무 6) 11월에 지계아문(地契衙門)에 의해 작성된 양안이다.

양지아문(量地衙門)은 1899년(광무 3)~1901년(광무 5) 사이에 전국 331개 군(郡) 가운데 124개 군(郡)을 대상으로 양전사업(量田事業)을 시행하였는데 본 『경기도안성군양안(京畿道安城郡量案)』은 조사안(調査案)을 통해 1901년(광무 5)에 작성된 중초본(中草本)으로 보이며, 『경기안성군양안(京畿安城郡量案)』은 1902년(광무 6) 3월 양지아문이 지계아문(地契衙門)에 통합되면서 양지아문의 중초본을 정서한 정서본(正書本)으로 판단된다.

두 양안(量案)은 안산군(安山郡)의 24개 면(面)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표지에는 초사(初查), 재사(再查), 초서(初書), 재사(再查), 초준(初准), 재준(再准)을 행한 일시와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한 조사안(調査案)이 붙어 있다.

『경기도안성군양안』은 군총(郡總)이 없고 다만 1902년(광무 6) 11월의 군총을 첨지(添紙)로 붙여 군계(郡界), 자호수(字號數), 전답적척수(田畝積尺數) 등 총 8개의 항목으로 나타내었다. 면마다 군총과 같은 형식의 면총목(面總目)이 있다. 양전(量田)의 내용은 지번(地番), 양전의 방향(量田方向), 지형(地形), 시주(時主)와 시작인(時作人) 또는 대주(垞主)와 거주(家主) 등 12항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기안성군양안』은 『경기도안성군양안』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 정서(正書)한 것으로 『경기도안성군양안』의 군총첨지의 내역과 이 양안의 군총목의 내용이 같다. 전답 매필

지에 대한 기재도 같으나 지심인(指審人)과 날짜가 빠져있고 권수(卷首)에 자차(字次)를 별도로 적고 있는 점이 다르다.

-
- 안성군(安城郡) : 안성(安城)은 본래 고구려 내혜홀(奈兮忽) 지역으로, 통일신라 때 백성군(白城郡)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안성현(安城縣)이 되었고, 고려 현종(顯宗)대 수주(水州)에 소속되었다가 후에 천안(天安)으로 이속되었다. 공민왕(恭愍王)대 침입한 홍건적(紅巾賊)을 안성인들이 공격한 공으로 안성군(安城郡)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에 이르러서도 이를 그대로 따랐으며, 태종(太宗)대에 충청도(忠淸道)에서 경기도(京畿道)로 이속되었다.
 - 양지아문(量地衙門) : 앞 항목 참조.
 - 지계아문(地契衙門) : 앞 항목 참조.
 - 양안(量案) : 앞 항목 참조.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안성군읍지(安城郡邑誌)』

경기도 양주군소재 내수사장토사 검개타양안

京畿道楊州郡所在
內需司庄土查
檢改打量案

작성연대	1905년(광무 9)
편저자	양주군(楊州郡)
크기	47.2×28.7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기도양주군소재내수사장토사검개타양안(京畿道楊州郡所在內需司庄土查檢改打量案)』은 총 1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1905년(광무 9) 2월에 경기도 양주군의 백석면(白石面), 광석면(廣石面), 하도면(下道面)에 소재한 내수사(內需司) 장토(庄土) 현황을 기록한 양안(量案)이다.

권수면(卷首面)에 ‘광무9년 을사 2월 일(光武九年乙巳二月日)’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권말(卷末)에는 ‘군수 신 홍태윤(郡守臣洪泰潤)’, ‘검사관 신 현상국(檢査官臣玄相國)’이라는 기재사항을 통해 작성 주체를 알 수 있다.

본 양안은 백석면(白石面), 광석면(廣石面), 하도면(下道面) 순으로 기록되어있다. 기재 내용으로는 마을의 지명, 곡(谷)·평(坪)의 지명, 자호(字號) 순으로 기록되었다. 자호의 아래에는 지번(地番), 양전(量田) 방향, 토지등급(土地等級), 지형(地形), 지목(地目), 두락수(斗落數), 예좌수(畱座數), 장광척(長廣尺), 결부수(結負數), 사표(四標), 시작인(時作人) 등이 기록되었다. 양안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수사(內需司) 장토(庄土) 총 면적은 5결(結) 78부(負) 4속(束)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양안을 통해서 대한제국 시기 황실 재정의 지역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양안(量案) : 앞 항목 참조.

•홍태윤(洪泰潤) :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경기도 양주 출생이다. 신체가 장대하고 도량이 넓어 대장부다운 기백을 갖추었다. 궁궐을 지키는 관속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명성 황후(明聖皇后)가 임오군란(壬午軍亂)을 당해 위급하게 되자 주변에 동생이라고 속이고는 왕후를 업고 경기도 여주(驪州)까지 피신시켜 화를 면하게 하였다. 그 후 발탁이 되어 영평현령(永平縣令)을 거쳐 포천현감(抱川縣監)으로 있다가 양주 목사(楊州牧使)까지 역임하였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양주군읍지(楊州郡邑誌)』

경기도 용인군 양안

京畿道龍仁郡量案

작성연대	1903년(광무 7)
편저자	지계아문(地契衙門)
크기	43.6×27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기도용인군양안(京畿道龍仁郡量案)』은 총 27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1903년(광무 7)에 지계아문(地契衙門)에서 작성한 양안(量案)이다.

양지아문(量地衙門)의 양전사업(量田事業)을 통해 1899년(광무 3)~1901년(광무 5) 사이에 작성되었을 중초본(中草本)을 지계아문(地契衙門)에서 정서하여 정서본(正書本)으로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용인군(龍仁郡)의 16개 면(面)에 대한 양안(量案)으로 제1책은 동변면(東邊面), 제2책은 구흥면(駒興面), 제3책은 도촌면(道村面), 제4책은 읍치면(邑治面), 제5책은 서변면(西邊面), 제6책은 서촌면(西村面), 제7·8책은 수여면(水餘面), 제9·10·11책은 포곡면(浦谷面), 제12·13책은 상동촌면(上東村面), 제14·15책은 모현면(慕賢面), 제16·17책은 하동촌면(下東村面), 제18·19책은 기곡면(器谷面), 제20·21책은 남촌면(南村面), 제22·23책은 지내면(枝內面), 제24·25책은 현내면(縣內面), 제26·27책은 수진면(水眞面)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지에는 조사 시기와 각각의 담당 조사원(調查員)의 이름을 기재한 조사안(調查案)이 붙어 있다. 양전(量田)의 내용으로는 각 전지의 자호(字號), 지번(地番), 양전방향(量田方向), 등급(等級), 지형(地形), 장광적척(長廣積尺), 결수(結數), 각경(刻畝), 사표(四標), 시주명(時主名) 등을 기록하였다.

1900년(광무 4)의 『용인군양안초(龍仁郡量案抄)』과 비교하면 이전의 양안에 비해 전답도형(田畓圖形)이 표시되지 않았고 일경수(日耕數)와 두락수(斗落數)를 추가로 기록하고, 시주(時主)만 표시하였다. 또한 지번(地番)이 변하고 있고, 각 면에 대한 양전순서(量田順序)도 전의 양안과 다르다.

-
- 지계아문(地契衙門) : 앞 항목 참조.
 - 양안(量案) : 앞 항목 참조.
 - 일자오결(一字五結) : 논밭 다섯 결(結)마다 『천자문(千字文)』의 자호(字號)를 붙였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용인군지(龍仁郡誌)』

경기 안산군 양안

京畿安山郡量案

작성연대	1900년(광무 4)
편저자	양지아문(量地衙門)
크기	44.2×34.4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기안산군양안(京畿安山郡量案)』은 총 15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1900년(광무 4)에 양지아문(量地衙門)에서 작성한 양안(量案)이다.

양지아문(量地衙門)은 1899년(광무 3)~1901년(광무 5) 사이에 전국 331개 군(郡) 가운데 124개 군(郡)을 대상으로 양전사업(量田事業)을 시행하였는데 『경기안산군양안(京畿安山郡量案)』은 표지의 조사안(調査案)을 통해 1900년(광무 4)에 작성된 중초본(中草本)으로 보인다.

안산군(安山郡)의 6개 면(面)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1·2책은 군내면(郡內面), 제3·4·5책은 초산면(草山面), 제6·7책은 대월면(大月面), 제8·9·10책은 와리면(瓦里面), 제11·12책은 잉화면(仍火面), 제13·14·15책은 마유면(馬遊面)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책 표지의 조사안(調査案)에는 초사(初查), 재사(再查), 초서(初書), 재사(再查), 초준(初准), 재준(再准)을 행한 일시와 담당자의 이름이 기재하였다.

군총목(郡總目)은 군계(郡界), 자호(字號), 전답적척(田畓積尺), 전답결총결(田畓結總結), 실전답결총(實田畓結總), 거민(居民), 공해(公廩) 등의 항목이 실려 있으며, 군총목(郡總目) 다음에는 위원(委員)과 학원(學員)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각 책마다는 군총목과 같은 형식의 면총목(面總目)이 실려 있다.

내용은 자호(字號), 지번(地番), 양전의 방향(量田方向), 지형(地形), 예좌(留座), 사표(四標), 장광척(長廣尺), 전답도형(田畓圖形), 적척수(積尺數), 토지등급(土地等級), 결부수(結負數), 시주(時主), 시작(時作), 대주(垓主), 거주(家主), 간수(間數) 등으로 기록되었으며 별도의 상단(上段)에는 지심인(指審人), 지심시기(指審時期) 전답(田畓)이 위치한 지역명(地域名) 등이 기재되고 있다.

•양지아문(量地衙門) : 앞 항목 참조.

•양안(量案) : 앞 항목 참조.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

경기 양성군 양안

京畿陽城郡量案

양성군 양안

陽城郡量案

작성연대	1901년(광무 5) / 1902년(광무 6)
편저자	양지아문(量地衙門) / 지계아문(地契衙門)
크기	30,6×39 / 35,6×61,2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양성군양안(陽城郡量案)』은 총 28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1901년(광무 5)에 양지아문(量地衙門)에서 작성한 양안(量案)이며, 『경기양성군양안(京畿陽城郡量案)』은 총 18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1902년(광무 6)에 지계아문(地契衙門)에서 작성한 양안(量案)이다.

양지아문(量地衙門)은 1899년(광무 3)~1901년(광무 5) 사이에 전국 331개 군(郡) 가운데 124개 군(郡)을 대상으로 양전사업(量田事業)을 시행하였는데 『양성군양안(陽城郡量案)』은 표지의 조사안(調査案)을 통해 1901년(광무 5)에 작성된 중초본(中草本)으로 보이며, 『경기양성군양안(京畿陽城郡量案)』은 1902년(광무 6) 3월 양지아문이 지계아문(地契衙門)에 통합되면서 지계아문에서 중초본을 정서하여 정서본(正書本)으로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양안은 양성군(陽城郡)의 18개 면(面)에 대한 양안(量案)이며, 각 표지에는 초사(初查), 재사(再查), 초서(初書), 재사(再查), 초준(初准), 재준(再准)을 행한 일시와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한 조사안(調査案)이 붙어 있다.

『양성군양안』은 군총목(郡總目)은 없고 『경기양성군양안』을 작성할 때 붙인 것으로 보이는 군총목(郡總目)이 군계(郡界), 자호수(字號數), 전답적척(田畓積尺), 전답결총(田畓結總), 실전답결총(實田畓結總), 거민(居民), 공해(公廩)로 기록되어 있다. 각 면(面)의 면총목(面總目)에도 같은 항목으로 양전(量田) 결과가 집계되었다.

내용은 자호(字號), 지번(地番), 양전의 방향(量田方向), 지형(地形), 예좌(留座), 사표(四標), 장광척(長廣尺), 전답도형(田畓圖形), 적척수(積尺數), 토지등급(土地等級), 결부수(結負數), 시주(時主), 시작(時作), 대주(垓主),家主(家主), 간수(間數) 등으로 기록되었으며 별도의 상단(上段)에는 지심인(指審人), 지심시기(指審時期) 전답(田畓)이 위

치한 지역명(地域名) 등이 기재되고 있다.

『경기양성군양안(京畿陽城郡量案)』은 『양성군양안(陽城郡量案)』을 몇 차례 조사·수정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각 책의 뒤에 기록된 조서 일자가 이전 양안의 조사일자와 다른 부분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 외의 내용은 대부분 이전 양안(量案)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
- 양지아문(量地衙門) : 앞 항목 참조.
 - 지계아문(地契衙門) : 앞 항목 참조.
 - 양안(量案) : 앞 항목 참조.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양성읍지(陽城邑誌)』

경기 양지군 양안

京畿陽智郡量案

양지군 양안

陽智郡量案

작성연대	1901년(광무 5) / 1902년(광무 6)
편저자	양지아문(量地衙門) / 지계아문(地契衙門)
크기	31×39 / 36×61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양지군양안(陽智郡量案)』은 총 16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1901년(광무 5)에 양지아문(量地衙門)에 의해 작성된 양안이며, 『경기양지군양안(京畿陽智郡量案)』은 총 11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1902년(광무 6)에 지계아문(地契衙門)에 의해 작성된 양안(量案)이다.

양지아문(量地衙門)은 1899년(광무 3)~1901년(광무 5) 사이에 전국 331개 군(郡) 가운데 124개 군(郡)을 대상으로 양전사업(量田事業)을 시행하였는데 『양지군양안(陽智郡量案)』은 표지의 조사안(調査案)을 통해 1900년(광무 4)에 작성된 중초본(中草本)으로 보이며, 『경기양지군양안(京畿陽智郡量案)』은 1902년(광무 6) 3월 양지아문이 지계아문(地契衙門)에 통합되면서 지계아문에서 중초본을 정서하여 정서본(正書本)으로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지군양안(陽智郡量案)』은 양지군(陽智郡)의 읍내면(邑內面), 목악면(木岳面), 고동면(古東面), 고서면(古西面), 고북면(古北面), 주서면(朱西面), 주북면(朱北面), 주동면(朱東面), 박곡면(朴谷面), 고안면(高安面), 제촌면(蹄村面) 총 11개 면(面)에 대한 양전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의 양지아문에서 조사한 다른 양안과 동일하게 군총목(郡總目), 면총목(面總目), 양전의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각 표지에는 조사안(調査案)에는 초사(初查), 재사(再查), 초서(初書), 재사(再查), 초준(初准), 재준(再准)을 행한 일시와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한 조사안(調査案)이 붙어 있고, 양전(量田)의 내용은 지번(地番), 양전의 방향(量田方向), 지형(地形), 시주(時主)와 시작인(時作人) 또는 대주(垞主)와 거주(家主) 등 12항목으로 기록되었으며 일자오결(一字五結)의 원칙이 대체로 준수되었다.

내용은 자호(字號), 지번(地番), 양전의 방향(量田方向), 지형(地形), 예좌(畝座), 사표(四標), 장광척(長廣尺), 전답도형(田畝圖形), 적척수

(積尺數), 토지등급(土地等級), 결부수(結負數), 시주(時主), 시작(時作), 대주(堡主), 거주(家主), 간수(間數) 등으로 기록되었으며 별도의 상단(上段)에는 지심인(指審人), 지심시기(指審時期) 전답(田畓)이 위치한 지역명(地域名) 등이 기재되고 있다.

제9책(邑內面)의 첫 면에 부착되어 있는 군총목(郡總目)에는 군계(郡界), 자호수(字號數), 전답적척(田畓積尺), 전답결총(田畓結總), 실전답결총(實田畓結總), 거민(居民), 공해(公廩), 화을결(火粟結)이 기록되어있다.

『경기양지군양안(京畿陽智郡量案)』은 『양지군양안(陽智郡量案)』의 정서본이기 때문에 형식, 양전결과가 동일하다. 다만 각 책의 자(字) 차(次)를 책의 앞부분에 적었고, 상단의 지심인(指審人)과 지심시기(指審時期)를 삭제하고, 책 끝에 조사 시기 등을 밝혀 책 임의 소재를 분명히 했다.

-
- 양지아문(量地衙門) : 앞 항목 참조.
 - 지계아문(地契衙門) : 앞 항목 참조.
 - 양안(量案) : 앞 항목 참조.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양지군읍지(陽智郡邑誌)』

경기 여주군 양안

京畿驪州郡量案

작성연대	1901년(광무 5)
편저자	양지아문(量地衙門)
크기	33×42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기여주군양안(京畿驪州郡量案)』은 총 41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1901년(광무 5)에 양지아문(量地衙門)에서 작성한 양안(量案)이다.

양지아문(量地衙門)은 1899년(광무 3)~1901년(광무 5) 사이에 전국 331개 군(郡) 가운데 124개 군(郡)을 대상으로 양전사업(量田事業)을 시행하였는데 본 양안(量案)은 표지의 조사안(調査案)을 통해 1901년(광무 5)에 작성된 중초본(中草本)으로 보인다.

여주군(驪州郡)의 20개 면(面)에 대한 양안(量案)으로 제1·2·3책은 소개면(召開面), 제4·5책은 흥곡면(興谷面), 제6·7책은 주내면(州內面), 제8·9책은 가서면(加西面), 제10·11책은 근동면(近東面), 제12·13책은 근남면(近南面), 제14·15책은 길천하면(吉川下面), 제16·17책은 길천상면(吉川上面), 제18·19책은 점상면(占上面), 제20·21책은 연조리면(延助里面), 제22·23·24책은 등신면(等新面). 제25·26·27책은 북면(北面), 제28책은 원하면(元下面), 제29·30책은 대송면하편(大松面下便), 제31·32책은 대송면상편(大松面上便), 제33책은 원상면(元上面), 제34책은 점하면(占下面), 제35·36·37책은 금사면(金沙面), 제38·39책은 수계면(首界面), 제40·41책은 개군산면(介軍山面)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지에는 조사 시기와 각각의 담당 조사원(調査員)의 이름을 기재한 조사안(調査案)이 붙어 있다. 양전(量田)의 내용은 자호(字號), 지번(地番), 양전방향(量田方向), 지형(地形) 등 총 13개의 항목을 담고 있다. 대지(垞地)인 경우 거주(家主)와 대주(垞主) 및 초와간수(草瓦間數)를 적었다. 관청(官廳)의 대지(垞地)인 경우 관청 이름과 응탈(應頃)을 밝혀서 적었다. 관둔전(官屯田)인 경우에는 그 이름과 시작(時作)만 기록되어 있다. 윗부분에 지역명과 지심인(指審人)을 적었다.

-
- 양지아문(量地衙門) : 앞 항목 참조.
 - 양안(量案) : 앞 항목 참조.
 - 응탈(應頃) : 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잡탈(雜頃)에 속한 전지이다.
 - 지심인(指審人) : 해당지역의 가주(家主), 시주(時主), 시작인(時作人) 중에 1인이다.
 - 시작인(時作人) : 당시의 소작인.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여주읍지(驪州邑誌)』

경기 음죽군 양안

京畿陰竹郡量案

작성연대	1901년(광무 5)
편저자	양지아문(量地衙門)
크기	35×41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기음죽군양안(京畿陰竹郡量案)』은 총 17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1901년(광무 5)에 양지아문(量地衙門)에 의해 작성된 양안(量案)이다. 지계아문(地契衙門)에서 작성되었을 정서본(正書本)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양지아문(量地衙門)은 1899년(광무 3)~1901년(광무 5) 사이에 전국 331개 군(郡) 가운데 124개 군(郡)을 대상으로 양전사업(量田事業)을 시행하였는데 『경기음죽군양안(京畿陰竹郡量案)』은 표지의 조사안(調查案)을 통해 1901년(광무 5)에 작성된 중초본(中草本)으로 보인다.

음죽군(陰竹郡)의 9개 면(面)에 대해 제1·2책은 남면(南面), 제3·4책은 서면(西面), 제5·6책은 근북면(近北面), 제7·8책은 하률면(下栗面), 제9·10책은 무극면(無極面), 제11책은 군내면(郡內面), 제12·13책은 원북면(遠北面), 제14·15책은 동면(東面), 제16·17책은 상률면(上栗面)으로 기록하였다.

각 표지에는 조사안(調查案)에는 초사(初查), 재사(再查), 초서(初書), 재사(再查), 초준(初准), 재준(再准)을 행한 일시와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한 조사안(調查案)이 붙어 있으며, 군총목(郡總目)은 군계(郡界), 자호(字號), 전답적척수(田畓積尺數) 전답결총(田畓結總), 실전답결총(實田畓結總), 거민(居民), 공해(公廩) 총 7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총목(面總目)은 군총목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되고 있다.

면총목(面總目) 가운데는 양전사업(量田事業) 이전의 원결(原結), 원호수(原戶數)와 새로 얻어진 사기결(查起結), 사기호(查起戶)를 비교하고 있어서 양전(量田)의 새로운 성과를 알 수 있게 한다.

양전(量田)의 내용은 자호(字號), 지번(地番), 양전의 방향(量田方向), 지형(地形), 예좌(畝座), 사표(四標), 장광척(長廣尺), 전답도형(田

畚圖形), 적척수(積尺數), 등급(等級), 결부수(結負數), 시주(時主), 시작(時作), 대주(垓主), 가주(家主), 간수(間數) 12항목으로 기록되었으며 별도의 상단(上段)에는 지심인(指審人), 지심시기(指審時期) 전답(田畓)이 위치한 지역명(地域名) 등이 기재되고 있다.

자호(字號)가 끝나는 곳에는 같은 자호내(字號內)의 전답적척수(田畓積尺數), 결부수(結負數), 거민호수(居民戶數) 등이 집계되어 있다.

책의 말미에는 양전결과(量田結果)가 역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책머리의 그 책(冊)의 총목(總目)과 중복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양지아문(量地衙門) : 앞 항목 참조.

•양안(量案) : 앞 항목 참조.

•전안(田案) : 철권·도행장(導行帳)·전적(田籍) 등으로도 불렸다. 국가에서 전세(田稅)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기록한 장부로서, 농민층의 토지소유 상황, 농가소득 정도, 계층분화의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음죽군읍지(陰竹郡邑誌)』

경기 진위군 양안

京畿振威郡量案

작성연대	양지아문(量地衙門) / 지계아문(地契衙門)
편저자	1901년(광무 5) / 1902년(광무 6)
크기	31,3×38,6 / 36,2×62,4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기진위군양안(京畿振威郡量案)』은 1901년(광무 5) 양지아문(量地衙門)에 의해 작성된 총 21책의 필사본(筆寫本)과 1902년(광무 6) 지계아문(地契衙門)에 의해 작성된 13책의 필사본의 양안(量案)이다.

양지아문(量地衙門)은 1899년(광무 3)~1901년(광무 5) 사이에 전국 331개 군(郡) 가운데 124개 군(郡)을 대상으로 양전사업(量田事業)을 시행하였는데 본 『경기진위군양안(京畿振威郡量案)』은 표지의 조사안(調査案)을 통해 1901년(광무 5)에 작성된 중초본(中草本)으로 보이며, 이후 1902년(광무 6)의 양안은 1902년(광무 6) 3월 양지아문이 지계아문(地契衙門)에 통합되면서 양지아문의 중초본을 정서한 정서본(正書本)으로 판단된다.

두 양안(量案)은 진위군(振威郡)의 13개 면(面)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표지에는 초사(初查), 재사(再查), 초서(初書), 재사(再查), 초준(初准), 재준(再准)을 행한 일시와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한 조사안(調査案)이 붙어 있다.

1901년(광무 5)의 양안의 군총목(郡總目)에는 군계(郡界), 자호수(字號數), 전답적척(田畓積尺), 전답결총(田畓結總), 실전답결총(實田畓結總), 거민(居民), 공해(公廩)의 항목으로 기록되었고, 각 책의 첫 머리에는 해당 면(面)의 면총목(面總目)이 군총목(郡總目)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되고 있다.

양전(量田)의 내용은 자호(字號), 지번(地番), 양전의 방향(量田方向), 지형(地形), 예좌(畱座), 사표(四標), 장광척(長廣尺), 전답도형(田畓圖形), 적척수(積尺數), 토지등급(土地等級), 결부수(結負數), 시주(時主), 시작(時作), 대주(垞主), 거주(家主), 간수(間數) 등으로 기록되었으며 일자오결(一字五結)의 원칙이 대체로 준수되었다.

1902년(광무 6)의 양안은 1901년(광무 5)의 중초본(中草本)을 정서

(正書)한 것이라 기재형식, 내용 및 양전의 결과 등 모두 1901년(광무 5)의 중초본(中草本)과 동일하다.

-
- 양지아문(量地衙門) : 앞 항목 참조.
 - 지계아문(地契衙門) : 앞 항목 참조.
 - 양안(量案) : 앞 항목 참조.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경기도진위군읍지여지도성책(京畿道振威郡邑誌與地圖成冊)』

3

중기·사례·등록
重記 事例 謄錄



경기각읍신정사례京畿各邑新定事例

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

경기관초京畿關草

경기수영각고도중기京畿水營各庫都重記

기영신정사례畿營新定事例

기영장계등록畿營狀啓謄錄

기전영사례畿甸營事例

기전영지畿甸營誌

경기각읍 신정사례

京畿各邑新定事例

작성연대	1894년(고종 31)
편저자	미상(未詳)
크기	34.6×24.0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기각읍신정사례(京畿各邑新定事例)』는 총 2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1894년(고종 31) 10월에 갑오승총(甲午陞摠)에 따라 경기도내 36개 각 읍(邑)과 진(鎭)의 세금 징수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경기각읍신정사례(京畿各邑新定事例)』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정부는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경기도 각 읍과 경기감영의 재정운영지침을 새로 마련될 때, 『기영신정사례(畿營新定事例)』와 함께 작성되었다.

본 책이 작성될 시기 새로 제정된 33개 읍(邑)과 3개 진(鎭)의 사례를 차례로 수록하였다. 수록된 읍진(邑鎭)의 차례는 양주(楊州), 여주(驪州), 과주(坡州), 교하(交河), 남양(南陽), 장단(長湍), 이천(利川), 음죽(陰竹), 죽산(竹山), 통진(通津), 교동(喬洞), 인천(仁川), 부평(富平), 풍덕(豐德), 안성(安城), 김포(金浦), 영평(永平), 양근(楊根), 마전(麻田), 적성(積城), 안산(安山), 삭녕(朔寧), 고양(高陽), 진위(振威), 시흥(始興), 용인(龍仁), 과천(果川), 양지(陽智), 연천(漣川), 지평(砥平), 양천(陽川), 포천(抱川), 양성(陽城), 영종(永宗), 대부(大阜), 덕적(德積)의 순이다.

본 책은 『기영신정사례(畿營新定事例)』와 함께 갑오개혁기 지방재정의 개혁 방향이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경기도 각 읍의 재정 상황과 고을 현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이다.

-
- 갑오개혁(甲午改革) : 조선조 26대 고종(高宗) 31(1894)년 조선정부가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통해, 재래의 문물제도를 버리고 근대적인 서양의 법식(法式)을 본받아 새 국가체제를 확립하려던 정책. 군국기무처는 반년 동안 실로 208건에 달하는 개혁 조치를 의결했는데 이러한 개혁은 구질서에 종지부를 찍고, 근대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보려는 노력의 발단으로서, 정치·경제·사회 등의 모든 제도에 대한 근대적인 개혁이었다.
 - 갑오승총(甲午陞總) : 1894년(고종 31) 탁지부의 지세수입확보를 위해 궁방전을 비롯한 각종 면세지에 출세를 단행한 조치이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경기관초

京畿關草

작성연대	1886년(고종 23)~1895년(고종 32)
편저자	의정부(議政府)
크기	33,8 × 21,2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기관초(京畿關草)』는 총 6책(冊)의 필사본(筆寫本)으로 1886년(고종 23)에서 1895년(고종 32)까지 의정부(議政府)에서 경기감영(京畿監營) 및 경기도내(京畿道內)의 지방관(地方官)에게 내린 관문(關文)의 초본과 치보(馳報)를 모은 것이다.

『경기관초(京畿關草)』는 연월순으로 모아서 기록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문(關文)이 없는 치보(馳報)도 함께 수록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각 지방에서 발생한 조세(租稅)문제나 외국과의 무역, 법외무역(法外貿易) 등에 관한 치보와 지방민의 청원 내용도 보인다.

제1책은 1886년 2월~1887년 5월, 제2책은 1887년 5월~1888년 11월, 제3책은 1888년 12월~1890년 6월, 제4책은 1890년 7월~1893년 1월, 제5책은 1893년 2월~1894년 12월, 제6책은 1895년 1월~11월까지의 내용으로 총 약 10년의 걸쳐 기록되었으며, 한권당 평균적으로 13개월 정도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경기관초(京畿關草)』를 통해서 개항 이후 경기도(京畿道)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된 제반문제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
- 의정부(議政府) : 조선시대 백관(百官)의 통솔과 서정(庶政)을 총괄하던 최고의 행정 기관으로 조선 초기에 의정부(議政府)의 명칭과 직제가 갖춰지고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겪으면서 비변사(備邊司)에 밀려 최고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다가 1865년(고종 2년)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0년~1898년)의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다시 원래의 최고행정기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듯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2차 때 의정부를 폐지하고 내각(內閣)을 두며 의정부는 사라지게 되었다.
 - 관문(關文) : 관부(官府) 상호간에 보내고 받는 관용문서로서 동등한 관부 상호간 또는 상급관청(上級官廳)에서 하급관청(下級官廳)에 보낼 때 사용된 문서이다. 제도적으로는 평관(平關) 또는 관(關)이라고 지칭하였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81.

경기감영 각방중기

京畿監營各房重記

작성연대	1843년(헌종 9) / 1886년(고종 23) / 1889년(고종 26) / 1892년(고종 29)
편저자	경기감영(京畿監營)
크기	37,3×25,5 / 35×26,3 / 35,0×26,3 / 39,8×27,1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는 경기감영(京畿監營)에서 산하 각방(各房)에 속해 있는 각종 물품의 변동과 현존상황을 기록한 중기(重記)이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1843년(헌종 9) 작성된 1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1886년(고종 23), 1889년(고종 26)에 작성된 2건,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에 1892년(고종 29)에 작성된 1건이 소장되어 있다.

『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는 각각 총 1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경기감영의 각방에 소재한 한 해 동안의 물품을 정리한 기록이다.

내용의 구성은 감영에 속한 육방(六房)인 영고색(營庫色), 호방색(戶房色), 예방색(禮房色), 병방색(兵房色), 형방색(刑房色), 공방색(工房色)과 군수고(軍需庫)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후반부에는 각 감사 책임순으로 신비질(新備秩), 조비질(措備秩), 말폐질(抹弊秩), 수리질(修理秩) 등이 실려 있다.

1886년(고종 23), 1889년(고종 26), 1892년(고종 29) 작성된 『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는 각각 3년씩의 시간차이를 두고 총 9년간의 내용을 담고 있어 여러 감사의 책임기간 별로 별비질(別備秩), 조비질(措備秩), 신비질(新備秩) 등 9년간의 변동사항을 추적할 수 있고 19세기 경기감영(京畿監營)의 운영 구조와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각 업무 분장별로 보유 물품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해당 색(色)이나 창고의 역할과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방채전(放債錢)과 환곡을 운영하여 감영 재정을 보충하던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19세기 경기감영의 수입 구조를 볼 수 있는 자료이다.

-
- 중기(重記) : 해관하는 자가 전적(典籍), 전곡(錢穀), 기물(器物)을 뒤에 오는 관원에게 인계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한 재산목록 혹은 사무인계 문서라기보다는, 관사(官司)에서 재직관리가 항상 비치해두고서 일정한 기간마다 또는 재직기간 중에 일용(日用) 봉(捧)·하(下)를 합하여 기록하는 회계장부이면서, 관리교체 시의 사무인계문서가 된다. 중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호조에서 주로 전곡을 담당하는 출납회계를 감독할 목적으로 각 관사에게 작성토록 한 회계중기(會計重記). 둘째 각 관청이 소유하고 있거나 특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 비품 등의 출납상황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필요에서 작성된 비품출납중기(備品出納重記). 셋째, 관리가 교체될 때 인수하는 해당 관청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해유문서와 함께 작성되었던 해유중기(解由重記)가 있다.
 - 각방(各房) : 임시 관청인 도감(都監)에서 각각의 사무를 보던 곳으로 승정원과 지방 관아에서 6조(六曹)의 체제에 맞춰 각 소관분야를 나눈 것이며, 이방(吏房), 호방(戶房), 예방(禮房), 병방(兵房), 형방(刑房), 공방(工房)의 6방(六房)으로 나누어 사무를 담당하였다.

참고
문헌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http://jsg.aks.ac.kr>)

경기수영 각고도중기

京畿水使 解由文書

작성연대	1861년(철종 12)
편저자	경기수영(京畿水營)
크기	58,0 × 43,6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기수영각고도중기(京畿水營各庫都重記)』는 1861년(철종 12)에 경기수영(京畿水營)에서 각고(各庫)의 각종물품(各種物品)의 품목(品目)과 변동 및 현존상황을 기록한 총 1책(冊)의 필사본(筆寫本)이다.

『경기수영각고도중기(京畿水營各庫都重記)』는 각종 군기(軍器), 병선(兵船), 군수고(軍需庫), 공고(工庫), 병고(兵庫), 관청(官廳), 영선(營繕), 영창(營倉), 사창(司倉) 등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이 당시 경기수영(京畿水營)의 각고의 물품 목록 및 변동사항을 기록한 재정문서로서 19세기 후반 경기수영의 재정규모와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중기(重記) : 해관하는 자가 전적(典籍), 전곡(錢穀), 기물(器物)을 뒤에 오는 관원에게 인계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한 재산목록 혹은 사무인계 문서라기보다는 관사(官司)에서 재직관리가 항상 비치해두고서 일정한 기간마다 또는 재직기간 중에 일용(日用) 봉(捧)·하(下)를 합하여 기록하는 회계장부면서 관리교체 시 사무인계문서가 된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기영 신정사례

畿營新定事例

작성연대	1894년(고종 31)
편저자	탁지아문(度支衙門)
크기	34.0×23.0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영신정사례(畿營新定事例)』는 총 1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1894년(고종 31) 11월에 갑오개혁에 의하여 새로 마련된 경기감영(京畿監營)의 사례(事例)를 기록하였다.

탁지아문(度支衙門)은 갑오개혁 때 의정부(議政府) 아래 8아문의 하나로 설치되었다. 정부는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경기도 각 읍과 경기감영의 재정 운영 안으로 『기영신정사례(畿營新定事例)』와 『경기각읍신정사례(京畿各邑新定事例)』를 마련하였다.

『기영신정사례(畿營新定事例)』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정부는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경기도 각 읍과 경기감영의 재정운영지침을 새로 마련할 때 『경기각읍신정사례(京畿各邑新定事例)』와 함께 작성되었다.

내제(內題)에 ‘개국503년 갑오11월 기영신정사례(開國五百三年甲午十一月 畿營新定事例)’라고 하였으므로 1894년 11월임을 알 수 있으며, 표지에 ‘탁지아문지인(度支衙門之印)’이 찍혀 있고, 본문이 끝나는 부분에 ‘탁지아문(度支衙門)’이라고 쓰고 서압(署押)한 것이 확인되므로 탁지아문에서 편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표지에 탁지부 사세국(司稅局) 스탬프, 보존연한(保存年限) 스탬프가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탁지부에서 보관하며 활용하던 판본으로 보인다.

내용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맨 앞에 감영의 재정 운용 원칙을 절목의 형태의 18개 조목(條目)과 이후 세입·세출의 내역은 관찰사의 능황(廩貺), 관원과 영속(營屬)의 급료(料錢), 관청 운영비(柴油價), 영속(營屬)의 식대(入番糧價), 의복비(衣資), 예비비(紙價及不恒費) 등 먼저 지출 부분을 확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입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록하였다. 그 다음 경기도 각 읍이 부담할 금액을 후적으로 첨부하였다.

『기영신정사례(畿營新定事例)』로 살펴볼 수 있는 재정운영의 변

화는 재정은 돈으로 운영하여 회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각 읍은 탁지아문과 순영만을 상대하고 다른 기관을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하며, 감영 세입의 대부분을 경상 조세로 충당하고, 관원·관속의 급료를 경상지출에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기영신정사례(畿營新定事例)』는 경기감영 재정 운영의 구체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갑오개혁의 지방재정개혁 방향을 보여주는 사료로 볼 수 있다.

•갑오개혁(甲午改革) : 앞 항목 참조.

•탁지아문(度支衙門) :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이 추진되면서 6월 28일 군국기무처의 의안에 따라 궁내부(宮內府)와 의정부(議政府)로 나누고 의정부 아래 내무·외무·탁지·법무·학부·공부·군부·농상 등 8아문을 설치되면서 설치된 조선후기 국가 재무를 총괄하던 중앙행정관청이다. 소속 기관으로는 사세국(司稅局)·사계국(司計局)·출납국(出納局)·회계국(會計局)·서무국(庶務局)이 있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기영 장계등록

畿營狀啓騰錄

작성연대	1783년(정조 7)
편저자	경기감영(京畿監營)
크기	36.3×22.3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

『기영장계등록(畿營狀啓騰錄)』은 불분권(不分卷) 6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경기관찰사 심이지(沈頤之)가 경기도관찰사로 재임 시에 올린 장계를 모은 등록이다. 심이지는 1783년(정조 7) 6월 17일에 경기관찰사에 제수되어 1784년(정조 8) 8월 28일에 승지로 관직을 옮기기까지의 약 16개월의 관찰사 재임기간 중 1783년(정조 7) 6월 22일부터 1784년(정조 8) 6월 30일까지 약 13개월의 장계를 기록하였다.

본문 첫 장의 서명과 표지 서명, 서근제는 『기영장계등록(畿營狀啓騰錄)』이다. 표지 장황은 1971년 개장한 것이다. 각 권의 원 표지 우측에 ‘자계묘6월22일지동년10월12일(自癸卯六月廿二日至同年十月十二日)’ 과 같이 해당 기간을 기록해 두었다.

본문의 판식은 9행(行)의 오사란(烏絲欄)에 사주단변(四周單邊),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인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를 사용하였다. 지질은 일반적인 저지(楮紙)를 사용하였다. 글씨는 9행(行) 24~26자(字)에 맞추어 해서(楷書)로 썼다.

책의 상단에 본문의 해당 기사를 표시한 띠지를 붙여놓았다. 인장은 본문 첫 면에 ‘장서각인(藏書閣印)’ 과 ‘이왕가도서지장(李王家圖書之章)’ 이 날인되어있다.

『기영장계등록(畿營狀啓騰錄)』에는 총 257건의 문서가 등록되어 있는데, 4건의 별록을 제외하면 심이지가 13개월간 작성한 장계 수는 총 253건이었다. 별록의 내용은 심이지가 경기관찰사로서 입궐 하였던 내용을 해당 월말에 따로 적어놓은 것이다. 심이지는 평균 이틀에 3건 정도 장계를 작성하였다. 장계의 내용을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면 농사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구휼, 사법, 부세, 인사 순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사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각 군현 별 농형(農形)과 강수 여부를 알리는 것이었다. 진휼에 대한 장계

에서는 군현별로 버려진 아이를 데려온 날짜, 아이의 성명, 나이, 거주지, 지급된 곡물의 양을 보고하였다. 또한 연령별로 진휼곡의 지급량과 지급 방식을 설명하였으며, 쌀·미역·소금·장 등 진휼에 소요되는 품목도 상세히 기록하였다. 흉년이든 군현의 경우에는 결(結)의 수, 면세 액, 환곡의 처리 상황, 진상과 신역의 연기 내역 등을 작성하였다. 또한 심이지는 경기감사로 재임하는 동안 총 32회, 한 달 평균 2.5회 정도 입궐하여 왕을 친견하였는데, 등록에는 이러한 사실도 일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기영장계등록(畿營狀啓謄錄)』은 18세기 후반 경기관찰사가 수행한 다양한 업무와 사회 모습, 경기의 지역적 특징 등을 알려주는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

- 장계(狀啓) : 관찰사(觀察使), 병사(兵使), 수사(水使) 등 왕명을 받들고 외방(外方)에 있는 신하가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국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문서이다.
- 심이지(沈頤之) : 1735년(영조 11)~1796년(정조 20).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양오(養吾)로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1735년(영조 11)에 출생하여 1796년(정조 20)에 동지 정사(冬至正使)로서 북경으로 가던 도중에 사망하였다. 심이지는 나주목사(羅州牧使),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호조판서(戶曹判書), 수어사(守禦使), 정리사당상(整理使堂上), 광주유수(廣州留守)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정조대에 서유린(徐有隣, 1738년~1802년)·서유방(徐有防, 1741년~1798년) 형제와 더불어 노론 시파의 지도자로서 활약하였고 특히 김귀주(金龜柱, 1740년~1786년)가 이끄는 노론 벽파와 적대하였기 때문에 순조대 초반에 벽파의 공격을 받아 삭탈관작(削奪官爵)되었다. 이후 관작이 회복되었는데 관작이 회복되는 과정은 아들 심능정(沈能定, ?~?)이 저술한 『중유록(重柔錄)』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참고
문헌

-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http://jsg.aks.ac.kr>)

기전영사례

畿甸營事例

작성연대	1894년(고종 31)
편저자	의정부(議政府)
크기	28,6 × 17,8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전영사례(畿甸營事例)』는 총 4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의정부에서 1894년(高宗 31) 개성, 강화, 광주, 수원의 유수부(留守府)에서 올린 사례(事例)를 의정부에서 엮은 책이다.

제1책 『개국503년10월일개성부신정사례(開國五百三年十月日開城府新定事例)』는 ‘신정사례(新定事例)’이지만, 갑오개혁 직전까지의 재정 문제에 대한 기록이다. 응입질(應入秩)과 응하질(應入秩)을 통해 재정 수입과 지출의 대강을 밝히고, 이어서 각고질(各庫秩)을 통해 각 창고가 장악하고 있는 재정 운용 상황을 기록하였다.

제2책 『강도사례(江都事例)』는 건치연혁을 밝히는 등 읍지 형식을 띠다가, 군수고(軍需庫) 이후부터 각 창고별로 재정 운용을 상황을 기록하며, 병인양요(丙寅洋擾)와 신미양요(辛未洋擾) 이후의 강화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제3책 『갑오12월일광영사례(甲午十二月日廣營事例)』는 광주부(廣州府)의 재정 담당 창고와 사업 기관 별로 재정 운영 상황을 기록하고, 별도로 각 둔·환곡·전세 수입을 기록하였다. 특히 군항(軍餉)과 영고(營庫)의 당시 보유 자산을 파악하였는데, 이 두 창고가 정부의 금고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진다.

제4책 『화영사례(華營事例)』는 수원부(水原府)의 호총(戶摠), 전정소(田政所), 환총(還餉), 진제곡(賑濟穀)등의 항목을 통해 화성부의 호구수(戶口數), 전결수(田結數), 환곡 수량을 기록하고, 재정 담당 창고와 사업 기관을 열거하면서 각 기관 별로 재정 운영 상황을 기록하였다.

본 책은 당시 갑오개혁(甲午改革) 직전의 4도 유수부(留守府)의 재정 운영을 충실히 알 수 있는 사례로 1894년까지의 네 곳 유수부의 재정을 비롯한 제반 상황을 충실히 담고 있다는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사례와 같이 중앙 정부로 상송(上送)된 읍지를 묶은 『기전영지(畿甸營誌)』와 같이 검토한다면 갑오개혁 직전까지의 유수부 재정의 실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유수부(留守府) : 고려·조선시대 옛 도읍지나 행행지 및 군사적인 요지에 설치되었던 관서로 조선시대에는 개성, 강화, 수원, 광주 등에 설치되었다. 조선 초기에 설치된 개성부에는 종2품의 유수 2인이었으나 1인은 경기도관찰사가 겸하였으며, 종4품의 경력(經歷), 종5품의 도사(都事)가 각 1인씩 있었고, 부민(府民)의 교육과 향촌의 교화를 위하여 교수 1인을 두었으며, 이 밑에 경아전(京衙前)으로 서리(胥吏) 40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수도의 외곽을 방어하기 위하여 강화와 광주, 그리고 수원에도 유수부를 두었으나 이들은 군사적인 행정이 주된 임무였다. 조선후기에는 개성, 강화, 수원, 광주부의 4도(都) 체제를 유지하다가 1888년 춘천부가 유수부가 되면서 5도(都) 체제가 되었다. 5도 유수부는 1895년 5월지방제도 개혁 때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군(郡)으로 편제되었다. 개성은 개성군이 되어 개성부의 관찰부 소재지가 되었으며, 강화는 강화군으로 되어 인천부에 속하였으며, 수원은 수원군이 되어 인천부에 속하였고, 광주는 광주군이 되어 한성부에 속하였다. 춘천은 춘천군이 되어 춘천부의 관찰부 소재지가 되었다. 1896년에 13도제가 채택되면서는 수원·개성·광주·강화는 다시 경기도에 속하여, 수원은 수원군으로 경기도 관찰부 소재지가 되었고, 개성·광주·강화는 일반 군(郡)보다 격이 높은 부(府)가 되었다. 춘천은 춘천군이 되어 강원도 관찰부의 소재지가 되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기전영지

畿甸營誌

작성연대	1895년(고종 32)
편저자	의정부(議政府)
크기	28.7×18.0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전영지(畿甸營誌)』는 총 3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1895년(고종 32) 의정부에서 당시 전국적인 읍지 편찬의 일환으로 제작한 수원, 춘천, 강화부의 읍지로, 제1책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제2책 『춘천지(春川誌)』, 제3책 『강화부읍지(江華府邑誌)』로 구성되었다.

1413년(태종 13) 팔도제와 군현제 실시로 정착된 조선의 지방제도가 갑오개혁에 의해 1895년(고종 32) 23부와 군제로 개정되고, 1896년에는 13도제로 바뀌었다. 1894년에서 1895년까지 전국에 걸친 읍지 편찬은 갑오개혁에 의한 지방제도의 정리,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지방제정의 문란 등으로 인한 지방 실정 파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당시 전국적인 읍지 편찬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본(奎 12187)이 있고, 『한국지리지총서 읍지 10』와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1로 영인되었다.

제1책 『수원부읍지』는 폭원(幅圓), 읍명, 산천, 방리(坊里), 단묘(壇廟), 능원, 전우(殿宇), 행궁, 관해(官廨), 사원(祠院), 관직, 향관(鄕官), 장관장교(將官將校), 원역노령(員役奴令), 속읍역진목(屬邑驛鎭牧), 호구, 전결, 부세, 채용, 세입, 환향진곡(還餉賑穀), 군총(軍摠), 성곽, 산성, 봉수(烽燧), 교량(橋梁), 제언(堤堰), 둔전, 누대(樓臺), 지당(池塘), 각창(各倉), 각고(各庫), 장시, 사찰, 고적(古蹟), 과시(科試), 성씨, 인물, 충신, 효자, 효부, 열녀, 부사유수(府使留守), 관판(判官) 등 4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능원(陵園)」, 「전우」, 「행궁」 조(條)는 18세기 말 수원 신도시를 건설하고 화성행궁과 성곽을 축조한 정조와 관련된 기록이 많이 있으며, 「사원」과 「부세」 조(條)는 1871년(고종 8) 이후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호구수(戶口數)는 정조대에 편찬된 『수원부읍지』보다 적으나 전결수(田結數)는 거의 동일하다.

제2책 『춘천도호부』 부사례(附事例)는 읍지와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 읍지 부분의 항목 구성은 강계(疆界), 건치연혁, 관원,

군명(郡名), 성씨, 산천, 풍속, 누정, 학교, 역원(驛院), 창고, 불우(佛宇), 사묘(祠廟), 고적, 명환(名宦), 인물, 제영(題詠)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어 읍지의 내용을 보충하는 각양총록(各樣總錄)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은 건치연혁, 사계(四界), 호구, 명산, 대천, 역참, 각진(各津), 영험애구(嶺險隘口), 제약소(製藥所), 명현묘소(明賢墓所), 승지고적(勝地古跡), 사찰, 장시, 점막(店幕), 제언, 결총(結摠), 환향(還餉), 각군총(各軍摠), 경내대성(境內大姓)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춘천의 인구가 3,211호, 남자 5,983구, 여자 5,399구로 파악되었다. 읍지에 이어 사례가 수록되었는데, 읍지 부분이 14장인데 비해 사례 부분은 83장에 달해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책 『강화부읍지』는 1783년(정조 7) 부사 김노진(金魯鎭)이 편찬한 『강화부지(江華府志)』와 1889년(고종 26)에 증보한 읍지를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1에 강역(疆域), 고금사실(古今事實), 성씨, 풍속, 산천, 토산(土產), 성곽, 관량(關梁), 진보 부목장(鎭堡 附牧場), 돈대(墩臺), 봉수, 방리(防里), 제언, 도서(島嶼), 호구, 전부(田賦), 원세(元稅), 토공(土貢), 조적(糶糴), 포량(砲糧), 군수(軍需), 권2에 궁전(宮殿), 부해(府廡), 학교, 사단(祠壇), 누정, 능묘, 사찰, 직제(職制), 속관(屬官), 군제(軍制), 진무영(鎭撫營), 권3에 공사(貢士), 유수(留守), 경력(經歷), 판관(判官), 유애비(遺愛碑), 유우(流寓), 인물, 순난(殉難), 절효(節孝), 열녀, 권4에 문과, 음사(蔭仕), 연방(蓮榜), 처사(處士), 무과, 고적 등으로 이루어졌다. 증보된 것은 주로 19세기 서양 세력의 침투로 인한 병인양요, 신미양요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 폭원(幅圓) : 땅의 넓이 또는 지역의 넓이

• 김노진(金魯鎭) : 1735년(영조 11) ~ 1788년(정조 12), 본관은 강릉으로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1757년(영조 33)에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되었다. 1781년(정조 5) 형조판서가 되어 형조의 관장사무·판결 및 처형에 관한 절차의 관리를 통일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낭관 박일원(朴一源)에게 위촉하여 『추관지(秋官志)』를 편찬하게 하였다. 또한, 『국조보감(國朝寶鑑)』의 찬집당상도 겸임하였다. 편서로는 『강화부지(江華府誌)』가 있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4

공·사문서
公·私文書

1401년 사패왕지賜牌王旨
1633년 경기수사京畿水使 해유문서解由文書
1660년 노 산복山福 소지所志 1
1660년 노 산복山福 소지所志 2
1660년 노 산복山福 의송議送
1756년 정홍순鄭弘淳 유서諭書
1756년 정홍순鄭弘淳 영서수書
1794년 경기암행어사봉서京畿暗行御史封書
1798년 경주인京主人 오성흡吳聖洽 고목告目
1798년 양천현령陽川縣令 임흥원林弘遠 서목書目
1799년 경기감사京畿監司 감결甘結
1799년 노문路文
1799년 양천읍리陽川邑吏 사통私通
1803년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 관關
1817년 박현익朴顯翼 의송議送
1821년 광주부廣州府 입안立案
1842년 서중보徐中輔 등 상서上書
1845년 이천도호부사利川都護府使
해유문서解由文書
1846년 김원정金源鼎 등 상서上書
1847년 박정석朴鼎錫 단자單子
1875년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감결甘結
1875년 시흥현령始興縣令 관關
1887년 임영근任永根 단자單子
1887년 임영근任永根 산도山圖

1401년 사패왕지

賜牌王旨

작성연대	1401년(태종 1년)
발급자/수취자	국왕(태종) / 조흡(曹恰)
크기	80,0×71,7
소장처	동국대학교 박물관

1401년(태종 1) 중훈대부(中訓大夫) 지안산군사(知安山郡事) 조흡(曹恰)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왕명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토지를 하사하면서 내린 사패 왕지이다.

1401년(태종 1) 중훈대부 지안산군사 조흡이 경진난(庚辰亂)을 막고 태종을 호위한 공을 가상히 여겨 토지와 노비를 하사할 때 발급한 문서이다.

중훈대부 지안산군사 조흡에게 수원 임내(任內)의 유제지(楡梯地, 수원 안녕면 지역) 천자정(天字丁) 5결, 정송지(貞松地, 화성군 팔탄면 지역) 현자정(玄字丁) 5결, 천녕지(川寧地, 여주 흥천면 지역) 운자정(雲字丁) 5결, 광주지(廣州地) 거자정(鉅字丁) 5결, 봉상시 비 우근이(汚斤伊), 완산부 관비 복비(福婢)를 사급하니 자손대대로 전하여 가지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첫째 행의 ‘賜’는 한 자 높여 쓰기 시작하여, 그 다음 행은 수취자의 관직명+성명을 차례대로 적어놓았으며, 3행부터 6행까지 5줄에 걸쳐 수취자의 공로를 치하하며 사급하는 토지와 노비의 내역을 적었다. 문장은 이두(吏讀)를 섞어서 사용했다. 6행의 마지막 부분부터는 사패 문서의 종결 투식에 따라 ‘賜給爲臥乎事是等, 子孫傳持者. 문서발급 연월일, 伏奉王旨安印’을 적었고, 마지막 행에는 문서 발급 관원의 관직명, 성,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인장은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 찍혀 있다.

이 문서는 현재 보물 899호로 지정되어 있다.

-
- 조흡(曹恰): 생물년 미상. 본관이 창녕(昌寧)으로 창성부원군(昌城府院君) 조민수(曹敏修)의 손자이며, 정종~세종 때 활약한 무신이다. 지안산군사(知安山郡事)를 비롯하여 경차관(敬差官), 우군첨총제(右軍僉摠制), 전라도절제사(全羅道節制使), 영길도도순문사(永吉道都巡問使), 평안도절제사(平安道節制使), 도총제(都摠制) 등을 역임하였다.
 - 사패(賜牌): 조선시대 국왕이 신하에게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거나, 공이 있는 향리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해줄 때에 내리는 문서.
 - 중훈대부(中訓大夫): 문관 종3품 품계.
 - 경진난(庚辰亂): 조선 정종 2년(1400) 경진(庚辰)에 태조의 넷째 아들 방간(芳幹)이 박포(朴苞)와 함께 일으켰던 난. 방간(芳幹)의 난이라고도 불림.
 - 정(丁): 일정 면적의 토지를 의미. 5결의 토지를 하나의 정으로 구분하고, 천자문의 순서대로 지번을 매겨 작성했다. 예를 들어, 천자정(天字丁)은 ‘천자(天字)의 지번이 매겨진 5결의 토지’ 라는 의미이다.

참고
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1633년 경기수사 해유문서

京畿水使 解由文書

작성연대	1633년(인조 11)
편찬자	경기수사(京畿水使) / 병조(兵曹)
크기	45.0 × 332.0
소장처	경주 이조 경주최씨·용산서원

1633년(인조 11) 경기수사(京畿水使) 최진립(崔震立)의 해유(解由)를 위해 작성된 관문서이다. 후임관(後任官)이 병조(兵曹)에 올린 해유첩정(解由牒呈)과 호조(戶曹)로 해유이관(解由移關)한 문서가 점련(粘連)되어 있다. 이는 조선시대 해유 절차와 문서 행이(行移)체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해유문서란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관에게 그 사무와 관리하던 물품을 인계하고 재직 중의 회계와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련의 관문서이다.

본 문서는 가선대부·전수군절도사 최진립의 해유를 위한 것으로, 1633년(인조 11) 7월 후임관이 병조에 올린 해유첩정과 병조에서 검토 후 호조로 보낸 해유이관(解由移關)이 점련되어 있다.

해유첩정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전임자의 관직, 관직을 제수 받은 날짜 및 체직한 날짜, 근무 일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개명(改名)의 유무, 도임 후 왜적의 침입이나 약탈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재임기간 동안 관리하던 모든 물품의 상황을 개록(開錄)한다. 최진립의 경우, 개명한 이력이 없고 도임 후 왜적의 침입 및 약탈이 없었으며, 1630년(인조 8) 12월 18일에 본 직무를 맡아 1631년(인조 9) 1월 17일 배사(拜辭)하고, 1633년(인조 11) 7월 8일 교체되었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는 906일이다. 또한 수군절도사로서 관리하고 있던 인신(印信), 제1전선(第一戰船)·제2전선(第二戰船)·기타 선척, 각궁(角弓)·총통(銃筒) 등 군기, 군량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해유절차에서 재정관계는 호조에, 군기관계는 병조에 관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본 문서는 병조로 보낸 것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작성 시기가 적혀있고 문서의 발급자인 후임관이 서명하였고, 원편에 ‘해유(解由)’라고 적었다.

아울러 병조에서 위 첩정의 내용을 검토한 뒤 이상이 없으므로

상고하여 시행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관(關)과 위 첩정을 접련하여 호조에 해유이 관하였다. 1633년(인조 11)에 작성되었고, 연도 좌측에 역시 ‘해유(解由)’라고 적었다.

본 자료는 조선시대 해유 과정에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과 더불어 해유의 절차 및 행이체계, 해유의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 최진립(崔震立) : 1568년(선조 1) ~ 1636년(인조 14), 字는 사건(士建)이다.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 최득정(崔得汀)의 증손으로 1594년에 무과에 급제, 1600년 여도만호 겸 선전관(呂島萬戶兼宣傳官)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1607년 도총도사에 제수되자 비로소 관직에 나갔다. 경흥부사·공조참관을 거쳐 1630년 경기수사로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를 겸하였다.
 - 해유(解由) : 전임관과 후임관의 인수인계 과정으로서 공물품(公物品)의 휴흠(虧欠)을 가려내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도적 보완 장치로서 녹봉(祿俸)과 인사 문제를 연계시킨다. 따라서 모든 해유문서는 병조·호조·이조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되어 있었다.
 - 첩정(牒呈) :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문서.
 - 관(關) :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내거나 동등 관청 간에 서로 오고가는 문서.
 - 배사(拜辭) : 지방관이 부임할 때에 전정(殿庭)에 나아가 임금께 숙배(肅拜)하고 하직(下直)하는 일.
 - 인신(印信) : 도장, 관인 등을 지칭.

참고
문헌

조미은, 조선 후기 수령의 해유문서 형식과 해유절차 연구, 고문서연구, 2018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1660년 노 산복 소지 1

奴 山福 所志 1

작성연대	1660년(현종 1)
발급자/수취자	산복(山福) / 금천관(衿川官)
크기	71.5 × 171.2(점련문서)
소장처	해남 연동 해남윤씨 녹우당

1660년(현종1) 양주(楊州) 윤참의댁(尹參議宅) 호노(戶奴) 산복(山福)이 해남윤씨 연동 종가의 종인 말룡(耑龍)과 처(妻) 안심(安心) 사이에서 5명의 소생들을 자신의 노비라고 주장하여 빼앗아 간 정복량(鄭復良)을 잡아다 노비들을 추심해 달라고 청원하는 소지(所志)이다.

본 문서는 1660년(현종1) 4월, 양주(楊州)에 사는 윤참의댁 호노(戶奴) 산복(山福)이 야밤에 갑자기 들어와 상전의 노비들을 부당하게 잡아간 정복량(鄭復良) 등을 금천현감(衿川縣監)에게 고발하며 바르게 처결해 주시기를 요청한 내용의 문서이다.

말룡(耑龍)과 양처(良妻) 안심(安心) 사이의 자식 비(婢) 대례(大禮, 1623년생), 노(奴) 대근(大斤, 1625년생), 비 개례(介禮, 1629년생), 비 개질월리(介叱月里, 1632년생), 노 태근(太斤, 1635년생) 등 5남매를 거느리며 아무 문제없이 지내다가 말룡이 죽은 후 안심은 윤연산(尹連山)댁 노 성길(成吉)과 결혼하여 살았다. 그 후 안심이가 말하길, “생전 알지 못하는 금천(衿川)에 사는 정복량(鄭復良)이라는 자가 밤에 갑자기 들어와 아버지 정병(正兵) 김언세(金彦世)가 그의 노 언복(彦福)의 소생이라 하며 말룡과 저 사이에 난 비 대례, 노 대근, 비 개질월리, 노 태근 등 4구를 불시에 빼앗아 잡아 갔습니다.” 라고 하였다. 상전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이하게 여겼지만 윤참의댁에서 해남(海南)은 거리가 멀고 일일이 찾아내어 변별하기도 쉽지 않고, 집에 일이 많아 우선 내버려두었다가 이때서야 차노(差奴)를 보내 서산관(瑞山官)에 소장을 올려 변별하도록 했다. 서산 사또는 관련자들에게 받은 초사(招辭), 호적등본(戶籍騰本), 안심의 새 남편인 성길이 이전에 올렸던 입지(立旨)를 모두 소장에 점련(粘連)해주며 피고가 살고 있는 고을의 사또에게 가서 변별하라고 하였다. 이후 산복의 상전이 금천관에 소장을 올려 정복량을 심문하려던 차,

다시 성길의 소지를 살펴보고는 ‘정복량이 구승원(具承元)과 반씩 갖기로 했다.’는 말을 보게 되었다. 구승원이 본인의 외가 쪽 열사촌(擘四寸)인데 지금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의 친척 소생인 구정(具楨)이 서울에 살고 있어 구정에게 전말을 물으니, 구정이 말하기를 “노비를 잡아올 때 본인(具楨)은 어렸지만 아버지를 따라 동행했었는데, 이 일은 정복량의 소행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죽은 내 아버가 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즉 구정 부자(父子)가 계획한 일로, 그들이 직접 하면 윤참의택에 들킬 염려가 있어 정복량을 끌어들인 것이었다. 또 “죽은 아버지(具承元)의 처가 쪽 노와 말룡의 처 안심의 아버지(金彦世)의 이름이 비슷해 착오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노비 4구는 급히 쓸 일이 있어서 서울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라 말했다.

그러나 노 산복은 관찰사께 의송을 올리면서 구정 부자가 이 노비들을 자신의 노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노 대근이를 정복량이 팔도록 일임했다는 것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는 반드시 구정 부자가 노비들을 훔쳐 팔기로 계획했을 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며 잡아간다면 상전이 추변(推卞)하여 일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여겨서 노비 1구를 정복량에게 주고, 정복량으로 하여금 그 노비들을 모두 그의 노비라고 칭하게 하면서 잡아간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에 구승원의 아들 구정을 형조(刑曹)에 고발하여 팔려간 안심의 1소생 비 대례와 그 소생 노 인룡, 4소생 비 개질월리를 찾았지만 안심의 2소생 노 대근과 5소생 노 태근은 정복량이 판 거처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산복은 이 사건을 모두 아뢰고 서산관에서 발급받은 입지를 금천현감에게 바치면서 정복량을 잡아와 윤참의택 노비들을 강제로 빼앗아간 이유와 구승원에게서 노 대근과 태근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추문하여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이 올리는 원소지에 점련하여 제급해 훗날 참고로 삼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 노 대근과 태근을 찾는 동안 정복량을 가두어 다른 사람의 노비를 불법으로 차지한 죄를 독촉하심으로써 압량위천(壓良爲賤) 죄와 다른 이의 노비를 모점(冒占)한 죄를 벌해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금천현감은 4월 12일에 “同鄭復良乙 推關次以 掇來(정복량을 심문하기 위해 잡아오라).”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
- 교가(交嫁) : 출가(出嫁)시킴. 또는 출가함.
 - 초사(招辭) : 조선 시대에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한 말 또는 글로서 공사(供辭)라고도 한다.
 - 척재관(隻在官) : 척(隻)은 한쪽 편을 가리키는 말로 피고(被告)가 살고 있는 고장의 지방관(地方官)이다.
 - 얼사촌(孽四寸) : 얼(孽)은 서자, 천첩 소생이므로, 외가의 천첩 소생인 사촌이라 생각할 수 있다.
 - 압량위천(壓良爲賤) : 양민을 불법으로 노비로 만드는 일.
 - 관련문서 : 1660년 정복량(鄭復良) 초사(招辭)

참고
문헌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1660년 노 산복 소지 2

奴 山福 所志 2

작성연대	1660년(현종 1)
발급자/수취자	산복(山福) / 형조(刑曹)
크기	34.3×25.0
소장처	해남 연동 해남윤씨 녹우당

1660년(현종 1) 윤참의택 호노(戶奴) 산복(山福)이 상전의 노비를 불법으로 잡아가 관 구정(具楨)을 고발하는 문서이다. 산복의 상전인 윤참의택 노 말룡과 양녀 안심 사이의 소생 4구를 정복량이 부당하게 잡아가 구정 부자와 함께 팔아먹은 사건에 관한 내용으로 산복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관청에 사건의 전말을 기재한 소지를 올린 바 있다.

본 문서는 양주(楊州)에 사는 윤참의택(尹參議宅) 호노(戶奴) 산복(山福)이 상전의 노비들을 불법으로 잡아가 팔아먹은 구정(具楨)을 형조(刑曹)에 고발하는 내용으로 앞서 제출한 문서에 이어 추가로 올린 것이다.

산복의 상전인 윤참의택 노 말룡(耑龍)과 양처(良妻) 안심(安心)과 낳은 소생 4구를 정복량이 부당하게 잡아가 구정 부자와 함께 팔아먹은 사건에 관해 매우 원통하니 구정을 법에 따라 엄히 가두어 폐단을 끊고, 국법을 밝게 집행해달라는 내용의 소지를 올렸다.

관련된 다른 문서들을 통해 윤참의의 외일사촌 구승원(具承元)과 구정(具楨)부자가 계획적으로 정복량(鄭復良)을 끌어들여 윤참의택 노비 4구를 잡아가 팔아먹었으며, 산복의 상전은 이 일을 알아낸 뒤 형조에 구정을 고발하면서 정복량을 잡아와 그가 팔아먹은安心的 1소생 비 대례(大禮)와 그 소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소지를 올렸었다.

결락으로 인해 일부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관련 문서를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전말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문서로 인해 산복의 상전 윤참의는 잃어버린 노비의 일부를 찾을 수 있었다. 당시 노비의 소유권 소재(所在)와 추심(推尋) 과정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
- 열사촌(擘四寸) : 열(擘)은 서자, 천첩 소생이므로 외가의 천첩 소생 사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관련 문서 : 1660년 노 산복(山福) 소지(所志), 1660년 노 산복(山福) 의송(議送)

참고 문헌 |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고문서집성 3-해남윤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660년 노 산복 의송

奴 山福 議送

작성연대	1660년(현종 1)
발급자/수취자	산복(山福) / 경기감영(京畿監營)
크기	67.5×70.4cm
소장처	해남 연동 해남윤씨 녹우당

1660년(현종1) 윤참의택(尹參議宅) 호노(戶奴) 산복(山福)이 상전의 노비들을 부당하게 잡아간 정복량(鄭復良) 등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의송이다.

1660년(현종1) 4월에 양주에 사는 윤참의택 호노 산복이 경기도관찰사에게 상전의 노비들이 부당하게 잡혀간 사건을 고발하면서 사건을 맡은 금천관에서 바르게 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부당하게 잡혀간 노비들은 윤참의택 노 말룡과 양녀 안심 사이의 소생 4구이다.

이 문서는 1660년(현종1) 4월, 양주(楊州)에 사는 윤참의택 호노(戶奴) 산복(山福)이 야밤에 갑자기 들어와 상전의 노비들을 부당하게 잡아간 정복량 등을 금천현감(衿川縣監)에게 고발하며 바르게 처결해 주시기를 요청한 내용의 문서이다.

말룡(謫龍)과 양처(良妻) 안심(安心) 사이의 자식 비 대례(大禮), 노 대근(大斤), 비 개례(介禮), 비 개질월리(介叱月里), 노 태근(太斤) 등 5남매를 아무 문제없이 부리고 있었는데, 말룡이 죽은 후 안심은 윤연산(尹連山)택 노 성길(成吉)과 결혼해서 살았다. 그 후 생전 알지 못하는 금천(衿川)에 사는 정복량이라는 자가 밤에 갑자기 들어와 아버지 정병(正兵) 김언세(金彦世)가 그의 노 언복(彦福)의 소생이라 하면서 말룡과 안심 사이에 난 비 대례, 노 대근, 비 개질월리, 노 태근 4구를 빼앗아 가버렸고, 상전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이하게 여겼지만 윤참의택에서 해남(海南)은 멀기도 하고 집에 일이 많아 우선 내버려두었다가 지금에서야 차노를 보내 서산관(瑞山官)에 소장을 올렸다. 서산관주(瑞山官主)는 관련자에게서 받은 초사(招辭), 호적등본(戶籍騰本), 성길의 입지(立旨)를 소장에 점련(粘連)해주면서 척재관에게 가서 변별하라고 했다. 이후 산복의 상전이 금천에 소장을 올려 정복량을 심문하려던 차에 성길의 소지를 보고 정복량이 구승원(具承元)과 반씩 나누어 갖기로 했다는 말을 발견했다.

이에 구정을 형조(刑曹)에 고발하여 팔려간 안심의 1소생 비 대례와 그 소생 노 인룡, 4소생 비 개질월리를 찾았지만 안심의 2소생 노 대근과 5소생 노 태근은 정복량이 판 거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모든 전말과 서산관에서 발급받은 입지를 세세히 살핀 뒤 정복량을 잡아와 이 노 비들을 불법으로 빼앗아 구승원에게 넘겼는지, 노 대근과 태근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엄히 추문하여 초사를 받은 뒤 이 초사를 제출한 소지에 점련하여 훗날 참고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 노 대근과 태근을 찾는 동안 정복량을 옥에 엄히 가두어 타인의 노비를 불법으로 차지한 죄에 대해 처벌해 주실 수 있도록 금천관에 각별히 명령해주실 것을 청하였다.

•윤참의: 윤선도(尹善道), 1587~1671, 본관은 해남(海南), 자는 약이(約而), 호는 고산(孤山)·해옹(海翁). 1628년(인조 6) 별시문과(別試文科) 초시에 장원으로 합격해 봉림대군(鳳林大君)·인평대군(麟坪大君)의 스승이 되었고, 1633년(인조 11) 증광문과에 다시 급제하였다. 공조좌랑(工曹佐郎)·형조정랑(刑曹正郎)·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예조정랑(禮曹正郎)·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등을 역임했다.

•모점(冒占): 법을 어기면서 남의 재산을 차지함.

•관련문서: 1651년 노 성길(成吉) 입지(立旨)

1660년 양녀 안심(安心) 초사(招辭)

1660년 노 산복(山福) 소지(所志)

참고
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1756년 정홍순 유서

鄭弘淳 諭書

작성연대	1756년(영조 32)
발급자/수취자	영조(英祖) / 정홍순(鄭弘淳)
크기	57.0×173.4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756년 경기관찰사·검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개성부유수·강화부유수(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開城府留守江華府留守) 정홍순(鄭弘淳)에게 밀부(密符) 제20부와 함께 내린 밀부유서(密符諭書)이다.

1756년(乾隆 21) 윤 9월에 경기관찰사·검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개성부유수·강화부유수·광주부유수(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開城府留守江華府留守廣州府留守) 정홍순에게 밀부 제20부와 함께 내린 밀부 유서로 한 지역을 맡은 책임이 가볍지 않으니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고 특별한 일이 발생하여 독단적으로 처리할 일이 생기면 부절(符節)을 맞추어 보아서 의심이 없다면 밀부에 따라 처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정홍순(鄭弘淳) : 1745년(영조 21)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설서·이조정랑·지평·교리·이조참판 등을 거쳐 평안도관찰사가 되었다. 이후 호조판서로 10년 간 재직하면서 재정 문제에 특히 재능을 발휘하여 당대 제일의 재정관으로 명성을 날렸다. 1762년 호조판서로서 예조판서를 겸해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상(喪)에 장의를 주관하면서, 장헌세자의 의복과 금침에서부터 악모대리(幄帽帶履) 등 미세한 것까지 한쪽씩 떼 내어 그때의 문부(文簿)와 함께 봉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1777년(정조 1) 정조가 즉위한 다음 해, 앞서 세자의 장례 때 상례의 풍부 여부를 알고자 당시 예조판서였던 그를 대령하게 했는데, 그가 곧 서리를 시켜 당시 간직해두었던 것을 내어다 보이자 정조는 부장품이 풍부하고 예에 빠진 것이 없음을 보고 매우 가상히 여겨 곧 우의정에 제수했다. 정승이 된 뒤에도 미세한 일일까지 검

소와 절약으로 일관하였다. 시호가 정민(靖敏)으로 내려졌다가 뒤에 충헌(忠憲)으로 개시(改謚)되었다.

•유서(諭書) : 조선시대에는 한 지방의 군사권을 위임받은 관찰사·절도사·방어사·유수(留守) 등이 왕명이 없이 자의로 군사를 발동하거나 역모에 의한 동병(動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밀부(密符) 제도가 있었다. 밀부는 제1부(符)부터 제45부까지 있었다. 비상 명령이 내려지면 그 관원이 간직하고 있던 반쪽의 부와 왕이 보낸 반쪽의 부를 맞추어 의심할 바가 없을 때 명령대로 거행하게 된다. 조선 전기의 발병부(發兵符)는 그 형체가 둥글고 한 면에 ‘발병(發兵)’이라 쓰고, 그 뒷면에는 ‘모도관찰사(某道觀察使)’ 또는 ‘모절도사(某節度使)’라고 썼다.

조선 후기의 밀부의 형체는 원형이었는데, 한 면에는 ‘제기부(第幾符)’, 뒷면에는 ‘어압(御押)’을 표시하고 둘로 나누어 우부는 해당 관원에게 주고 좌부는 대내에 간직하였다. 동병할 일이 있을 때 합부(合符)해 간모(奸謀)를 방지하는 일은 전과 같았다. 국왕이 밀부를 관원에게 내릴 때 함께 내리는 유서는 그 관원에게는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으로서 유서통(諭書筒)에 넣어 항상 지니고 다녔다. 이 문서의 서식은 『전율통보(典律通補)』에 실려 있었다. 현전하는 문서 중 1592년(선조 25)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김성일(金誠一)에게 내린 유서와 1800년(정조 24) 황해도병마절도사 이성묵(李性默)에게 내린 문서는 그 문서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밀부(密符) : 왕이 유수(留守)·관찰사(觀察使)·총융사(摠戎使)·수어사(守禦使)·통제사(統制使)·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 등에게 주어 병란(兵亂) 등에 대비하여 유사시에 발병(發兵)할 수 있도록 했다. 모양은 둥글넓적한 나무패로 한 면에 ‘第○符’라 쓰고, 다른 면에 임금의 이름을 친서(親書)·수결(手決)하여 그것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관리들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궐내에 보관하였다.

참고
문헌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1756년 정홍순 영서

鄭弘淳 令書

작성연대	1756년(영조 32)
발급자/수취자	왕세자 / 정홍순(鄭弘淳)
크기	91.0×359.8
소장처	원소장처 : 안성 동래정씨 포천 정홍순가

1756년(영조 32) 정홍순을 경기관찰사□검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개성부유수□강화부유수□광주부유수(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開城府留守江華府留守廣州府留守)에 제수하면서 그 직책을 훌륭히 수행할 것을 훈유하는 왕세자의 영서(令書)이다.

1756년(영조 32) 왕세자인 사도세자(장조)가 정홍순을 경기관찰사·검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개성부유수·강화부유수·광주부유수에 임명하면서 정홍순의 훌륭한 인성과 능력을 들어 변방의 중요한 지역을 다스리는 직책을 맡긴다고 적었다.

그리고 백성을 다스릴 때에 ‘대우패독(帶牛佩犢)’의 고사를 들어 농사를 권장하여 수재(水災)나 가뭄이 오더라도 굶주리는 백성이 없게 하고 송사 등의 일처리를 공정하게 하라는 뜻을 전하면서 세자 자신의 뜻을 잘 알아 실천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 문서는 왕세자가 내리는 영서로 왕이 내리는 교서(敎書)와 서식은 같지만, 교서의 ‘왕약왈(王若曰)’ 대신 ‘왕세자약왈(王世子若曰)’을 쓰고, 교서 결사인 ‘고자교시(故茲敎示)’ 대신에 ‘고자영시(故茲令示)’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또한, 인장은 교서에 찍는 시명지보(施命之寶)와 달리 왕세자인(王世子印)을 찍었다.

- 정홍순(鄭弘淳) : 1720년(숙종 46) ~ 1784년(정조 8), 1745년(영조 21) 문과에 병과로 급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호조판서로 10년간 재직하면서 당대 제일의 재정관으로 명성을 날림.
- 영서(令書) : 왕세자가 대리청정(代理聽政)할 때 왕의 교서(敎書)를 대신하여 발급한 문서.

•대우패독(帶牛佩犢) : 칼을 팔아 소를 산다는 뜻. 중국 한나라 선제(宣帝) 때 발해에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칼을 가지고 도둑질을 하므로, 공수(龔遂)가 태수가 되어 칼을 팔아 소를 사라고 가르쳤다는 옛일에서 온 말.

참고 문헌 |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1794년 경기 암행어사 봉서

京畿暗行御史封書

작성연대	1794년(정조 18)
발급자/수취자	국왕(정조)/ 경기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크기	38,0×97,0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794년 정조가 경기암행어사에게 내린 봉서로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이유와 암행어사가 파견을 나가서 해야 할 일을 조목에 따라 상세하게 알려준 문서이다.

1794년에 정조가 경기암행어사에게 보낸 봉서로 암행어사는 수령의 잘잘못을 규찰(糾察)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는 것이 직분이고 암행어사가 비단 옷을 입고 도끼를 쥐는 것은 은총을 드러내고 권위를 높이는 표식이며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것은 왕이 구중궁궐(九重宮闕) 속에 있어 백성들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암행어사로 하여금 관부(官府), 장시(場市), 촌락(村落)에 출몰해서 여러 가지 일을 뽑아 가려서 조정에 돌아와서 하나하나 나열해서 아뢰면 황년(荒年)의 정치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본문 내용이며 그 조항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한 4가지 조항 중 첫 번째는 흉년에 조세를 감해주는 것이 실제 수량과 같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령(守令)과 이향(吏鄕)이 개인적으로 쓰거나 몰래 훔치기에 별도로 더 살펴볼 것을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산전(山田)과 화전(火田)의 세금을 남징(濫徵)하는 폐단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지난번 완백(完伯)의 장계(狀啓)에 따라 여러 도에 엄칙했으니 효과가 있는지를 각별히 살피고 범하는 자를 일에 따라 아뢴 것을 말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지난번 진휼청(賑恤廳) 초기(草記)에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키우는 일을 경외(京外)에 엄칙했었는데 잘 실행하고 있는지와 관에서 보내준 곡식이 중간에서 소모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무엇을 정지했는지는 모르나 대납(代納)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견휼(緡恤)조건과 비교해 보고 고찰(考察)해서 논계(論啓)하도록 경기암행어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보이지는 않으나 봉서의 곁에는 ‘도남모처개탁(到南某處開拆)’이라는 문구가 있어 남쪽 모처에 이르러 열어보도록 하였다.

-
- 봉서(封書) : 임금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내리는 문서로서 감찰할 대상지방의 제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일을 원만히 수행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과 그 일을 수행하는 데에 준칙이 되는 사목(事目) 또는 절목(節目)과 마패·유척(鋸尺) 등을 내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 완백(完伯) : 조선시대 전라도관찰사를 가리킨 이칭.
 - 진휼청(賑恤廳) : 흉황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의 하나로, 1525년(중종 20)에 설치된 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폐지되기까지 370년 동안 약간의 변경을 거치며 존속하였으며 담당 낭청(郎廳)의 주관 하에 계사(計士)·서리·고직(庫直) 등의 직원들이 선혜청 당상의 지휘를 받으며 구휼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 초기(草記) : 정무 상 중대하지 않은 사항을 그 내용만 간단히 적어 올리는 서식이다. 수령도 국왕에게 초기를 올릴 수 있다. 초기는 담당 승지에 의하여 국왕에게 올려지는데, 국왕은 이를 살펴보고 처분을 내리게 되며, 초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관서에 하달하게 된다.
 - 견휼(蠲恤) : 조세 따위를 가볍게 덜어 주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함.

참고 문헌 |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1798년 경주인 오성흡 고목

京主人 吳聖洽 告目

작성연대	1798년(정조 22) 1월~9월
발급자/수취자	경주인(京主人)/양천현령(陽川縣令)
크기	38.6×28.8 등
소장처	나주 회진 나주임씨 창계 후손가

1798년(정조 22) 1월에서 9월까지 경주인(京主人) 오성흡(吳聖洽)이 양천현령(陽川縣令) 임홍원(林鴻遠)에게 보낸 고목(告目)으로 총 12건이 전하고 있다. 경주인 오성흡(吳聖洽)이 새로 제수된 양천현령 임홍원(林鴻遠)에게 부임에 필요한 각종 업무와 물자 구입에 관한 일을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수령이 새로 부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및 물자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와 같은 물자들을 어떻게 구입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주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맡아보는지 조선시대 수령의 부임 초에 업무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

1798년(정조 22) 1월에서 9월까지 경주인(京主人) 오성흡(吳聖洽)이 새로 부임한 양천현령(陽川縣令) 임홍원(林鴻遠)에게 필요한 각종 업무와 물자 구입에 관한 일을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의 고목(告目)이다. 고목은 경주인 오성흡이 양천현령 임홍원에 보고할 때 사용한 문서로 전반부에 의례적으로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내용은 “황공하여 땅에 엎드려 문안드리며 안전(案前)의 기체후(氣體候)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사모하는 마음 그지 없고 저의 정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는 “삼가 매우 기쁜 마음을 이루 다 할 수 없습니다.”와 같이 안부를 묻고 그 다음 오성흡이 처리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각종 업무에 관한 것으로는 이조제조사채(吏曹除朝辭債)와 이조류대패(吏曹留待牌), 보진채(補陳債), 참알채례(參謁債例) 등의 처리가 있다. 무오 1월 12일 고목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홍원이 단골서리에게 분부하였는데 단골서리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여 본인이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 애로사항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무오 1월 26일 고목에서는 청송당(聽松堂)이 무엇인가를 요청하면서 보낸 편지를 부쳤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를 통

해 무엇인가 청탁할 내용이 있을 때 경주인을 매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무오 2월 27일 고목에서는 행보석(行步席)과 병조기병(兵曹騎兵) 1명을 병조에 이관한 후 받은 병조사문(兵曹尺文)의 처리내용과, 총융사(摠戎使) 김지묵(金持默)의 복직소식을 보고하였다. 행정절차상의 업무로는 무오 9월 11일 고목에서 임홍원이 전에 근무하던 선공감(繕工監)에서 전직(轉職)에 따른 예목(禮木)을 오성흡에게 요청하였는데 오성흡은 3개월 이내에 전직할 경우에는 예목을 올리지 않는다는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예목을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선공감이 더 이상 예목을 재촉하지 못하도록 임홍원에게 직접 예목을 납부하지 말라는 공문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조선시대 관리들의 전직에 따른 예목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임홍원은 다양한 물자를 구입하라고 오성흡에게 분부하였다. 이에 따라 오성흡은 자임(子任), 혜자(鞋子)를 구입한 일(무오 1월 11일 고목), 흑화(黑靴)를 마련한 일(무오 1월 26일 고목), 질 좋은 4량 짜리 거울(무오 3월 12일 고목)과, 황필(黃筆) 두 자루를 구입한 일(무오 4월 22일 고목)을 보고하였다. 또 개를 거래한 명세서인 발기(件記)를 조사해 달라는 임홍원의 분부에 건기가 아무 문제가 없음을 보고하였다(무오 8월 5일 고목). 이러한 본 문서들을 통해 조선시대 지방 수령이 경주인을 통해 물건을 입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무오 9월 18일 고목에서는 오성흡이 임홍원에게 용인(龍仁)의 경주인 조영필(趙榮必)로부터 보채전(報債錢) 52량을 받았으며, 이 돈은 곧바로 전해줄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로써 조선시대 경주인들이 지방 관리들의 채무상환에까지 간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고목(告目) : 조선시대 공적인 문서양식으로 각사(各司)의 서리 및 지방관아의 향리가 상관에게 공적인 일을 알리거나 문안할 때 올린다. 상관의 명칭을 대감 대신에 영감(令監)·안전(案前)·사또 등으로 쓸 수 있으나, 반드시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쓰이지는 않았다. 그 시대의 행정실무를 맡은 서리·향리 등이 공무에 관한 것을 상관에게 올린 자료로서, 그 시대 행정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 경주인(京主人) :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연락기관으로 서울에 설치된 전국 각 군현의 저사(邸舍) 즉 경저(京邸)의 책임자로서 상경하는 지방관 등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거나 중앙과 지방의 문서연락, 지방세공(地方稅貢)의 대납 등을 맡아 보았다.
 - 문안사령(問安使令) : 지방 관아에서 문안을 담당하는 서리이다.
 - 자문(尺文) : 물품이나 금전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로 받는 영수증이다.

- 원행(園行) :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顯隆園)의 행차를 지칭한다.
- 단골서리(丹骨書吏) : 조선시대 특정 관리를 위해 이조의 행정잡무를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는 서리이다.
- 이조제조사채(吏曹除朝辭債) : 관리에 임명된 후 이조에 예물 대신으로 바치는 돈이다.
- 보채전(報債錢) : 빚을 갚기 위한 돈이다.
- 예리(禮吏) : 예방서리(禮房書吏)의 줄임말로써 지방관아의 서리(書吏)이다.
- 김지묵(金持默) : 1725년(영조 1)~1799년(정조 23), 정조의 왕비 효의왕후 김씨(孝懿王后 金氏)의 부친으로서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참고
문헌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1798년 양천현령 임홍원 서목

陽川縣令 林弘遠 書目

작성연대	1798년(정조 22)
발급자/수취자	양천현령(陽川縣令) / 경기도순찰사(京畿都巡察使)
크기	38,0×38,5 / 33,0×84,0 / 35,7×107,5
소장처	나주 회진 나주임씨 창계 후손가

1798년(정조 22) 4월과 11월~12월에 양천현령(陽川縣令) 임홍원(林鴻遠)이 도순찰사(都巡察使)에게 올린 3건의 서목(書目)이다. 1798년 4월에 올린 서목은 양천현령 임홍원(林鴻遠)이 자신의 몸에 중병이 들어 수원초검관(水原初檢官)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으니 현령직에서 파직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11월과 12월에 올린 서목은 모두 임홍원(林鴻遠)이 신순(申淳)과 방덕희(方德禧) 사이에 벌어진 산송(山訟)에 대하여 양천현령으로서 임홍원(林鴻遠)이 처분내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을 내린 도순찰사(都巡察使)에 다시 건의하는 내용이다.

양천현령(陽川縣令) 임홍원(林弘遠)이 4월 초6일에 올린 서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홍원은 도순찰사(都巡察使)로부터 수원초검관(水原初檢官)의 업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당시 임홍원은 병(病)으로 양천에서 수원까지 움직일 수가 없다는 요지의 책目を 올렸다. 그러나 도순찰사는 병이 있음을 알지만 검험(檢驗)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니 면제할 수 없다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이에 임홍원은 복통과 설사로 거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병세를 자세히 알리면서, 근 백리가 되는 길을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으니 아예 자신을 파직시켜달라는 요청한다. 이에 도순찰사는 임홍원이 여러 번 보고함이 이와 같으니 수원초검관을 다른 고을에서 맡도록 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로써 조선시대 수령들이 자신의 임소(任所)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 특정한 업무를 보게 되는 경우 그 업무 지시가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알 수 있다.

11월 초4일에 올린 서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홍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신순(申淳)과 방덕희(方德禧) 사이에 벌어진 산송(山訟)을 겪게 되었다. 임홍원이 신순의 소장에 의거하여 조사한 즉 방덕희의 주장사실이 분명했다. 이에 임홍원은 방덕희로 하여금 속히 무덤을 파가게 하고, 또 무덤을 파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무덤을 반드시 파 가겠다는 다짐을 방덕회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방덕회는 너무 가혹하다고 감영에 의송(議送)을 보내 하소연하게 되었다. 이에 감영에서는 수령이 잘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였으므로 임흥원은 방덕회의 투장이 분명하다는 내용의 본 서목(書目)을 올리게 되었다. 도순찰사는 임흥원의 서목에 의거해 방덕회를 수감하고 속히 무덤을 파가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처분에도 불구하고 방덕회는 무덤을 파가지 않았다. 이에 신순이 또 다시 감영에 의송을 보내 방덕회를 체포하여 형벌을 가하고 무덤을 파갈 때까지 수감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도순찰사는 그 요청대로 할 것을 임흥원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임흥원은 지금 날씨가 한창 추운 겨울에 이 같은 처분은 너무 지나치므로 봄까지 기다릴 것을 요청하는 서목을 12월 초에 올리게 되었다.

-
- 서목(書目) : 상사(上司)에 올리는 첩정(牒呈)에 구비하는 문서로서 원장(原狀)의 요지를 쓴 것이며, 감사의 처분을 받은 후 서목을 올린 당사자에게 다시 반송하였다.
 - 의송(議送) : 순찰사(巡察使)나 관찰사(觀察使) 등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올리는 소지류(所志類)의 문서이다.
 - 제사(題辭) : 지방 수령이나 순찰사(巡察使) 또는 관찰사(觀察使)가 내리는 처결문.

참고
문헌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1799년 경기감사 감결

京畿監司 甘結

작성연대	1799년(정조 23)
발급자/수취자	경기감사(京畿監司) / 경기각읍(京畿各邑)
크기	30,0 × 10,0
소장처	나주 회진 나주임씨 창계 후손가

1799년(정조 23) 1월 17일 경기감영(京畿監營)에서 각읍(各邑)에 전하는 감결(甘結)이다. 임소(任所)에서 세상을 떠난 양천현령(陽川縣令) 임홍원(林弘遠)의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사전에 준비시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 감결은 조선시대 관리가 임소에서 사망했을 때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하면서 소용된 인력, 물자 및 절차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799년(정조 23) 1월 17일 경기감영에서 경기 각읍에 보낸 감결이다. 같은 해 1월 3일 양천현령 임홍원이 임소에서 세상을 떠나자 그의 호노(戶奴)는 상전의 시신을 고향인 전라도 나주 회진(會津)으로 운반하여 장례를 치르겠다는 요청을 경기감영에 올렸다. 이에 경기감영에서는 임홍원의 관을 호송(護送)하되 법식에 따라 제급(題給)하며 색리(色吏)를 지정하여 운구행로에 해당하는 양천, 시흥, 진위, 양성 등 각읍 경계에서 사전에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시신을 호송할 때에는 중도에 멈추는 낭패가 없도록 각읍 수령에게 각별히 신칙(申飭)하여 시행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밖에 시신의 운구에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도 언급되는데, 이를 통해 감영에서 운구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각읍에서 거행한 내용을 우선 즉시 보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본 감결은 조선시대 관리가 임소에서 사망했을 때 요청에 의해 그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했던 사실을 비롯하여 운구에 필요한 인력 및 물자, 운구 절차 등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사망한 관리의 시신을 운반할 때에 감영과 각 고을의 협조적인 태도도 주목할 만하다.

-
- 임홍원(林弘遠) : 1753년(영조 29) ~ 1799년(정조 23), 초명은 홍원(鴻遠)이며 자(字)는 규백(逵伯)이다.
 - 감결(甘結) : 상급 관서에서 하급 관서로 내리는 문서 양식. 주된 내용은 지시·명령이며, 감결 중 대부분은 관찰사가 관하 읍에 내리는 것이다.
 - 호노(戶奴) : 호노(戶奴)는 사노비 중 양반 호(戶)에 등재된 사내종을 뜻하는데, 이런 일반적 의미 외에도 양반가의 농업 경영에 참여한 간사노(幹事奴) 등의 의미로 쓰였다. 또 상전을 대신하여 소지(所志)·의송(議送)·정장(呈狀)을 올리는 사내종, 노비와 토지 매매를 대행하는 사내종 역시 호노로 칭해졌다.
 - 담군(擔軍) : 짐을 운반하는 인부.
 - 중화(中火) : 중간에 머물면서 먹는 점심.
 - 색리(色吏) : 일정한 일을 맡았거나 책임을 맡은 아전.

참고
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1799년 노문

路文

작성연대	1799년(정조 23)
발급자/수취자	경기읍리(京畿邑吏)/각도각읍(各道各邑)
크기	33,0×92,0 / 31,0×122,0
소장처	나주 회진 나주임씨 창계 후손가

1799년(정조 23)에 경기호상영리 김(京畿護喪營吏 金)이 고 임홍원(林弘遠)의 관을 경기도에서 전라도 나주까지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각 읍에 통지하는 내용으로 총 2건이다.

1799년 1월 29일에 작성된 노문은 양천현령(陽川縣令)이었던 임홍원(林弘遠)이 1799년(정조 23) 1월 3일 임소(任所)에서 세상을 떠난 후, 고양천택호상소(故陽川宅護喪所)에서는 빈소에서 고향 전라도 나주 회진(會津)까지 시신을 운구하기 위한 담군(擔軍) 및 잡색군(雜色軍)을 선발, 대기시킬 것을 경기호상영리(京畿護喪營吏)에게 분부하였다. 이에 경기호상영리는 이 분부에 의거하여 경기도에서 전라도까지 운구행로에 해당하는 각 읍에 노문을 발송하여 담군(擔軍) 40명, 잡색군(雜色軍) 10명 합 50명을 선발하여 대기하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이 노문을 처음 받은 고을에서는 노문이 순영(巡營)의 확인을 거친 것이므로 즉시 다음 고을로 통지하여 중간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1799년 2월 초3일에 작성된 노문은 1월의 노문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앞선 1월의 노문을 통해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고을의 호상색리(護喪色吏)가 고을의 경계지역에서 대기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경기관찰사 김(京畿護喪營吏 金), 충청도호상영리 이(忠淸道護喪營吏 李), 양천호상색리 최(陽川護喪色吏 崔) 3명은 그 고을에 다시 노문(路文)을 보내 충실하게 대비하였다가 나주 회진(會津)까지 관을 잘 호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본 노문의 앞부분에는 여산(礪山), 전주(全州), 금구(金溝), 태인(泰仁), 고부(古阜), 정읍(井邑), 장성(長城), 나주(羅州)에 노문(路文)이 도착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어 조선시대 공문서의 전달 속도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렇듯 2건의 본 문서들을 통해 조선시대 객지에서 벼슬하다 세

상을 떠난 경우 그 시신의 운구를 운반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시신 운구에 관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을 알 수 있다.

-
- 노문(路文) : 상당한 지위에 있는 관리가 지방을 여행할 때 여행의 편의를 위하여 출발에 앞서 여행의 일정표를 연도의 각 고을에 보내는 문서이다.
 - 임소(任所) : 지방 관원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 호상소(護喪所) : 장례(葬禮)를 주관하는 곳이다.
 - 담군(擔軍) : 관을 메고 가는 사람이다.
 - 잡색군(雜色軍) : 각종 잡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 관련자료 : 1799년 양천읍리(陽川邑吏) 사통(私通)
1799년 경기감사(京畿監司) 감결(甘結)

참고
문헌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1799년 양천읍리 사통

陽川邑吏 私通

작성연대	1799년(정조 23)
발급자/수취자	양천읍리(陽川邑吏)/각읍공형(各邑公兇)
크기	19,0×48,5 / 33,0×40,0
소장처	나주 회진 나주임씨 창계 후손가

1799년(정조 23) 1월에 양천관아(陽川官衙)에서 각 읍의 공형(公兇)에게 보낸 협조문서이다. 총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양천현령 임홍원(林弘遠)의 관을 임소(任所)에서 고향인 전라도 나주까지 호송할 담군(擔軍)과 잡색군(雜色軍)을 선발하여 대기시키라고 지시하는 감결과 아울러 이들이 머물 숙소의 천막, 돛자리, 말먹이 등을 준비하라고 하는 내용의 감결로서 지나는 경로에 있는 시흥(始興), 수원(水原), 진위(振威) 등에 보냈다.

전라도 나주 회진(會津)이 고향인 양천현령 임홍원은 1799년(정조 23) 1월 3일 임소(任所)인 양천(陽川)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에 고 임홍원의 호노(戶奴)는 상전의 시신을 나주로 운반하여 장례를 치르겠다는 요청을 경기감영에 올렸다. 경기감영에서는 이에 의거하여 운구에 필요한 인력 및 물자들을 준비하여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연로의 각 고을에 관문(關文)을 하달하였다.

양천관아에서도 감영 및 비변사(備邊司)의 관문에 의거하여 양천에서 나주 회진에 이르는 시흥(始興), 수원(水原), 진위(振威) 등의 고을에 협조문을 보냈다. 호송에 필요한 담군(擔軍) 및 이들을 통제할 영색(營色)을 선발하여 대기시키고 아울러 일행이 숙박할 숙소에는 천막, 병풍, 말먹이, 빨감 등을 마련하여 대기하라고 통고하였다. 이 문서의 수취자는 각 고을의 공형(公兇)이었는데, 담군(擔軍) 또는 영색(營色)을 선발하고 필요한 물자를 마련하는 실제 업무를 이들 공형(公兇)이 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고을에서는 이 문서가 도착한 날짜를 기록하게 하였다.

-
- 공형(公兄) : 지방관청의 향리(鄉吏) 중 호장(戶長), 이방(吏房), 수형리(首刑吏)의 3公兄으로서 상층향리를 의미한다.
 - 포진(鋪陳) : 땅에 까는 돛자리 등을 의미한다.
 - 관문(關文) :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 보내는 지시문이다.

참고
문헌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1803년 강화부유수 관

江華府留守 關

작성연대	1803년(순조 3)
발급자/수취자	강화부(江華府) / 부안현(扶安縣)
크기	37.0 × 39.0
소장처	부안 우반 부안김씨

1803년(순조 3) 강화부유수겸진무사(江華府留守兼鎭撫使)가 김준기(金俊起)를 강화부에 있는 관학의 분교관(分敎官)으로 임명하는 첩문(帖文)을 보내고 본인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부안현(扶安縣)에 발송한 관(關)이다.

1803년(순조 3) 강화부유수 겸 진무사가 부안현(扶安縣)에 사는 유학(幼學) 김준기(金俊起)를 강화부 학궁(學宮) 분교관(分敎官)으로 차정(差定)하고 첩문(帖文)을 작성해 보내면서 해당 임명문서를 당사자에게 즉시 전달하여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안현에 보낸 공문서인 관(關)이다. 일반적으로 관(關)이라는 공문서는 위계가 동등한 관청 사이에 주고 받거나 상위 관청에서 하위 관청에 보낼 때 사용되었다.

- 진무사(鎭撫使) : 조선 후기에 설치된 강화도 진무영(鎭撫營)의 중2품 관직으로, 강화 부유수(江華府留守)가 당연직을 겸임한다.
- 기송(起送) : ‘사람을 보냄’ 혹은 ‘죄인을 호송함’ 등이나 공문서를 발송할 경우에도 사용되었다. 이 문서는 차첩(差帖)을 보내는 내용이므로 ‘공문서를 발송하는 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 김준기(金俊起) : 부안김씨(扶安金氏) 소윤공파(少尹公派) 후손으로 김흥태(金興台)의 아들이다. 부인은 함양조씨(咸陽趙氏)이고, 효행으로 정문(旌門)을 받은 김채상(金彩相)의 부친이다.
- 학궁(學宮) : 공자(公子)를 배향하는 문묘(文廟)와 그에 딸린 학교. 서울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 등 공공 교육기관을 일컫는다.
- 분교관(分敎官) : 조선시대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한양의 오부(五部) 및 개성부·강화부 등에 설치한 임시직 교관(敎官).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개성부와 강화부만 언급하였으나, 실록에는 강원도 영동·영서의 분교관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띈다. 종9품으로 생원·진사·유학 중에서 유수가 골라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임명하였다.

참고
문헌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1817년 박현익 의송

朴顯翼 議送

작성연대	1817년(순조 17)
발급자/수취자	박현익(朴顯翼)/순상(巡相)
크기	99.0×55.0
소장처	부여 은산 함양박씨

1817년(순조 17) 6월에 박현익(朴顯翼) 등 13명이 순찰사(巡察使)에게 올린 의송(議送)이다. 당시 이씨 집안의 투장과 도주 행위, 그리고 호송에 응하지 않은 죄를 들어 이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관에서는 이미 산소의 주객이 정해져 있으므로 쓸데없이 소송을 일삼지 말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문서를 올리기 전인 4월에 이천부(利川府)에 이미 50년 전에 이사급(李士及)과 박씨 집안간의 산송(山訟) 관련 소송이 있었고, 그 때는 이사급이 패소하였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이사급의 손자가 다시금 박씨의 산소 부근에 투장(偷葬)을 하고 도주(逃走)하였다. 이에 대해 박현익 등 7인은 연명(連名)하여 관에 그간의 자초지종을 진술하는 단자(單子)를 올렸고, 관에서는 50년 전의 판결과 같이 이사급의 손자에게 속히 무덤을 이장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절대로 남의 산소에 침범하지 말 것을 매우 강하게 경고하였다.

그 후 5월에 박현익 등이 다시 관찰사에게 소지를 올렸으나 4월에 올린 것과는 다르게 이미 60년 전에 판결이 난 문제이므로 피고 이원식(李元植) 등을 잡아오거나 가두지 말라는 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6월에 다시 의송을 올리게 되었다.

박씨 집안과 이씨 집안의 산소 분쟁이 주요 내용으로, 박씨 집안에서는 이씨에 대해 투장(偷葬)을 한 죄, 도주(逃走)를 한 죄, 호송(訴訟)에 응하지 않은 죄를 내세워 공격하고 있다. 반면에 박씨 자신들은 이씨의 무덤을 이장(移葬)시켜 소송에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관의 판결은 이미 산소의 주객(主客)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쓸데없이 소송을 일삼지 말라고 하므로 박씨 집안이 패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 입지(立旨): 입지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 통용된 문서양식으로 입안(立案)과 달리 관에서 사실 확인 등의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하였다. 토지·노비문서 등을 분실, 도난, 소실했을 때 향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 산송(山訟): 산송(山訟)은 일명 ‘묘지 소송’으로, 노비·전답 소송과 함께 조선시대의 3대 사송(詞訟)의 하나이다. 특히 16세기 이후 성리학적 의례의 정착과 종법 질서의 확립 과정에서 부계 분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장하여 조선 후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참고
문헌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1821년 광주부 입안

廣州府 (立案)

작성연대	1821년(순조 21)
발급자/수취자	광주부(廣州府)/광주안씨 순암증가
크기	50,0×160,0
소장처	광주 기곡 광주안씨 순암 증가

1821년(순조 21) 광주부에서 발급한 입안이다. 안정옥이 종가 소유의 땅을 자기 선조의 땅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판 사건에 대한 판결문서이다.

1821년(순조 21) 11월에 광주부에서 안정옥과 안씨 종가 사이에 벌어진 산지 소유권 분쟁에 대하여 판결한 입안이다. 안정옥이 자신의 선조 때 입안 받은 땅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판 토지에 대해 입증할 만한 문건이 없으므로 관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해당 상황을 판단하였다. 광주부사가 친히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산의 사방 몇 리의 땅이 모두 안씨의 종가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안정옥이 그의 선조가 인압 받은 땅이라고 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범조문에 따라 도매(盜賣)한 원가전(原價錢)을 안정옥에게 받아내고 해당 사실에 대하여 다짐(拷音)을 받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광주부에서는 광주안씨 순암증가의 손을 들어 주었다.

-
- 입안(立案) : 조선시대 관부(官府)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발급하는 문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매매·양도·결송(決訟)·입후(立後) 등의 사실을 관에서 확인하고, 이를 인증해 주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다.
 - 금양(禁養) : 특정 지역의 산림에서 수목(樹木)의 벌채, 분묘(墳墓)의 설치, 농지(農地)의 개간, 토석(土石)의 채취 등을 금지하고, 특히 소나무의 재식(栽植)과 육성(育成)에 힘쓰는 것을 말함.

참고
문헌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1842년 서중보 등 상서

徐中輔 上書

작성연대	1842년(헌종 8)
발급자/수취자	서중보(徐中輔)/이천부(利川府)
크기	111,0×68,0
소장처	부여 은산 함양박씨

1842년(헌종 8) 서중보(徐中輔) 등이 이천부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감영에서 인재를 추천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이천에 사는 유학 서중보(徐中輔) 등 유생들이 1842년에 성주(城主)에게 박정식(朴鼎錫)이 명문가의 자손으로 덕행이 뛰어나다는 점을 들어 관찰사에게 인재로서 천거해달라고 상서를 올렸다.

상서의 주 내용은 박정식(朴鼎錫)이 기묘명신(己卯名臣) 박세영(朴世榮)의 11대손이자 선조(宣祖) 때의 명신 박대립(朴大立)의 12대 자손으로서 충효와 예법이 있는 집안에서 자랐고, 도(道)로써 스스로를 지키는 자며 오륜(五倫)을 돈독히 하여 질서를 세우고 육경(六經)을 강구(講究)하여 덕목이 있는 사람이므로 나라에 쓰임새가 있는 인재라며 천거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출세하여 명예를 구하지 않는 참되고 번민하지 않는 자라고 밝혔다. 문서의 왼쪽 하단에는 감영에서 적은 첨지가 붙어 있다.

- 상서(上書) : 조선시대 민원문서의 하나로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에게 올렸고, 그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를 위한 것이 많다.
- 기묘명신(己卯名臣) : 조선 중종 때 기묘사화로 화를 입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 박세영(朴世榮) : 1508년(중종 3)~1552년(명종 7) 1504년(연산군 10) 진사시에 합격한 뒤 문음으로 출사하여 내섬시주부, 사헌부감찰, 공조좌랑, 형조좌랑, 풍덕군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최종관직은 돈녕부정에 이르렀다.
- 관련문서 : 1842~1848년 부여 은산 함양박씨가 서중보(徐中輔) 인재천거 문서가 있다. 자료명은 1845년 박태원(朴台源) 등 상서(上書), 1847년 박정석(朴鼎錫) 단자(單子), 1845년 김원정(金源鼎) 등 상서(上書), 1848년 윤급(尹汲) 등 상서(上書), 1848년 이기원(李基遠) 등 상서(上書) 총 5건으로 모두 1842년(헌종 8) 감영에서 필요한 인재를 추천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이천에 사는 유생들이 스스로 나서서 명문가의 자손으로 덕행이 뛰어나다는 점을 들어 박정석(朴鼎錫)을 추천하면서 작성된 문서이다.

참고
문헌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고문서집성 45-부여 은산 함양박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1845년 이천도호부사 해유문서

利川都護府使 解由文書

작성연대 1845년(헌종 11) ~ 1846년(헌종 12)
 발급자/수취자 이천도호부사(利川都護府使)/호조(戶曹)
 경기관찰사겸순찰사(京畿觀察使兼巡察使)/호조(戶曹)
 호조(戶曹)/이조(吏曹)
 크기 미상
 소장처 상주 연안이씨 식산 증택

1845년(헌종 11)~1846(헌종 12)년에 걸쳐 이천도호부사(利川都護府使) 이건기(李建基)의 해유(解由)를 위해 작성된 관문서로서 첩정(牒呈) 및 관(關)이 점련(粘連)되어 있다. 전임 부사 이건기가 관직을 부여받고 체직된 날짜, 근무 일수 및 임기 동안 관리해온 물건 등을 열거한 첩정을 후임관이 호조(戶曹)에 올렸고, 경기관찰사겸순찰사(京畿觀察使兼巡察使)가 이 첩정을 호조에 이관하였으며, 호조에서는 검토 후 다시 이조(吏曹)로 이관하였다. 조선시대 해유 절차와 행정 체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해유문서(解由文書)는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관에게 사무와 관리하던 물품 등을 인계하고 재직 중의 제반 업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공문서이다. 본 문서는 이천도호부사 이건기의 해유를 위한 것으로, 총 3건의 발급자와 수취자가 각기 다른 문서들이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다.

문서가 작성된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명	작성일자	발급	수취	내용
1845년 경기도(京畿道) 첩정(牒呈)	1845년 12월 일	이천도호부사 (利川都護府使)	호조(戶曹)	前府使 李建基가 직을 부여받고 체직된 날짜, 근무 일수 및 임기동안 관리해온 물건들을 開錄하니 시행해주기를 바람.
1845년 호조(戶曹) 관(關)	1845년 12월 29일	경기관찰사겸 순찰사 (京畿觀察使兼 巡察使)	호조(戶曹)	利川都護府使가 올린 첩정을 移關하니 시행해주기를 바람.
1846년 이천도호부(利川都護府) 관(關)	1846년 2월	호조(戶曹)	이조(吏曹)	위 점련문서를 검토하니 前利川都護府使 李建基의 解由에 이상이 없으므로 상고하여 시행해주기를 바람.

먼저 1845년(헌종 11) 12월에 후임관이 호조에 올린 첩정(牒呈)에서는 전임 부사 이건기가 관직을 부여받고 체직된 날짜, 근무 일수 및 임기 동안 관리해온 물품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내용

에 따르면, 이건기는 1842년(헌종 8) 7월 24일에 직을 부여받고 같은 해 8월 6일 임지에 이르렀으며 1844년(헌종 10) 1월 6일 체직되었으므로 543일간 근무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상진청(常賑廳), 호조(戶曹), 균역청(均役廳), 별회곡(別會穀), 비변사(備邊司), 영진곡(營賑穀), 영환자(營還上), 순아병청(巡牙兵廳), 고마청(雇馬廳), 군수곡(軍需穀), 총융청(摠戎廳) 등의 태(太), 조(租), 직(稷) 등 곡물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어서 1845년(헌종 11) 12월 29일에는 경기관찰사겸순찰사가 호조에 위 해유첩정을 접련하여 이관하였다. 이때 재정 관계는 호조에, 균기 관계는 병조에 관(關)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본 문서는 호조로 보낸 것이다.

마지막 문서는 1846년(헌종 12) 2월에 호조에서 이조로 이관한 것이다. 위 접련문서에 따라 전임 이천도호부사 이건기의 해유가 무탈(無頌)하니 잘 살펴서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본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 해유 과정에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과 더불어 해유의 절차 및 행정체제, 해유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이건기(李建基) : 식산 이만부의 4세손, 생부는 정유(挺儒)이다.
- 상진청(常賑廳) : 상평청(常平廳: 조선시대 흉년의 굶주린 백성들의 구제를 위한 비축곡물 및 자금을 관리하던 관서)과 진휼청(賑恤廳: 조선시대 흉년이 들었을 때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였던 관서)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균역청(均役廳) : 조선시대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모든 사무를 맡아 보던 관청. 1750년(영조 26)에 설치하여 선혜청(宣惠廳)에 합병되었다.
- 영진곡(營賑穀) : 곡가조절을 위해 품귀할 때에는 창곡(倉穀)을 풀어 포(布)로 바꾸고 하락할 때에는 포로서 곡물을 구입하여 들이는 것을 말한다.
- 순아병(巡牙兵) : 순영(巡營)에 딸린 아병.
- 고마청(雇馬廳) : 조선 후기에 지방관의 교체와 영송에 따른 제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재정 기구.
- 총융청(摠戎廳) : 조선 후기에 설치된 중앙 군영.

참고 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1846년 김원정 등 상서

金源鼎 上書

작성연대	1846년(헌종 12)
발급자/수취자	김원정(金源鼎) /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
크기	106,0×68,0
소장처	부여 은산 함양박씨

1846년(헌종 12) 2월에 김원정(金源鼎)과 이천부(利川府)에 거주하는 다른 유생들이 박정석(朴鼎錫)을 경기도관찰사에게 천거(薦舉)하면서 작성한 상서(上書)이다. 박정석이 훌륭한 가문의 후손이고 박학다식하며 청렴한 선비라는 점을 천거의 근거로 들었다.

1846년(헌종 12) 2월에 좌도(左道) 이천부에 사는 유생 김원정 등 91명이 순찰사에게 이천사인(利川士人) 박정석을 천거하면서 올린 상서(上書)이다.

본문 내용에 따르면, 유생들이 박정석을 천거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훌륭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점이다. 박정석은 명현 박세영(朴世榮)의 11세손이자 선조(宣祖) 연간의 명신 박대립(朴大立)의 10세손이고, 두문(杜門)한 박지술(朴知述)의 9세손이며, 폐모(廢母) 시벼슬을 거절한 박유공(朴有恭)의 8세손이다. 또 박종형(朴宗亨), 부사(牧使) 박상욱(朴尙郁), 참판(參判) 박경후(朴慶後) 등 훌륭한 선조가 줄줄이 연이었다는 점을 밝히며 가통과 세덕(世德)이 전승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두 번째 이유로는 박학다식하고 청렴한 성품을 들었다. 그는 심경(心經)과 근사(近思)의 도(道)를 강학하고 수신제가(修身齊家)하며 고인의 학문을 중시하여 스스로 벼슬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언행은 옛 군자들도 이보다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사인(士人)들이 칭찬하고 존경한다 하였다.

이천부의 유생들이 박정석을 천거하는 상서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불행히도 순찰사가 교체되는 바람에 미루어졌다. 따라서 누차 글을 올린다고 하면서 이처럼 유능한 인재가 초야에 남지 않도록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다.

실제로 1842년부터 1848년까지 이와 비슷한 내용의 상서가 꾸

준히 있던 것을 미루어봤을 때 순찰사가 교체되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이들의 요청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는 1842년 서중보(徐中輔) 등 상서(上書), 1845년 박태원(朴台源) 등 상서(上書), 1848년 윤급(尹汲) 등 상서(上書), 1848년 이기원(李基遠) 등 상서(上書)가 있다.

-
- 박세영(朴世榮) : 1480년(성종 11) ~ 1552년(명종 7),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함양이고, 자는 경인(景仁)이며, 호는 구당(九堂)이다. 형조정랑·돈령부정 등을 지냈다. 사후 의정부좌찬성으로 증직되었다.
 - 박대립(朴大立) : 1512(중종 7) ~ 1584(선조 17),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함양, 자는 수백(守伯)이고 호는 무환(無患) 혹은 무위당(無違堂)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1540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형조판서·이조판서·호조판서·우찬성·돈령부판사 등을 지냈다.
 - 박종형(朴宗亨) : 1602(선조 35) ~ 1659(현종 원년), 자는 응회(應會)이다. 인의·형조좌랑·과천현감·종친부전부 등 내외직을 두루 거쳤다.
 - 상서(上書) : 조선시대 민원문서인 소지류(所志類)의 일종. 수취 대상은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이고,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 등을 위한 것이 많다.

참고
문헌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1847년 박정석 단자

朴鼎錫 單子

작성연대	1847년(헌종 13)
발급자/수취자	박정석(朴鼎錫) / 이천부(利川府)
크기	97.0×54.0
소장처	부여 은산 함양박씨

1847년(헌종 13) 11월에 이천부(利川府)에 사는 유학(幼學) 박정석(朴鼎錫)이 이천부에 올린 단자(單子)로서 이가(李哥)와의 산송(山訟)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 간의 산송은 이사급(李士及)이 그의 어머니를 박씨의 묘소 부근에 투장(偷葬)한 데에서 비롯되다.

본 문서는 1847년(헌종 13) 11월에 유학 박정석이 이천부에 올린 단자이다. 박씨 집안은 양주·시흥 등 땅에 대대로 선영(先塋)을 두고, 매년 10월마다 시사(時祀)를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괴산(槐山)에 사는 이원식(李元植)이라는 자가 그의 아버지 이사급(李士及)이 투장(偷葬)한 묘에 경계를 정하고자 정소(呈訴)했고, 묘지기와 몰래 경계를 정하고 갔다는 것이다.

이들 간의 산송(山訟)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있었다. 사건은 이사급이 그의 어머니를 요곡(蓼谷)에 투장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투장한 곳이 박정석의 조부 묘와 마주하고 있고, 앉아서나 서서나 모두 눈에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박씨 가문은 정소하여 해당 묘를 옮기게 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사급은 집을 버리고 행적을 감춰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붙잡을 수 없었고, 그 후에 그의 아들 이원식이 산 아래 와있다고 하여 도형(圖形) 뒤에 적힌 판결문대로 독굴(督掘)하기로 다짐을 받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 이후 박씨는 다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관이 내린 제사(題辭) 내용에 ‘여러 번 관의 처분이 있었는데 아직 굴이(掘移)하지 않았으니, 비록 이사급이 도망간 지 오래되어 파내기 어렵더라도 차후 계속하여 힘을 다해 금하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정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이원식이 불순한 마음을 품고 먼저 소장을 내어 박정석이 선산을 빼앗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박정석은 ‘투장한지 오래되어 굴이하기 어렵고 이미 주객의 구분이 정해졌다’는 관의 제사가 있었고 이원식이 정처 없이 떠도는 까닭에 다시 정소하지 못한 채 몇 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이원식이 느닷없이 소장을 내어 묘지기를 데리고 경계를 정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산의 경계란 묘지기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만행이 법을 모독하는 것이니 훗날 다시는 이런 폐단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엄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산송(山訟) : 산송(山訟)은 일명 ‘묘지 소송’으로, 노비·전답 소송과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송(詞訟)의 하나이다. 특히 16세기 이후 성리학적 의례의 정착과 종법 질서의 확립 과정에서 부계 분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선 후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 투장(偷葬) : 남의 눈을 속여 타인의 묘지 또는 산림에 매장하는 행위.
- 정계(定界) : 경계(境界)를 정(定)함.
- 정소(呈訴) : 소장(訴狀)·고장(告狀)·소지(所志) 따위를 관청에 제출함.
- 독굴(督掘) : 관청에서 강제적으로 무덤 등을 파내도록 독촉하는 것.
- 납고(納考) : 관가에 내린 명령이나 조정안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
- 영제(營題) : 백성이 올린 소지나 청원서에 감영에서 지령하는 제사(題辭).
- 제김(題音) : 백성의 정소(呈訴)에 대하여 관부(官府)에서 써주는 처결문.
- 굴이(掘移) : 무덤을 파서 옮김.

참고
문헌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1875년 경기관찰사 감결

京畿觀察使 甘結

작성연대	1875년(고종 12)
발급자/수취자	경기관찰사 / 시흥(始興), 수원(水原), 진위(振威) 수령
크기	22.0 × 45.2
소장처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河合文庫)

1875년(고종 12) 3월 21일에 경기감영(京畿監營)에서 각읍(各邑)에 보낸 감결(甘結)이다. 감결의 내용은 전라도(全羅道) 강진현(康津縣)으로 귀양 가는 죄인 이성영(李聖榮)을 차례차례 착실히 호송(護送)하여 다른 도(道)에 넘긴 후에 점련(粘連)한 문서를 보고함이 마땅하다고 지시하고 있다.

1875년(고종 12) 경기감영에서 각 읍에 전한 감결이다. 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조(刑曹)에서 보낸 관(關)에 따라 전라도 강진현으로 유배 가는 죄인 이성영(李聖榮)을 원배문(原配文)과 호송첩(護送帖)을 역자(驛子)에게 받아 압송(押送)하니 죄인이 지나치는 각 고을에서는 형리(刑吏)와 군인(軍人)을 지정하여 차례차례 착실히 호송해서 죄인이 도망가 숨을 염려가 없게 하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도착한 고을 수령은 다른 도(道)에 처음으로 대면하는 수령에게 죄인을 압송하여 넘긴 후 관에 도착한 문서를 점련하여 보고하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 감결은 올해 3월 21일에 발급되었고, 날짜 하단에 적혀있는 '재영(在營)'이라는 표기는 경기관찰사가 감영에서 문서를 작성했음을 나타낸 것이다.

-
- 감결(甘結) : 상급 관서에서 하급 관서로 내리는 문서 양식. 주된 내용은 지시·명령이며, 감결 중 대부분은 관찰사가 관하 읍에 내리는 것이다.
 - 배문(配文) : 죄인을 귀양 보낼 때에 형조(刑曹)에서 유배지의 관아에 보내던 통지문.
 - 압송(押送) : 죄인을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호송하는 일.
 - 역자(驛子) : 역참(驛站)에 소속되어 그에 관련된 각종 역(役)을 부담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 관련 문서 : 1875년 형조(刑曹) 관(關)
 - 1875년 형조(刑曹) 유배죄인 호송첩(護送帖)
 - 1875년 정배죄인(定配罪人) 이성영(李聖營) 입지(立旨)
 - 1875년 시흥현령(始興縣令) 관(關)

참고
문헌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1875년 시흥현령 관

始興縣令 關

작성연대	1875년(고종 12)
발급자/수취자	시흥현령(始興縣令)/강진현(康津縣)
크기	34.6 × 41.0
소장처	일본 교도대학 가와이문고(河合文庫)

1875년(고종 12) 형조(刑曹)의 유배죄인 호송(護送)에 관계된 사안으로 1875년(고종 12) 3월에 시흥현령(始興縣令)이 전라도(全羅道) 강진현(康津縣)에 보낸 관(關)이다. 죄인 이성영(李聖榮)을 압송하니 도착하는 즉시 교부장(交付狀)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1875년(고종 12) 형조(刑曹)의 유배죄인 호송에 관한 문서이다. 1875년(고종 12) 3월 27일에 시흥현령(始興縣令)이 전라도(全羅道) 강진현(康津縣)에 보내는 관(關)으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조(刑曹)에서 발배(發配)하여 전라도 귀현(貴縣, 강진현)으로 죄인 이성영(李聖榮)을 유배 보내면서 원배문(原配文) 및 호송첩(護送帖)을 함께 보내니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교부장(交付狀)을 작성해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부장(交付狀)’이란 죄인 및 문서를 이상 없이 접수하였음을 회신하는 문서로 보인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호송첩(護送帖)은 죄인 이성영(李聖榮)을 유배지까지 호송하기 위해 형조에서 각 고을에 호송을 지시한 호송첩(護送帖)을 말한다. 이와 같이 언급된 문서들과 본 문서를 통해 19세기 정배 죄인의 호송 체계와 그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주고받는 공문서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관련 문서인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가 21일에 내린 감결(甘結)을 보면, 시흥(始興), 수원(水原), 진위(振威)의 지방관에게 죄인을 착실히 호송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시흥현에서 이 문서를 강진현으로 발송하였다.

•관(關) :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또는 동등한 위계의 관청 사이에서 사용한 관문서(官文書)이다. 본 문서는 전자의 경우인 상고하는 일에 해당한다. 현재 관문이 전래된 형태는 대부분 양반가의 고문서 더미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는 관문의 발·수급 당사자이거나 해당 관서에서 관직을 역임한 이들이 관문을 개인적으로 소장한 것에서 유래한다.

•발배(發配) : 귀양살이 할 곳으로 보낸다는 뜻이다.

•관련자료 : 1875년 형조(刑曹) 유배죄인 호송첩(護送帖)

1875년 형조(刑曹) 유배죄인 호송첩(護送帖)

1875년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감결(甘結)

1875년 정배죄인(定配罪人) 이성영(李聖榮) 입지(立旨)

참고
문헌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1887년 임영근 단자

任永根 單子

작성연대	1887년(고종 24)
발급자/수취자	임영근(任永根)/양근군수(楊根郡守)
크기	58,0 × 41,0
소장처	아산 선교 장흥임씨

1887년 4월 충청도 아산에 거주하는 임영근(任永根)이 경기도 양근군(楊根郡)에 있는 선영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몰래 매장한 일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단자이다.

본 문서는 1887년 4월 충청도 아산에 거주하는 임영근(任永根)이 올린 단자이다. 임영근의 선대 선영(先塋)이 경기도 양근 동종면(東終面)에 있는데, 수백 년 동안 수호(守護)하고 금양(禁養)하여 타인이 입장(入葬)하지 않았던 곳이었음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본읍 난간리(欄干里)에 거주하는 김억이(金億伊)가 임영근의 6대조 판서공의 묘와 불과 20여 보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땅에 몰래 묘를 쓴 사건이 발생했다. 묘지기(墓直) 한 명이 금하고자 하자 폭력을 써서 임영근의 선영 내에 억지로 장사를 지냈다. 이를 계기로 ‘이 어찌 이와 같이 성질이 완악하고 행동이 패악한 놈이 있냐’며 분통함과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여 공명정대하신 사또께 단자를 올린다고 적어놓았다. 이에 양근군에서는 ‘사대 부가의 묘 앞 아주 가까운 자리에 김가놈이 손쉽게 매장을 하여 큰 소란을 일으켰으니 사실을 조사하여 묘를 파내게 하기 위해 양 당사자를 데리고 도형을 그려 오도록 하라(士大夫墓前逼近之處 金漢之無難入葬 鬧極致痛 查實督掘次 率兩隻圖尺以來向事)’는 제김(題音)을 13일에 내렸다.

-
- 양근(楊根) : 경기도 양평 지역의 옛 지명.
 - 제김(題音) : 백성이 관청에 제출한 소지(所志)에 대하여 관청이 내린 처분으로 '데 김' 이라고도 불렀다.
 - 양척(兩隻) : 척(隻)은 한쪽 편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양척은 송사(訟事)에서 현대의 피고와 원고 양측을 뜻한다.
 - 도형(圖形) : 도형이란 산세(山勢)와 묘의 위치 및 묘 사이의 거리 등을 조사하고, 이를 도면으로 작성한 것.
 - 관련 문서: 1887년 임영근(任永根) 산도(山圖)
1887년 충청도(忠淸道) 아산거(牙山居) 임영근(任永根) 단자(單子)

1887년 임영근 산도

任永根 山圖

작성연대	1887년(고종 24)
발급자/수취자	임영근(任永根)/양근군수(楊根郡守)
크기	63.5 × 40.0
소장처	아산 선교 장흥임씨

1887년 20일에 산송을 벌이면서 작성한 산도(山圖)와 관아의 제김(題音)이다. 밧자리를 표시한 그림 하단에 소송의 사유를 참고하여 김가의 무덤(金塚)을 파내도록 처결한다는 관의 처분이 적혀있다.

본 문서는 1887년에 산송과 관련된 현장에 직접 가서 산세와 묘 위치 등을 그림으로 그려서 경기도 양근군수(楊根郡守)에게 올린 산도(山圖)이다. 동서남북이 표기되어 있고, 이반(李班) 10대조 산소, 이반(李班) 5대조 산소, 최가(崔哥) 무덤, 판서공(判書公) 산소, 임반(任班) 고조 산소, 이반(李班) 숙모 산소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서로의 거리가 30보(步)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20일 제사(題辭)를 통하여 ‘양반 임씨의 선묘와 김씨의 무덤이 서로 떨어진 거리가 비단 30보정도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는 곳으로 임씨가 피를 튀기며 다투지 않을 수 없다. 소송의 사리대로 김가의 무덤(金塚)을 패소로 처결한다. 20일.(任班先墓與金塚相距 非但三十步之近 亦是坐立俱見處 則任安得不血爭乎 參以訟理 金塚置之落科向事 二十日)’ 이라는 처분을 왼쪽 하단에 적어놓았다.

또 문서의 오른쪽에 원고와 피고의 이름과 서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조선시대 산송 사건에서는 법전에 명시된 보수(步數)와 더불어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살펴봤을 때 앉아서나 서서나 상대의 무덤이 보이는 곳에는 묘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한 관행을 엿볼 수 있다.

-
- 산도(山圖): 뫏자리를 표시한 그림.
 - 낙과(落科): 송사에서 패소한 것을 일컬음.
 - 피척(彼隻): 소송 행위에서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을 이르는 말
 - 제사(題辭):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 또는 하급 관아에서 올린 보장(報狀)에 대해 관부나 상급 관아에서 내리는 판결문이나 지령서를 말한다.
 - 관련 문서 : 1887년 충청도 아산(牙山) 주교거(舟橋居) 임영근(任永根) 단자(單子)
1887년 충청도 아산거(牙山居) 임영근(任永根) 단자(單子)

참고 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5

가문문서
家門文書



광명 오리 이원의 증가 고문서
광주 기곡 광주안씨 순암증가 고문서
군포 속달 동래정씨 정난증 증가 고문서
남양주 해주정씨 해평부원군 증가 고문서
수원 평강채씨 고문서
시흥 신안주씨 고문서
시흥 안동권씨 화천군파 고문서
시흥 이상기가 고문서
시흥 파평윤씨 고문서
안산 부곡 진주유씨 고문서
안성 양성 해주오씨 정무공파 고문서
양주(동두천) 안흥 광주정씨 고문서
여주 원주원씨 원두표 후손가 고문서
용인 오산 해주오씨 추탄공파 증가 고문서
이천 부발 풍천임씨 고문서
의정부 장암 반남박씨 서계 증가 고문서
하남 함평이씨 고문서
화성 거창신씨 고문서
화성 남양홍씨 고문서
화성 들목조씨 고문서
화성 수성최씨 한림공파 진사공후손 고문서
화성 함평이씨 고문서
화성 해풍김씨 고문서

광명 오리 이원익 종가 고문서

경기도 광명 오리에 세거한 전주이씨 이원익 종가의 고문서이다. 광명 오리 이원익 종가의 고문서는 2008년 충현박물관에서 발간한 『개관 5주년 기념 - 충현박물관 소장유물도록』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광명 오리 이원익 종가에는 고문서는 약 80점이 전래되었다.

이원익 종가는 태종의 12번째 아들 익령군 이치(1423-1465)를 시조로 한 전주이씨 익령군파의 후예이다. 이원익의 선조로는 파조이자 증조부인 익령군 이치, 조부 수천군 이정은, 부친 함천군 이억재를 들 수 있다. 이원익의 선조들은 왕가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4대 동안 벼슬에 오를 수 없었지만 벼슬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학문을 아끼고 선비다운 품행으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가풍은 수백 년간 후손들에게 면면히 이어져 검덕과 애민정신을 중시하는 명망 높은 가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충현박물관 소장유물도록에서 소개한 광명 오리 이원익 종가의 고문서는 약 80점이다. 이들을 종류와 수량별로 살펴보면, 교령류 43점, 소차계장류 1점, 증빙류 1점, 명문문기류 1점, 서간통고류 3점, 치부기록류 3점, 시문류 26점, 성책 고문서 2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령류에는 이원익의 교서(敎書)가 있다. <1651년 인조묘정배향 교서>는 인조의 묘정(廟庭)에 이원익을 배향한다는 내용의 교서이다. 이와 더불어 1696년부터 18세기 중반까지 발급된 이존도의 차첩, 교지, 녹패, 녹표 등이 전하고, 1705년부터 1729년까지 발급된 이인복의 백패, 홍패, 교지, 유서 등이 있다.

소차계장류에는 16세기 류성룡의 장계(狀啓)가 있다. 장계는 관리가 임금의 명을 받들고 지방에 가서 민심을 살핀 결과 보고서로 이는 류성룡이 임진왜란 중에 선조에게 전세(戰勢)상황을 보고한 문서의 초고본이다.

증빙류와 명문문기류에는 1726년 이존도 입의(立議)와 1642년 이원익 분재기(分財記)가 있다. 이존도는 입의에서 위토(位土)를 정비하고 관리 운영방식을 정식으로 만들어 자손 대대로 시행할 것

을 당부하고 있으며, 분재기에서 이원익은 후손들에게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하고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서간통고류에는 이원익의 간찰 3점이 있다. 1599년 간찰은 83세의 나이에 이원익이 자손들에게 선산에 묘를 쓸 것과 형제간의 화목을 당부한 내용이며, 1628년 간찰은 손자 수약이 연풍현감으로 부임한 후에 쓴 것으로 목민관으로서의 덕목을 열거하였다. 이와 별도로 이원익의 〈1630년 유서(遺書)〉도 전하는데, 이 문서는 이원익이 세상을 뜨기 전 후손들 간에 우애를 잃지 말 것과 검소할 것을 강조한 내용이다.

시문류에는 포은 정몽주의 시를 비롯한 이원익의 친필이 여러 점 전해진다. 이들은 대부분 이원익이 80세를 전후하여 완성한 것으로 필획에 힘이 넘치고, 자손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함을 엿볼 수 있다. 성책 고문서에는 17세기 초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첩(契帖)과 1714년 금오계첩이 있다. 17세기 초 계첩은 이원익이 도제조에 재임 중에 거행된 계회의 계첩으로, 내지 안쪽에 좌목(座目)이 남아있다. 여기에 1615년 이원익이 사역원의 도제조를 사직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로 보아 이것은 사역원에서 제작된 계첩으로 추정된다. 1714년 금오계첩은 의금부의 별칭인 금오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이 계모임을 갖고 의금부의 전경과 참석자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참고
문헌

충현박물관, 『개관5주년 기념 - 충현박물관 소장유물도록』, 20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광주 기곡 광주안씨 순암종가 고문서

경기도 광주군(廣州郡) 기곡(基谷)에 세거(世居)해 온 광주안씨(廣州安氏) 안정복(安鼎福, 1712-1791) 가문의 고문서이다. 광주 기곡 광주안씨의 고문서는 1990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고문서집성』 8-광주안씨·경주김씨편에 소개된 바 있다. 『고문서집성』에 따르면 본 가문에 소장된 고문서는 총 37종 272점이다.

광주 기곡 광주안씨는 고려 말 사간공 안성(安省, 1344-1421)의 후손 광양군의 종가로서 기곡(티골)에 세거하였다. 조선 중기에 안윤덕, 안황, 안응원 등의 명현이 배출되면서 사회적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실학자 순암 안정복을 배출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가문의 정치·사회적 위상을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경기도 광주안씨 가문의 고문서는 총 37종 272점이다. 이를 종류와 수량별로 살펴보면, 교령류(敎令類) 78점, 소차계장류(疏割啓狀類) 11점,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5점, 증빙류(證憑類) 5점,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 6점,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 141점, 치부기록류(置簿記錄通) 17점, 시문류(詩文類) 9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17세기 초부터 19세기 후반기에 이르는 기간에 작성된 문서이다.

먼저 교령류(敎令類)에 해당하는 관직 임명문서 등은 모두 74점이다. 1601년부터 1903년까지 100여 년간에 걸쳐 발급된 것인데, 이를 통해 안정복의 부(父)인 안극(安極)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거에 합격하거나 사관(仕官)을 지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녹패(祿牌)는 안정복이 1790년(정조 14)과 1791년(정조 15)년에 받은 것으로 총 4점이 전하는데, 1790년 7월과 10월에 정복은 광흥창(廣興倉)으로부터 각각 과미(科米)와 태(太)를 지급 받았다.

소차계장류(疏割啓狀類)에는 호적(戶籍) 2점과 소지류(所志類) 7점, 계초(啓草) 1점이 전한다. 이 중 호적은 숙종 10년(1684)의 안서규(安瑞奎) 처 덕수이씨의 준호구(准戶口)로서 이 가문의 경제규모를 짐작케 하는 자료이고, 소지(所志)는 대부분 묘위전(墓位田)이나 산송(山訟)과 관련된 기록이다.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에는 관(關) 2점, 차정첩(差定帖) 2점, 조홀

첩(照訖帖) 1점이 있다. 이들은 각각 서우(瑞羽), 철중(喆重), 경원(競遠) 대에 작성된 것이다.

증빙류(證憑類)에는 입안(立案) 2점, 수표(手標) 1점, 유서(遺書) 2점이 있다. 1722년 예조입안(禮曹立案)은 예조에서 안황(安滉)의 봉사손(奉祀孫)을 정하여 인정해준 문서이고, 2점의 유서는 극과 정복이 자손들에게 주는 가훈의 성격을 가진 문서로 이 가문이 처한 사회 경제적 당면문제와 아울러 가문의 내력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에는 분재기(分財記) 5점이 있다. 이 가운데 분급(分給)이 1점, 허여(許與)가 2점, 별급(別給)이 2점이다.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의 간찰(簡札)은 모두 139점이며 안극, 안정복, 안경증, 안철동 등 가문 내의 인물들이 서로 주고받은 사신(私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체로 용무, 안부, 경조, 통고 등에 대한 내용이 다수이고 학문적 토론을 주고받았다.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 17점 가운데 『宗契日記』는 1738년에서 1744년간 7년 동안의 종계 치부로서 도기(到記), 집사기(執事記), 명첩기(名帖記), 단기(單記), 봉사기(捧上記), 타작기(打作記), 식리기(息利記) 등이 실려 있다. 이는 광주안씨 가문의 문중계의 운영과 절차, 그리고 이와 수반되는 경제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중중회의록(宗中會議錄)』, 『종계명첩(宗契名帖)』, 『종계문부(宗契文簿)』 등도 이와 관련된 자료이다.

시문류(詩文類)에는 시육수(詩六首), 양세묘문(兩世墓文) 1점, 기패문(基牌文) 2점이 있다. 양세묘문은 서우와 극의 양대 비문이며, 이에는 공인이씨(안극 처) 묘지명, 안정복이 쓴 이자수어사(李子秀語序), 순암기(順庵記) 등이 점련되어 있다. 한편 묘비문에는 김안국이 찬술한 한세청(韓世淸)의 비문과 한복윤(韓復胤)의 비문 초(草)가 있다.

- 안성(安省, 1344-1421) : 고려 우왕초 진사에 합격하고, 1380년(우왕 6) 문과에 급제하여 보문각직학사(寶文閣直學士)를 거쳐 상주판관이 되어 청렴한 이름을 떨쳤다. 조선 개국 후, 1393년(태조 2) 청백리에 뽑혀 송경유후(松京留後)에 임명되었다.
- 안서우(安瑞羽, 1644-1735) : 1694년(숙종 20) 문과에 급제하였고, 성묘종사사건(聖廟從祀事件)에 연루되어 30년간 낙척(落拓)하였으며, 태안군수·울산부사를 지낸 뒤에는 무주에 살면서 산수승경을 즐기며 은거생활을 하였다.
- 안정복(安鼎福, 1712-1791) : 조선 후기의 역사학자이자 실학자이다.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 중심의 역사를 기록한 『동사강목』을 썼다. 훗날 신채호를 비롯한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참고
문헌

『고문서집성8-광주안씨·경주김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광주 기곡 광주안씨 순암종가
 (http://archive.aks.ac.kr/Family/T3/html/sub2_1.aspx?fid=B006a)

군포 속달 동래정씨 정난중 종가 고문서

경기도 군포시(軍浦市) 속달동(速達洞) 수리산(修理山) 기슭에 세겨해 온 동래정씨 정난중(鄭蘭宗, 1433-1489) 종가의 고문서이다. 군포 속달 동래정씨 정난중 종택의 고문서는 201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행한 『고문서집성』 07-동래정씨 동래부원군 정난중 종택편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본 가문에 소장된 고문서는 총 1,077점이다.

군포 속달 동래정씨 가문은 조선전기 훈구파의 중진으로 활동한 명신이자 서예가로 활동하였던 동래부원군 정난중(鄭蘭宗, 1433-1489)을 파조(派祖)로 하는 익혜공파(翼惠公派)의 종가이다. 속달동은 정난중의 사패지(賜牌之地)로서 정난중과 그의 부인 완산이씨의 장지가 이곳에 있고, 이후 정난중의 장자 정광보(鄭光輔, 1457-1524)가 속달동에 거처를 마련하였다. 동래정씨는 조선 초기로부터 구한말의 시기까지 고관대작을 끊임없이 배출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명문벌열(名門閥閥) 가운데 하나였다.

군포 동래정씨 정난중종가의 고문서는 총 1,077점이다. 이를 종류와 수령별로 살펴보면, 교령류(敎令類) 110점, 소차계장류(疏劄啓狀類) 15점,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1점, 증빙류(證憑類) 214점,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 1점,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 약 600여 점, 치부기록류(置簿記錄通) 168점, 시문류(詩文類) 11점, 기타 문서 45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령류(敎令類)에는 홍패(紅牌)가 2점이며, 3점의 『교지첩』에 수록된 문서들이 109점이다. 홍패는 문과 홍패와 무과 홍패가 각 1점씩인데, 전자는 1861년(철종 12) 정학묵의 홍패이고, 후자는 1891년(고종 28) 정규선의 홍패이다. 3점의 교지첩은 시대에 따른 인물별로 관련 문서를 첩으로 엮었다. 첫 번째 교지첩은 정순우로부터 정사급까지 7대에 걸친 27점의 문서를 수록하였으며, 두 번째 교지첩은 정사급부터 정한동까지 4대 29점의 문서를 수록하였다. 세 번째 『승지공교지첩책(承旨公敎旨帖冊)』은 정학묵과 관련한 문서 54점의 문서를 엮은 것이다.

소차계장류(疏劄啓狀類)에는 8건 15점의 소지류(所志類) 문서가

있다. 이 가운데 기축년에 호역(戶役)의 능봉(勤捧)과 관련하여 순찰사에 올린 품목(稟目)과 1899년(광무 3) 문중 내의 분쟁과 관련하여 문중에서 장예원(掌禮院)에 올린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6건은 초본이다.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에는 1890년(고종 27) 병조에서 경상도관찰사에게 보낸 관(關) 1점이 있다. 이 문서는 송천근(宋千根)을 순장(巡將)으로 차정하는 내용이다.

증빙류(證憑類)에 속하는 문서는 총 214점이다. 2점의 입안(立案)과 206점의 호적류(戶籍類) 문서, 3점의 수표(手標)와 2점의 입의 및 1점의 첩(帖)이 이에 해당한다. 2점의 입안은 모두 계후(繼後)를 국가에서 승인해 주는 계후입안(繼後立案)이다. 5건 206점의 호적류 문서에는 준호구(準戶口) 및 호구단자(戶口單子)를 포함하는 조선시대 호구문서와 함께 통표(統表) 및 호적표를 포괄하는 대한제국기의 광무호적, 일제강점기의 호적등본을 포함한다. 입의 2점은 성책고문서로 문중 내의 합의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1점의 첩은 1860년(철종 11) 7월 춘당대(春塘臺)에서 치러진 도기과(到記科)에서 합격한 정학묵에게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나머지 3점의 수표는 1910년 이후의 문서로, 하나는 꼭써 문중에서 동래정씨 묘역을 침범하였음을 인정하는 문서이고, 나머지 2점은 측량에 대한 수수료 및 회묵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 문서이다.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에는 1904년(광무 8) 차성근(車聖根)이 노(奴) 창운(昌云)에게 초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 1점만이 있다.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는 약 600여 점으로 개별고문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통문이 20점, 혼서가 2점이다. 나머지는 모두 간찰류 문서로 그 수는 550여 점에 이른다. 통문은 1877년(고종 14)에서 해방 후인 1962년에 걸쳐 있으며, 모두 문중 내의 대소사와 관련된 것들이다. 혼서 가운데 하나는 1921년 정규선의 차자 혼례시의 문서이며, 다른 하나는 연결단자(涓吉單子)이다. 간찰은 연대 확인이 가능한 문서를 볼 때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의 간찰이며, 한말과 해방 후의 문서가 일부 혼재한다. 안부 등의 일상사와 정규선 등의 상사(喪事)와 관련한 위장(慰狀)을 다수 확인할 수 있으며, 족보의 편찬 등 종가의 역할과 관련한 서간들도 다수 존재한다.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에는 연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대체로 대한제국기에서 일제강점기 시기의 자료들로 추정할 수 있다. 각종의 금전거래와 관련한 문서, 흥정기, 추수기 등의 치부문서와 함께 전답 및 소작과 관련한 치부문서들도 존재한다. 성책고문서 및 근대문서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들의 자료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들을 통하여 대한제국기 이후 정난중 종택의 경제생활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시문류(詩文類)에는 제문(祭文)과 만사(輓詞), 시권(試券)을 비롯하여 기타 낱장에 기록한 시(詩)·서(序) 등의 시문 기록들이 있다. 제문 가운데는 1874년(고종 11) 정한동의 치제문(致祭文) 두 점이 존재하며, 그 밖에는 정훈·정학묵·정규선 등 집안 내에서 누대에 걸쳐 작성한 제문들이다. 만사는 6점이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4점의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시기는 1925년 5월로, 정규선의 상사에 만들어진 만사임을 알 수 있다. 시권은 3점이 남아있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찬자를 알 수 있는 것은 1861년(철종 12) 정학묵이 식년문과 전시에서 작성한 시권 하나뿐이다.

기타 문서로 동래정씨 선조의 묘역이 위치한 동래 화지산(華池山)과 정산(定山) 대박동(大璞洞)에 관련된 여러 문서들을 별도로 묶은 것이 있다. 화지산에는 동래정씨 시조 안일공(安逸公)의 묘소와 재실 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문서로는 관련 절목(節目)과 제사 관련 문서 및 산도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동래정씨 문중에서 지방관에 올린 소장도 한 점 존재하는데, 이는 화지산에 대한 인근 백성의 침범을 막아달라는 내용이다. 대박동은 복재공(僕財公)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복재공의 묘소는 그 위치가 알려지지 않다가 후대에 이르러 정산 대박동의 묘소를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이와 관련한 제반 기록과 통문, 산송(山訟)과 관련한 간찰, 산도 등의 문서가 분류되어 있다. 또 관련 절목과 묘비의 탁본이 함께 묶여 있다.

-
- 정난중(鄭蘭宗, 1433-1489) : 1456년(세조 2) 문과에 급제한 후 세조 13년 황해도 관찰사로서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고 북방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 평안북도 오정진에 40리 장성을 축조했다. 1470년(성종 1)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후 좌리공신 4등으로 동래군에 봉해졌다. 성리학에 밝고 서예에 일가를 이루어 초서·예서에 능통했다. 원각사비·돈화문 현판 등을 남겼다.
 - 정광필(鄭光弼, 1462-1538) : 1492년(성종 23) 진사에 오르고 그 해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그 뒤 성균관학유·의정부사록·봉상시직장을 역임하였다. 성균관학정에 있을 때 좌의정 이극균(李克均)의 발탁으로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504년(연산군 10)에 직제학을 거쳐 이조참의가 되었는데, 임금의 사냥이 너무 잦다고 간하였다가 아산으로 유배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 후 부제학에 오르고, 그 뒤 이조참판·예조판서·대제학을 거쳐 1510년 우참찬으로 전라도도순찰사가 되어 삼포왜란을 수습하고 병조판서에 올랐다.
 - 정학묵(鄭學默, 1829-1903) : 동래정씨 27세손인 정학묵은 조선전기의 명신으로 이름이 높았던 순정좌리공신 동래부원군 정난종을 불천위(不遷位)로 모시는 가문의 봉

사손(奉祀孫)이었다. 학묵의 가계는 해당 가문의 적손으로 정난종이 현재의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일대를 사패지(賜牌地)로 받아 정착한 이래 현재까지도 동일지역에 세거하고 있다. 또한 이 종가는 사패지로 받은 세거지 인근을 비롯하여 경기 일대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였다. 이후 정학묵은 관직에 나아가 1894년에는 정3품 당상관인 삼사(三司)의 승지(承旨) 및 이조참의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품계는 1902년에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까지 제수되었다.

참고 문헌 | 『고문서집성 97-동래정씨 동래부원군 정난종 종택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군포 속달 동래정씨 정난종 종가
(<http://archive.aks.ac.kr/Family/T1/html/main.aspx?fid=B066a>)

남양주 해주정씨 해평부원군 종가 고문서

경기도 남양주 사릉에 세거해 온 해주정씨 해평부원군 정미수(鄭眉壽, 1456-1512) 종가의 고문서이다. 남양주 해주정씨의 고문서는 2012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명가의고문서』 9-해주정씨 해평부원군 종가편-에 소개된 바 있다. 본 가문에는 조선 초기에서 말기까지 약 500년에 걸쳐 형성된 문서 약 1,800여 점이 현전하고 있다.

남양주 해주정씨는 해평부원군 정미수(鄭眉壽)의 종가로서 18세기부터 남양주 사릉에 세거하였다. 황해도 해주의 토착 성씨로 고려시대에 재경 사족으로 성장하였고, 해주정씨의 시조로 칭송되는 정숙(鄭肅)은 고려시대 문과에 급제하여 전법정랑(典法正郎)을 역임한 인물이다. 조선의 개국 과정에서 정이(鄭易)가 태종 이방원과의 인연으로 중용되면서 가문의 격이 크게 신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후 정미수(鄭眉壽)가 정국공신(靖國功臣)이 되고 국가로부터 경제적·정치적 특권을 보장받으면서 해주정씨 가문의 명예를 드높였다.

따라서 남양주 해주정씨의 고문서에는 본 가문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된 문서들과 이들이 누린 경제적 특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교지와 녹패, 분재기, 준호구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조선 초기 이래 해평부원군 종가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 전기 해주정씨의 경제적 기반과 특권을 잘 보여주는 문서로는 1450년(세종 32) 춘성부부부인 별급문기와 1506년(중종 1) 정미수 사패교지(賜牌教旨)가 있다. 전자는 정충경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부인 여흥민씨가 남편이 남긴 재산과 자신의 재산을 작은 딸인 영웅대군의 처 춘성부부인에게 물려주는 내용이다. 노비 57구를 상속하였는데 이 중 10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흥민씨가 친정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었다. 이는 혼인을 매개로 한 경제적 연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당대 해주정씨의 경제 기반의 규모를 알 수 있게 한다. 후자는 정미수가 정국공신이 되어 토지 20결, 노비 3구, 반당(伴倘) 6인, 구사(丘史) 3인에 추가적으로 중앙 관

부 소속의 공노비 7구를 사급 받은 내용이다. 사회적·경제적 특권이 중첩된 해주정씨가 경제적인 위상을 보여 준다.

17세기 해주정씨의 사회적 위상과 경제 기반의 확장을 보여주는 문서로는 1619년(광해군 11) 정효준 별급문기와 1657년(효종 8) 정중휘 별급문기가 있다. 각각 소과에 급제한 아들, 대과에 급제한 손자에게 준 것인데 분재기에 당대 명신이자 명문가 출신 관리 여러 명이 증인으로 동참하였다. 이는 당시 고관대작들과 깊은 교류를 나눈 해주정씨의 입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690년(숙종 16) 정중휘의 준호구에는 거주지별 노비의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총 150구로서 상당히 방대한 규모인데 이 중 한양에 슬거한 노비가 41구, 전국에 산재한 외거 노비가 91구, 도망한 노비가 18구이다. 도망노비(逃亡奴婢)는 규모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율이다.

18세기 문서에는 해주정씨의 정치적 교류와 가산 운영을 보여주는 문서가 있다. 영조 즉위년 정효준의 시호에 이어 1758년(영조 34년) 정중 증시교지(贈諡教旨)는 정중에게 ‘헌민(獻愍)’의 시호를 내린 것인데, 이러한 연이은 증시는 당대 해주정씨가 여전히 높은 사회적 입지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더불어 선대 유업에 대한 유지를 위해 사릉 해주정씨 분묘 및 노산대군(정순왕후) 부인의 묘역에 대한 수호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1688년(숙종 14) 노산대군 부인 수묘군 등장(等狀)을 통해 알 수 있다. 수묘군을 동원하여 예조로부터 분묘의 금양을 요청하는 등의 수호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또한 1699년(숙종 25) 소지는 사릉의 화소(火巢) 국내(局內)로 전답이 수용되자 가대(家堡) 대신 현금이나 전(田)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해평부원군 종가의 가산은 노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노비 도망과 공노비 해방 등으로 노비 관리의 한계가 발생하였다. 노비 노동력에 의한 생산성보다 토지 운영을 통한 생산성이 높음에 따라 토지 중심의 가산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다. 이러한 가산 구조의 변화 움직임은 분재기에 나타나는데, 1738년(영조 14) 정택조 5남매 화회문기가 그것이다. 노비는 전체 137구이며, 이들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강원도와 경기도에 일부 분포한다. 별급이기 때문에 양주 및 경기도 소유 노비가 누락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18세기 중엽까지 노비 소유 규모는 17세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토지는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양주 정착 이후의 변화하는 가산의 추이를 반영한다. 한편 전답은 17세기 말에 비해 증가한 규모이다. 이를 통해 해주정씨가 가문이 선대의 노비 중심 가산 구조에서 토지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재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정이(鄭易, ?-1425) : 여말선초 혼란기에 유연한 현실 대응과 왕실혼을 바탕으로 이후 해주정씨의 가계(家格)이 크게 신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383년(우왕 9) 이방원과 동방으로 과거에 급제한 것을 인연으로 태종 즉위 후 군신이자 왕실의 인척으로 크게 입신했다.
 - 정미수(鄭眉壽, 1456-1512) :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공신 3등에 녹훈되어 정치적, 사회적 특권을 부여받았다. 해평부원군에 봉해지고 좌찬성을 역임했다. 이로써 계유정난 이후 위기의 상황을 일시에 전환하고 가계(家格)을 크게 신장시켰다. 정미수의 손녀가 중종과 희빈 남양홍씨 사이에 태어난 금원군과 혼인하면서 해주정씨의 왕실혼 전통을 이었다.

참고 문헌 | 『명가의고문서』9-해주정씨 해평부원군 종가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수원 평강채씨 고문서

수원화성박물관에 기증된 채제공 후손가의 고문서이다. 수원 평강채씨 번암 채제공 후손가의 고문서는 2013년 수원화성박물관에서 발간한 『번암 채제공』에 소개된 바 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원 평강채씨 고문서는 총 12점이다.

수원 평강채씨는 18세기 후반 정조 치세에 남인을 대표했던 정치가이자 문학가였던 번암 채제공의 후손가이다. 현재 수원화성박물관에 수장된 채제공 후손가의 유물은 채제공의 후손인 채호석 선생이 기증한 것이다. 채제공은 초대 화성유수(華城留守)를 지냈고 화성 성역(城役)을 총괄하였기 때문에 수원 지역과 누구보다도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수원화성박물관에 기증된 채제공 후손가의 유물은 총 77건 150점이다. 이중 채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문서는 모두 12점이다. 수원화성박물관의 분류에 따르면, 채제공 후손가의 고문서에는 채제공 사후에 내린 증시 교지 1점, 전령 4점, 유서 1점이 있고, 윤음 2점과 유서 2점은 등본으로 남아있다. 또한 무사(武士) 시험 결과가 적힌 방문(榜文) 1점이 있다. 간찰에는 채제공이 쓴 편지 3점, 받은 편지 10점이 있고 채홍원과 채과영이 쓴 편지가 각각 2점, 기타 후대의 간찰 6점이 있으며, 시문 및 기타 문서는 14점이다.

1799년 교지는 채제공에게 문숙(文肅)이라는 시호를 내린 증시 교지이다. 채제공은 사후에 민첩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마음을 꼭 잡아 결단한다는 뜻의 문숙이란 시호를 받았다. 1786년 유서는 채제공을 평안도병마절도사에 임명한 것이다. 전령 4점은 모두 정조가 채제공에게 내린 것이다. 1793년 전령은 수원부 유수로 재직 중인 채제공에게 장용영의사를 겸하게 한 것이고, 1793년 전령은 장용영의사에게 응제(應製)에 참여하라는 내용이다. 1793년 전령은 영의정 채제공에게 전 수원부유수, 장용영의사의 호부(虎符)와 수원부의 발병부(發兵符)를 신임 유수 이명식에게 인계하라는 것인데, 이 문서에는 정조의 어압(御押)이 남아있다.

방문(榜文)은 수원부 읍내 무사들의 시험 결과를 기록한 방문이

다. 윤음(綸音) 등본 2건 중 하나는 1794년 화성 성역을 감독하는 신하들에게 내린 윤음이고, 다른 하나는 정순왕후의 존호를 올리는 일로 대신과 예조 당상(堂上)에게 선유(宣諭)하는 윤음이다. 이들 문서는 각각 『홍재전서』 권 28, 29에 실려 있다. 유서 등본 2통 중 하나는 1797년 정조가 좌의정 채제공에게 노비 공신의 폐단을 제거할 방법에 대해 세밀히 연구하여 올리도록 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793년 채제공을 영의정에 임명한 뒤 내린 유서이다. 이들 역시 『홍재전서』 권 37에 실려 있다.

간찰에는 채제공이 보낸 간찰 3건, 받은 간찰 10건, 아들 채홍원이 보낸 편지 2건, 손자 채과영이 보낸 편지 2건, 기타 편지 6건이 있다. 이 가운데 채제공이 받은 간찰 10건은 병중에 있던 채제공의 상태를 걱정하는 정조의 말을 전하는 내용인데, 이는 정조가 채제공의 안위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잘 전하고 있다. 이는 정조와 채제공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시문에는 1904년 김상익이 채제공의 6세손 채규오에게 써준 글과 조현이 지은 시가 있다. 기타문서에는 채제공과 관련된 정치적 현안에 관한 글 9건이 남아있는데, 일부만 남아있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참고
문헌

『번암 채제공』, 수원화성박물관, 2013.
수원화성박물관(<http://hsmuseum.suwo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시흥 신안주씨 고문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소재한 신안주씨가에서 소장한 고문서이다. 시흥 신안주씨의 고문서는 2006년 시흥시에서 발간한 『고서 고문서로 보는 조선시대 시흥』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시흥 과평윤씨가문 소장 고문서 중에는 조사가 끝난 토지매매명문(明文) 약 80점과 몇 건의 발활(白活) 및 배자(牌子)가 확인되었다.

신안주씨는 1905년을 전후하여 인천부 황등천면 중림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처음으로 이주한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농장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실제 토지명문에도 1905년을 전후하여 신안주씨가 토지를 대거 매득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신안주씨가에는 1731년부터 1910년에 이르기까지 작성한 토지매매 명문(明文)이 남아있다. 명문에 등장하는 지역은 신안주씨의 세거지인 인천 황등천면 중림역 인근이 중심을 이루며, 이 외에 중림마을과 바로 이어진 시흥시 계수동, 은행동 등 시흥시 지역과 인접한 광명시 노온사동, 의왕시 초평동에 이르기까지 한강 이남 경기도 곳곳에 걸쳐 있다. 현재 시흥시에 속하는 지역 중 토지매매문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은 황등천면, 신고개면이다. 이곳은 각각 소래산의 동쪽과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전반면과 함께 인천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황등천면은 인천부에서 동쪽으로 40리 거리에 위치하였으며 신고개면은 인천부에 동남쪽으로 30리 거리에 위치하였다. 일반적으로 전답(田畓)의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증인이 한자리에 모여 매매계약서에 해당하는 명문(明文)을 작성한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으로부터 공증서에 해당하는 입안(立案)을 발급 받아야 했는데, 하지만 신안주씨의 명문에는 그에 대한 입안을 받은 문서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1700년대 중반 이후 입안을 받는 절차가 점점 사라져가는 당시의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신안주씨 문서 중에는 몇 건의 발활(白活)과 배자(牌子)

가 확인된다. 1876년 발괄은 김쾌손이 물려받은 토지의 문건을 소실하고 이에 대한 입지(立旨)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고, 1886년 발괄은 김정억이 관찰사에게 올린 발괄이다. 1815년 배자는 상전(上典) 최일이 자신의 노(奴) 역만에게 전답(田畓)을 팔아오도록 자신의 권리를 위임한 것이고, 1824년 배자 역시 상전 윤(尹)이 자신의 노 돌세에게 전답(田畓)을 팔아오도록 자신의 권리를 위임한 것이다.

참고
문헌

『고서 고문서로 보는 조선시대 시흥』, 시흥시, 200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시흥 안동권씨 화천군파 고문서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에 세거한 안동권씨 화천군파의 고문서이다. 시흥 안동권씨 화천군파의 고문서는 2006년 시흥시에서 발간한 『고서고문서로 보는 조선시대 시흥』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본 가문에 소장된 고문서는 총 4점이다.

시흥시 하중동 208번지에는 시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된 ‘관곡지’라는 연못이 있다. 조선 전기의 유명한 관료인 강희맹이 명나라 남경에서 꽃은 흰데 끝부분만 옅은 붉은 빛을 띠는 건당강의 연꽃 씨를 가져다 심은 곳으로 유명하다. 현재 이 연못은 안동권씨 화천군파 종중의 소유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강희맹의 딸이 권만형과 결혼한 것을 계기로 관곡지를 포함한 주변의 토지가 강희맹의 딸 몫으로 분재 되어 대대로 안동권씨로 대물림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연못의 지역 내 위상과 관리방식, 연지기의 존재 등을 전해주는 조선 후기의 관문서와 사문서가 남아있다. 관곡지 관련 고문서로는 1845년부터 1900년에 작성된 문서 4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1845년 안산군수 서목(書目)이다. 이는 현종 11년 8월 13일 당시 안산군수 권용정이 관곡지에 연지기 6명을 두고 일체의 다른 역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경기도관찰사 이계조에게 보고한 서목이다. 이에 대하여 관찰사는 ‘그대로 시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두 번째 문서는 1846년 연지사적(蓮池事蹟)이다. 이는 현종 12년 2월에 당시 안산군수 권용정이 관곡지의 유래 및 수축 경과, 연지기 배치에 대한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한 책으로서 ‘연지사적(蓮池事蹟)’과 ‘연지수치후보초(蓮池修治後報草)’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문서는 1883년 안산군 완문(完文)이다. 이는 고종 20년 8월에 시간이 지나면서 1845년에 연지기에게 부과하지 말도록 조치한 각종 잡역을 부과하는 폐단이 발생하여 연못 관리가 소홀해

지자 이에 대해 재확인하기 위하여 안산군에서 발행한 것이다.

네 번째 문서는 1900년 연지준지기(蓮池浚池記)이다. 이는 고종 4년 5월에 권만형의 후손인 권태선이 후손에게 보이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더 이상 연지기를 통해 관곡지를 관리할 수 없게 된 사정과 종종 합의를 거쳐 선산의 나무를 베어 팔아 500냥을 마련하여 연못의 진흙을 치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작은 연못과 관련하여 관에서 공식적으로 연지기를 배치하고, 연지기에게 일체의 다른 역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조선후기 면역 사례나 연못 관리에 대한 특수 사례 연구 등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고서 고문서로 보는 조선시대 시흥』, 시흥시, 200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시흥 이상기가 고문서

경기도 시흥시 산현동 양회다리 마을에 세거한 이상기가의 고문서이다. 시흥 이상기가의 고문서는 2006년 시흥시에서 발간한 『고서 고문서로 보는 조선시대 시흥』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본 가문에 소장된 고문서는 총 12점이다.

이상기의 본관은 전주로, 안산군 초산면 산현리(현 시흥시 산현동) 출신으로 17세기에 활동한 인물이다. 이상기기에 소장된 고문서 12점은 모두 18, 19세기 준호구 자료이다. 12점의 준호구에서 호수로 등장하는 자는 세 명에 불과한데, 이상기의 증손자인 이목형은 1762년(영조 38)부터 1792년(정조 16)까지, 이병황은 1848년(헌종 14)부터 1881년(고종 18)까지, 이재용은 1891년(고종 28)에 준호구의 호수로 등장한다. 12점의 준호구를 보면, 이목형이 호수로 등장하는 1762년부터 1792년까지는 한성부에서 거주하였다가 손자 이병황이 호수로 등장하는 1848년 이후로는 고향인 안산군 초산면 산현리에서 줄곧 거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시기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762년부터 1792년까지 발급된 이목형의 준호구이다. 1762년 준호구는 한성부 남부 낙선방 왜관동계에 거주하는 유학 이목형에게 발급한 것이다. 그의 4조와 노비들이 기재되어있다. 1774년, 1786년, 1792년 준호구는 한성부 서부 반석방 미전상계에 거주하는 유학 이목형에게 발급한 것이다. 동거하는 가족이 없으며 노비들만 기재되었다. 1848년(헌종 14)부터 1881년(고종 18)까지 발급된 이병황의 준호구이다. 1848년 준호구는 안산군 초산면에 거주하는 유학 이병황과 그의 부, 조부, 증조부, 처 윤씨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855년, 1861년, 1867년 준호구에는 유학 이병황과 그의 처 윤씨, 아들 동환, 며느리 정씨 등과 소유 노비 3명이 되었다. 1870년 준호구에는 기존 내용에 손자 채용, 손자며느리 정씨가 추가되었다. 1879년, 1881년 준

호구에는 기존 내용에 둘째 손자 세규, 손자며느리 구씨, 증손자 회동이 추가되었으며, 노비를 기재하지 않았다. 1891년 발급된 이재용의 준호구이다. 1891년 준호구는 안산군 초산면 산현리에 거주하는 유학 이재용에게 발급된 것이다. 동거하는 가족은 처 정씨, 아들 남진, 며느리 이씨 등이며 노비 5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현재 발굴된 준호구 자료의 대다수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지역 특히 서울 근교인 시흥의 준호구가 전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
문헌

『고서 고문서로 보는 조선시대 시흥』, 시흥시, 200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시흥 파평윤씨 고문서

경기도 시흥(옛 안산 지역)에 세거한 파평윤씨 충정공(忠正公)파 윤민헌 일가의 고문서이다. 시흥 파평윤씨의 고문서는 2006년 시흥시에서 발간한 『고서 고문서로 보는 조선시대 시흥』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시흥 파평윤씨 가문 소장 고문서는 110점인데, 모두 17-19세기에 발급된 관직 임명문서인 고신(告身)이다.

윤민헌 일가는 경화사족으로 일찍이 안산(현 시흥시 산현동 일대)에 정착하여 세거한 명문 가문이다. 이들 일가는 서인, 노론계의 당색을 이어 왔는데, 이는 윤민헌(尹民獻, 1562~1628)이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문인이었기 때문이다. 윤민헌 일가의 인물들은 벼슬을 하며 정국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외방 한직으로 물러나거나 선영(先塋)이 있는 안산 향리로 퇴거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가문이 정치적으로 큰 몰락을 겪지 않고 꾸준히 관직을 이어나갔다.

현재 윤민헌 일가의 고문서는 17~19세기에 발급된 고신(告身) 110점이다. 고신 110점은 교지 87점(추증교지 4점 포함)과 부인 교지 7점(추증교지 4점 포함), 이조(吏曹) 발급 고신 5점, 홍패 4점, 백패 5점, 차첩 2점 등이다. 이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민헌과 그 부인이 발급받은 고신은 모두 5점이다. 1609년 홍패는 윤민헌이 문과에 급제하고 받은 것이고, 1646년과 1662년 추증교지 4점은 윤민헌과 그의 처 김씨가 사후에 발급받은 것이다.

윤강(1597~1667)과 그 부인이 발급받은 고신은 모두 13점이다. 1624년 홍패는 윤강이 문과에 급제하여 받은 것이고, 1653년부터 1659년 사이의 교지는 그가 벼슬 생활을 하면서 발급받은 것이다. 사후 윤강과 그의 두 명의 처에게 발급된 추증교지 5점이 있다.

윤지미와 그 부인이 발급받은 고신은 모두 20점이다. 윤지미가 생원시에 합격하고 받은 백패 1점과 문과에 급제하고

받은 홍패 1점이 있고, 관직 임명 교지 16점과 처 이씨의 추증교지 1점 등이 있다.

윤재의 고신으로 1684년 발급받은 교첩 1점이 있고, 윤상형의 고신은 교지 10점과 차첩 1점 모두 11점이다. 윤경이 발급받은 고신은 모두 17점이다. 1728년 교첩 1점, 1738년 백패 2점이 있고, 1742년부터 1755년까지 관직생활을 하면서 발급받은 교지 14점이 있다.

윤행수가 발급받은 고신은 모두 13점이다. 1771년 문과 병과(丙科) 제8인에 급제한 홍패를 시작으로 1776년부터 1780년까지 발급받은 교지 12점이 있다.

윤칭의 고신은 모두 8점이다. 1783년 생원시 3등 제 65인에 입격한 백패, 1790년부터 4년간 이조로부터 발급받은 교첩 3점과 1795년부터 1800년까지 관직에 임명된 교지 4점이 있다.

윤영원의 고신은 모두 10점이다. 1833년 이조로부터 발급받은 차첩 1점과 1834년부터 1844년 사이 관직에 임명된 교지 9점이 있다.

윤영식의 고신으로는 1813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받은 백패 1점이 전하며, 윤완의 고신은 1865년부터 1876년까지 그를 조봉대부 행중친부직장, 통훈대부 행장악원주부 등의 관직에 임명한 교지 11점이다.

참고
문헌

『고서 고문서로 보는 조선시대 시흥』, 시흥시, 200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안산 부곡 진주유씨 고문서

경기도 안산시(安山市) 부곡동(釜谷洞)에 세거해 온 진주유씨 가문의 고문서이다. 경기도 안산 부곡 진주유씨의 고문서는 2002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행한 『고문서집성』 58-안산 진주유씨편-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본 가문에 소장된 고문서는 모두 588점이다.

안산 부곡 진주유씨는 현재 안산시 부곡동 세거하였으며, 당호(堂號)는 경성당(竟成堂)이다. 경성당은 안산 부곡 일대 진주유씨가 차종가(次宗家)를 지칭하는데, 본 고문서가 차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라 하여 일명 경성당 고문서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차종가 후손으로서 가장 현달한 인물은 대한제국기의 모산(帽山) 유원성(柳遠聲, 1851-1945)이며, 실제 소장 고문서 가운데서도 유원성의 공사 이력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안산 부곡 진주유씨의 고문서는 총 588점이다. 이 가운데 낱장으로 된 개별문서는 531점이며, 성책고문서는 57책이다. 이를 종류와 수량별로 살펴보면, 교령류(敎令類) 59점, 소차계장류(疏劄啓狀類) 51점,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77점, 증빙류(證憑類) 24점,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 53점,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 339점, 치부기록류(置簿記錄通) 63점(성책 54점), 시문류(詩文類) 19점(성책 3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령류(敎令類)는 백패(白牌)를 비롯하여 모두 유원성의 관력과 관계된 것이다. 고신(告身)은 유원성이 법무, 평리원, 예식원의 관원 및 군수(郡守) 등으로 임용될 때 받은 것이며, 차정첩(差定帖) 또한 그가 각종 국가의 의례에 참여하면서 임시 직책을 수행할 때 받은 것이다. 대한제국기의 관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소차계장류(疏劄啓狀類) 또한 소지(所志)를 제외하면 유원성이 개천군수 등 외방 수령으로 재직할 때의 것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특이한 것이 14점에 달하는 복수단자(伏受單子)인데, 이는 이 가문을 통해 확인되는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소지의 내용은 안산에 소재한 진안위의 산지(湍山·崔時洞山·山亭子洞·乾之山·伐乾里馬下山·廣德山)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금화(禁火)·금벌(禁伐)

을 요청한 것이다.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에 분류된 훈령, 전령, 조회 등 77건의 관문서도 모두 유원성 당대의 것으로서 대한제국기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또 조회(照會), 죄인상송장(罪人上送狀) 등이 새로운 양식의 문서가 등장하는 점도 시대 변화와 더불어 주목되는 점이다.

증빙류(證憑類) 또한 유원성과 그의 아들 유한수 대의 것으로서 대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작성된 것들이다. 1798년에 작성된 분재기는 이 가문의 경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 분재기는 대종손 유신(1748-1790)이 죽은 후 자식들 간에 이루어진 화회 분재의 내용을 적은 것이다.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 중 궁방전 관리권인 도장권은 이 가문의 20세기 초까지의 가정 경제의 주축을 이룬 항목이었다. 그 계기가 되는 문건이 도장문기(導掌文記)이다. 도장문기는 방전의 관리권(導掌權)을 사고판 일종의 매매문서이다.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에는 통문(通文) 5점, 간찰(簡札) 217점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유원성과 그 아들 유한수 당대에 작성된 것으로 유원성의 공사 관계 및 친인척들과 오간 편지가 대부분이다. 특히 유원성이 군수 등 중외의 관원 자격으로 주고받은 서간이 많아 대한제국기 및 일제강점기 사회사 연구에 중요하다.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 중 추수기에는 이 가문의 실제적인 경제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데 주로 황해도 백천(白川)에 있는 전답에 추수 상황을 적은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백천은 유씨가 경제력 터전이 있던 지역으로서 그 원천은 조선후기 유씨가에서 확보한 도장권에 있었다.

시문류(詩文類)에는 묘지, 행장, 제문 등 다양한 문서가 있다. 이 가운데 〈고행록(苦行錄)〉이 대표적 문서라 할 수 있다. 고행록은 18세기 초 유명천(1633-1705)의 부인 한산이씨(1659-1727)가 한글로 쓴 일기이다. 이씨의 아버지는 수빈(壽賓), 증조부는 판서 이경전(李慶全)이다. 충청도 예산 동학동에서 태어났다. 18세에 시집을 와 남편의 직책에 따라 정부인 품계를 받았고, 32세 때에는 정경부인의 지위에 올랐다. 이 일기 내용은 남편 유명천의 인생유전과 직접 관계된 일을 토대로 집필한 것이다. 고행록이란 제명 자체에서 그 남편의 정치적 역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 일기는 이씨 부인이 시집와서 위와 같은 남편의 유배생활과 집안의 겹치는 우환으로 인해 겪은 고행담을 담고 있다. 이 일기에 대해 1741년에 종손인 유경중이 기문(記文)을 붙였다. 또 이 일기를 이씨 부인의 8세손인 유해엽의 부인 안동권씨(1908-1967)가 18세 때인 1926년에 이를 직접 등사한 사본도 남아있다.

- 유근(柳根, 1549-1627) : 유격(柳格)과 유근(柳根) 당대는 유씨의 당색(黨色)의 분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였다. 원래 유씨가 선대 인물 가운데는 을사사화에 피화된 유인숙·유희령이 대표적 사림과였으며, 이들의 행적은 그 후손들에게 칭송, 전수되었다. 이 같은 유씨의 성향은 혼인 및 사우 관계로 드러나며, 그 결과 선조 대 이후에는 동인(東人), 인종반정 이후에는 남인(南人)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유시회(柳時會, 1562-1635) : 1595년(선조 28) 진사 2등으로 합격하였으며, 음서로 용천·순안부사 등 11개 고을의 수령을 지냈다. 또 당시 그가 위성공신 1등에 책봉됨으로써 사회적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다. 그는 가정적으로도 윤희봉사의 관행을 없애고 사대 기제를 혼자서 향사하는 유교적 관행을 정착시켰다.
- 유석(柳碩, 1595-1655) : 1613년(광해군 5)에 진사에 입격하고 1625년(인조 3)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이후 중소 관직을 거쳐 최종으로 강원도 감사를 지냈다. 그는 남인으로서 유씨의 정치적 성격을 굳힌 인물이기도 하다.
- 유명천(柳命天, 1633-1705), 유명현(柳命賢, 1643-1704) : 유명천은 1673년(현종 13) 40세의 나이로 별시 문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이조·예조·호조판서, 관중추부사 등 내외의 청환(淸宦)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유명현은 현종 14년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형인 유명천과 함께 형조 이조 공조판서를 지냈다. 유명천·유명현 당대 유씨는 사천목씨 목내선(睦來善) 가문, 여흥민씨 민암(閔黯) 가문과 더불어 기호의 삼대 남인가문(濁南)으로 일컬어질 정도였다.
- 유원성(柳遠聲, 1851-1945) : 유씨의 중요 문서는 모산 유원성 당대에 작성된 것이다. 유원성은 아버지 유방, 어머니 고령신씨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에 가학으로 학문을 익힌 뒤 1874년(고종 11) 증광 회시에 생원으로 입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그 이후 1900년 명성황후 산릉도감 낭청으로 첫 출사를 시작으로 1906년 평안도 개천군수, 맹산군수를 지냈다. 1910년 국망과 더불어 관직을 버리고 안산에 칩거하면서 일제의 회유와 탄압에 굴하지 않았다. 194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지조를 지켰다.

참고 문헌 | 『고문서집성 58-안산 진주유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안산 부곡 진주유씨 경성당
 (<http://archive.aks.ac.kr/Family/T3/html/main.aspx?fid=B038a>)

안성 양성 해주오씨 정무공파 고문서

경기도 안성 양성면 덕봉리에 세거한 안성 해주오씨 정무공파의 고문서이다. 안성 해주오씨의 고문서는 2014년 해주오씨 정무공파 종중에서 발간한 『세적(世蹟)』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해주오씨 정무공파의 고문서는 종중 고문서와 종가 고문서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종중 소장 고문서는 총 47점이고, 종가 소장 고문서는 총 152점이다.

해주오씨 정무공파는 오인유를 시조로 조선중기에 병마절도사를 역임한 정무공 오정방을 중시조로 하는 가문이다. 해주오씨 정무공파가 경기도 양성 덕봉리에 세거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정무공의 증조 오현경과 조 오경운의 묘를 양성 덕봉리에 쓴 후 그들이 자손이 이곳에 세대를 이어오며 번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실제 정무공파 자손들은 조선 중후기 문·무관직에 두루 진출하였고, 우암 송시열을 위시한 노론 계통과 성향을 같이 하였다.

『세적』에서는 해주오씨 정무공파 고문서를 종중 소장 고문서와 종가 소장 고문서로 구분하였다. 정무공파 종가의 고문서가 대부분 특정 인물과 관련된 것인데 반해, 종중의 고문서는 종중의 규약과 명단, 재산 관련 장부, 종중 차원에서 대응한 민원문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중은 그 특성상 개인의 일이 아닌 종중 전체가 공동으로 도모하고 대응해야 하는 일들을 수행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해주오씨 정무공파의 고문서를 종중 소장 고문서와 종가 소장 고문서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주오씨 정무공파 종중 소장 고문서는 총 47점이다. 『세적』에서는 이들을 절목좌목류 7점, 치부류 11점, 산송 관련 소지류 17점, 통문 2점, 각서 2점, 결의서 3점, 진정서 1점, 증여계약서 1점, 재산 관련 목록 3점으로 구분하였다.

절목좌목류는 조선후기 종중 조직의 시원을 가늠 할 수 있게

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특히 <구종계절목 좌목>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항렬은 종중의 종계 조직 시원을 1700년대 중반까지 소급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 <문헌통고>라는 표제가 기재된 자료에는 종중에 전래된 절목, 좌목, 입의, 통문, 송사 관련 문서가 필사되어 있고, <종계규약>은 1971년에 의결된 해주오씨 정무공파 종중 회의 규약이다.

치부류에는 종중 전담의 추수 현황, 종중 제반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전곡 또는 금전 출납 현황 등을 기록한 문서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1900년대에 작성된 것이고, 당시 종중 재정 현황과 운영을 일면을 보여준다.

소지류에는 단자 14점, 의송 3점이 있다. 이들의 주 내용은 모두 정무공파 선영의 경계 안에 타인들이 함부로 침범해 나무를 몰래 작별하거나 무덤을 쓴 것에 대한 관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이를 통해 1798년부터 1901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꾸준히 선영 수호를 위한 분쟁과 소송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78년 통문은 용인 지곡과 만현에 있는 묘제에 자손들이 참가할 것을 강조한 것이고, 1920년 통문은 대중계의 공회(公會) 일정을 통지한 것이다. 1949년과 1956년 각서와 1956년 증여계약서는 모두 덕봉서원 소유 토지에 관련된 내용이며, 1931년 작성된 결의서 3점은 모두 종중 재산 대표관리인을 선임할 때 작성한 것이다. 이외에도 해주오씨 종중에서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진정서가 있고, 1939년 종중 관리 제반 재산 현황을 기록한 책자 3점이 전하고 있다.

정무공파 종가는 정무공 오정방으로부터 오사점, 오숙, 오두인, 오관주 등을 거쳐 현재에까지 이르는 장자 계통의 가계이다. 본 종가에 세전된 고문서는 모두 152점인데, 『세적』에서는 이를 백패 2점, 홍패 3점, 차첩 2점, 고신 115점, 교서 3점, 유서 4점, 추증교지 15점, 증시교지 1점, 개명첩 1점, 관고 6점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대부분이 교령류에 해당하는 문서이다. 우선 정무공 오정방에게 발급된 문서로는 1796년 증시교지(贈諡教旨)가 있다. 이는 정무공 사후에 내려진 것으로 ‘정무’라는 시호를 내릴 때 발급된 것이다. 오숙에게 발급된 문서는 1612년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여 받은 홍패, 1633년 황해도관찰사로 부임할 때 왕이 내린 교서와 유서가 있다. 오두인에게 발급된 문서는 1649년 별시 문과 장원급제 홍패, 광주목사·경기도관찰사·평안도감찰사 부임 당시 왕이 내린 교서와 유서가 있다. 오재유에게 발급된 문서는 1754년 양지 현감에 제수될 당시에 받은 유서, 사후 증손 오최선(달선)에 의해 증직 되면서 발급된 추증교지가 전한다. 오서상 부부와 오치준 부부에게 발급된 문서는 모두 그들의 사후에 내려진 것인데, 이 역시 오최선(달선)에 의해 발급된 추증교지이다. 오최선(달선)의 문서로는 1850년부터 1892년에 이르기까지 받은 백패, 차첩, 교지가 남아있고, 1881

년 이름을 달선에서 최선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개명첩이 있다. 마지막으로 오익영에게 발급된 문서로는 1873년부터 1891년에 이르기까지 발급받은 백패, 흥패, 차첩, 고신이 있으며, 1898년 고종 황제의 칙명 형태로 발급된 문서가 있다.

참고
문헌

『세적』, 해주오씨 정무공파 중중, 20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양주(동두천) 안흥 광주정씨 고문서

경기도 양주(楊州, 현 동두천시) 안흥리(安興里)에 세거한 정수상(鄭遂相) 후손가의 문서이다. 양주 안흥 광주정씨의 고문서는 2004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고문서집성』 71-이천 풍천임씨·양주 광주정씨편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본 가문에 소장된 고문서는 총 88점이다.

양주 안흥리에 세거하였던 광주정씨는 고려후기에 특관한 이래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부침 없이 다수의 문신·학자를 배출하여 경화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온 전형적인 양반 가문이다. 특히 이 가문은 선대 이래로 축적되어 온 학술·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선조·숙종 조에는 정이주(鄭以周), 정사호(鄭賜湖)·명호(明湖)·운호(雲湖), 정현원(鄭玄源)·성원(星源), 정전창(鄭展昌)등 정치·문학사에 우뚝한 인물들을 배출함으로써 서인 명가로서의 입지를 굳히었다.

양주 안흥 광주정씨 정수상 후손가 고문서는 총 88점이다. 이를 종류와 수량별로 살펴보면, 교령류(敎令類) 16점, 소차계장류(疏劄啓狀類) 45점,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2점,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 3점,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 22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분재기와 호적자료는 당대의 경제적 실상을 잘 대변하고 있어 자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령류(敎令類)에는 고신(告身) 16점이 있다. 고신 중에는 정치상(鄭致相)을 비롯하여 정수상의 아들 정임기(鄭林基)의 고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정치상 고신은 그가 중부주부와 군자감주부에 임명되면서 받은 문서이고, 1720년(숙종 46) 정임기의 고신은 그의 생부 하양현감 정치상의 대가(代加)를 통한 승급과 관련된 내용이다.

소차계장류(疏劄啓狀類)에 해당하는 자료는 모두 호적류 자료이다. 광주정씨 가문에 현전하는 호적자료는 1717년 정임기 한성부 준호구를 비롯하여 1902년 정만수 호적표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6대에 걸친 호적 관련 자료가 식년별로 거의 대부분이 남아있다.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에는 고목(告目)과 완의(完議)가 있다.

1901년(광무 5) 고목은 양주목의 예리(禮吏) 노익홍(盧益弘)이 생원 정만수에게 오는 2월에 예정된 향교의 석존제(釋尊祭)에 참석해 줄 것을 알리는 문서이고, 1762년(英祖 38) 완의는 정사호의 시호 ‘충민(忠敏)’에 대해 사간원의 서경을 거친 시호서경에 관한 완의이다.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에는 광주정씨 소장 고문서 중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 것이 1685년의 분재기가 있다. 본 문서는 정전창의 처 청송심씨가 아들 정수상의 혼례를 맞이하여 장성한 아들이 성혼하는 기쁨과 아울러 새로 맞이하게 된 며느리에 대한 기대하는 심정을 표현하면서 노비 5구를 별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두 건의 분재기는 정임기의 생부 정치상이 아들의 병이 회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노비를 별급해 준 문서이다.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에는 통문(通文)이 있다. 1966년의 통문은 양주 샘내에 소재한 동백공 정구진의 분묘가 지난 한국전쟁으로 훼손되어 정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기금을 각과 문중에 나누면서 보낸 통문이다.

- 정구진(鄭龜晉, 생몰년 미상) : 출중한 문재를 바탕으로 조선왕조에서도 중용되어 1407년 강원도관찰사, 1414년 이조참의 대사성, 1423년(세종 5)에는 좌사간을 역임했다. 정구진의 상경종사는 사실상 광주정씨 경파(京派)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이주지를 알 수는 없으나 분묘(양주 샘내)의 위치로 보아 양주 일대에 전장을 마련하고, 서울과 양주를 왕래하며 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구진은 문신으로서의 탄탄한 지위와 명문 동래정씨 가문의 여서라는 인적 배경을 바탕으로 당당히 성가할 수 있었고, 자손도 크게 번창했다.
- 정이주(鄭以周, 1530-1583) : 정경의 차자로 태어났지만, 계통상 정순인(鄭純仁)에서 정경(鄭黶)으로 이어지는 가통의 계승자가 되었다. 당시는 종법 질서가 뿌리를 내리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입양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딸만 있을 경우 외손봉사의 관행이 오히려 일반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이주는 관료로서 현달하였고, 자손들 역시 번창함으로써 자연히 정순인 계통을 대표하는 가계로 자리매김하였다.

참고 문헌

『고문서집성71-안산 이천 풍천임씨·양주 광주정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양주 안흥 광주정씨(<http://archive.aks.ac.kr/Family/T1/html/main.aspx?fid=B048a>)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7호

여주 원주원씨 원두표후손가 고문서

경기도 여주 북내면 장암리 등에 거주하는 여주 원주원씨 원두표 후손가의 고문서이다. 여주 원주원씨의 고문서는 2012년 여주박물관에서 발간한 『여주의 옛문서 특별전』에 소개된 바 있다.

원주원씨의 관향은 원주이지만 여주 일대의 권문세족이라고 할 수 있는 성씨 중 빼놓을 수 없는 종중이다. 이 가문은 문관보다는 무관 출신이 많고, 계통을 달리하는 3개의 계열이 있다. 이 가운데 원두표 후손가는 시조를 원극유로 하는 원주원씨이다. 원주원씨의 대표 인물로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원호(1533-1592), 효종 때 북벌정책을 펼친 원두표(1593-1664) 등이 있다. 도록에 수록된 원두표 후손가에 소장된 고문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1757년 원경렴 홍패가 있다. 원경렴(1704-1767)은 영조 대의 문신으로 좌의정 원두표의 현손이자 대호군 원명설의 아들이다. 정혜공 이규령의 손녀사위로 31세인 1734년 음보(蔭補)로 처음 참봉에 제수되고 1757년 목사에 재직 시 정시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이 문서는 통훈대부 상주목자 상주진병마검절제사 원경렴이 문과 을과 제2인의 급제자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1729년 원경하 간찰은 영조대 문신 원경하(1698-1761)가 쓴 편지이다. 그는 1721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736년 정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인물이며, 이후 이조판서에 이르러 영조의 탕평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원주원씨 세계(世系)는 원주원씨 가문의 세계를 가첩(家牒)으로 만들어 출가하는 딸에게 전해준 것이다. 모두 10곡(曲)으로서 언문으로 쓴 필사본이며, 여기에는 원두표와 관련된 기록이 나타난다. 원두표와 관련된 문서로는 간찰, 유묵, 증시교지(贈諡教旨)가 있다. 1657년 편지는 현종 대 좌의정을 역임한 충익공 원두표가 쓴 편지이고, 17세기에 만든 것으로 추

정되는 충익공 유묵은 원두표가 쓴 편지를 모아 책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에는 아들에게 보낸 것이 많다.

1698년 증시교지는 원두표에게 ‘충익공(忠翼公)’이라는 시호를 내린 교지이다. 교지에 작성된 보국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는 조선시대 정1품의 문무관(文武官), 종친(宗親), 의빈(儀賓)에게 내려진 벼슬이다.

이외에도 17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두추의 간찰이 있다. 원두추(1604-1663)는 충익공 원두표의 동생으로 광주부윤을 역임한 인물인데, 성리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으나 학문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 참고 문헌 | 『여주의 옛문서 특별전』, 여주박물관, 2012.
여주시향토사료관 (<http://www.yeaju.go.kr/museu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용인 오산 해주오씨 추탄공파종가 고문서

경기도 용인시 오산에 세거해 온 해주오씨 추탄 오윤겸(吳允謙, 1559-1636)을 파조로 하는 추탄공파 종가의 고문서이다. 용인 오산 해주오씨의 고문서는 199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고문서집성』 36-용인 해주오씨편-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본 가문에 소장된 고문서는 총 500점이다.

용인 오산 해주오씨 추탄공파는 오윤겸(吳允謙), 오달제(吳達濟, 1609-1637), 오도일(吳道一, 1645-1703), 오명환(吳命恒, 1673-1728) 등 조선중기 이래 많은 문인과 관료를 배출하였다. 한편, 이 가문은 족도기(族圖記), 쇄미록(瑣尾錄) 등 조선전기의 자료를 소장한 가문으로도 알려져 있다. 15세기 초에 족보의 초기형태라 할 수 있는 족도기를 작성했고, 이를 필사하여 전해온 사실은 이 가문의 가계 계승 의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또 쇄미록은 오희문(吳希文, 15396~1613)이 임진왜란 중에 쓴 피난일기로 임진왜란 시기 사족(士族)의 생활상과 노비 및 토지재산의 경영 양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용인 오산 해주오씨의 고문서는 총 500점이다. 이를 종류와 수량별로 살펴보면, 교령류(敎令類) 203점, 소차계장류(疏劄啓狀類) 84점,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17점, 증빙류(證憑類) 36점,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 33점,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 71점, 치부기록류(置簿記錄通) 22점, 시문류(詩文類) 33점, 기타 문서 1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문서는 시기적으로 파조인 오윤겸 대 이후의 문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특기할 만한 문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령류(敎令類)에는 191건의 고신(告身)이 있다. 이 중 오윤겸에게 발급한 고신은 1595년(선조 28)부터 1633년(인조 11)까지 약 38년에 걸쳐 64건, 오달천 및 그 처의 고신이 13건, 오도종(1618-1648)의 고신이 14건, 오도일의 고신이 81건이며, 오수현(1659-1733)이 16건 등이다. 특히 오윤겸과 오도일의 경우 고신교지의 양만 보아도 이들의 화려한 관직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소차계장류(疏割啓狀類)에는 입후와 산송에 관한 소지류가 있다. 상언은 초문기(草文記)로서 생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상태지만 전례에 따라 입후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단자(單子)와 소지(所志)는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오정수 측과 용인에 거주하고 있던 정씨들의 묘지 경계 분쟁, 그리고 가문 내의 분묘 다툼 등을 보여준다.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에서 특기할 자료로는 분재기 1건과 토지명문 1건이 있다. 을해년에 작성한 조모 박씨의 분재기는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토지명문은 토지를 매매한 문서가 아니라 3남매가 모여 제사의 윤회를 다짐하고 일정 토지를 지정하여 이를 윤회봉사의 밑천으로 지정한 문서이다.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에는 ‘영화(詠畵)’라는 제명(題名)으로 첩책(帖冊)된 간찰이 있다. 오도일은 1686년(숙종 12) 6월부터 11월에 걸쳐 연경에 주청부사로 다녀왔다. 이들 간찰은 모두 이를 기념하여 그와 교류하던 이들이 보낸 것이다. 3첩이 모두 250여 건에 달하는 간찰을 수록하고 있어 당시 오도일의 명성과 교류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오명준의 경우도 그와 관련해서 간찰첩이 전하고 있다. 이는 ‘별장첩(別章帖)’이라는 제명으로 상, 하 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별장첩은 모두 1698년(숙종 24)에 그가 영유현감으로 떠날 때에 받은 것이다. 문과 급제자인 그는 영유, 강릉 등의 목민관 시절에 선정을 베풀어 한때 생사당이 건립되었다가 철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타 문서에는 <수양종첩(首陽宗帖)>이 있다. ‘수양(首陽)’은 해주의 옛 이름이며, 이는 오희문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한 종계 자료이다. 이 안에는 종계좌목이 수록되어 있는데 오희문의 현손에서부터 9대손까지 기재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이 가문의 족보가 그랬던 것처럼 종계좌목에도 서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주지별로도 경거자, 용인, 정산, 결성, 공주 거주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거주지와 적서의 구별 없이 범가문적으로 시행된 종계였음을 알 수 있다.

- 오희문(吳希文, 1539-1613) : 석성현감(石城縣監) 옥정(玉貞)의 손자로, 장성현감 경민(景閔)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남인(南寅)의 딸이다. 부인은 연안이씨로 석형(石亨)의 증손녀이고, 외할아버지는 익양군(益陽君) 회(懷)이다. 관직이 선공감감역(繕工監監役)에 그쳤으나 아들 윤겸의 명성에 힘입어 후에 영의정까지 증직되었다.
- 오윤겸(吳允謙, 1559-1636) : 사마시 문과 별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고, 임란이 일어나자 정철의 종사관으로 발탁되었다. 1617년(광해군 9)에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국교재개의 계기가 되었던 회답사로 일본에 파견되었으며, 1618년(광해군 10)에 폐모론이 제기되었을 때 정청에 불참한 후 광주목사를 자원하여 토당에 은거하였다. 이후 인조반정으로 서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사헌을 시작으로 이조판서와 좌의정, 영의정 등 중앙의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는 등 정치적 비중이 높았다.
- 오도일(吳道一, 1645-1703) : 1694년(숙종 20)에 개성부유수를 거쳐 주청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대사간, 부제학, 대사헌, 이조참판, 공조참판,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4년간 울진현감으로 있다가 1686년(숙종 12)에 조정으로 돌아갔는데, 고을 정사를 맑게 하고 교화가 행해졌다 하여 울진 민인들이 생사당(生祠堂)을 건립하고 진영(眞影)을 그려 떠나간 공을 추모했다고 한다.

참고 문헌 | 『고문서집성36-용인 해주오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용인 오산 해주오씨 추단 종가
 (http://archive.aks.ac.kr/Family/T2/html/sub2_1.aspx?fid=B024a)

이천 부발 풍천임씨 고문서

경기도 이천시(利川市) 부발면(夫鉢面) 고백리 소재 만휴당 임유후(任有後) 후손가의 세전 고문서이다. 이천 부발 풍천임씨의 고문서는 2004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고문서집성』 71-이천 풍천임씨·양주 광주정씨편-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본 가문에 소장된 고문서는 총 196점이다.

이천 부발 풍천임씨는 임유후(任有後, 1601-1673)의 이천 입향으로 인해 부발 고백리에 세거하게 된다. 풍천임씨는 임유후 이후 임백능 대에 이르기까지 가계의 성쇠가 있었다. 17세기 중엽 임유후의 입신을 계기로 중앙정계에서의 입지를 굳혔지만 이후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임백능이 문과를 통해 중앙정계에 다시 진출하면서 다시 한번 흥기하였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풍천임씨는 항상 중앙정계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사환도 지속되었다.

이천 부발 풍천임씨의 고문서는 총 196점이다. 이를 종류와 수량별로 살펴보면, 교령류(教令類) 128점, 소차계장류(疏劄啓狀類) 9점, 증빙류(證憑類) 1점,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 4점,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 34점, 치부기록류(置簿記錄通) 2점, 시문류(詩文類) 18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고문서는 임유후와 임백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기적으로 17세기와 19세기 자료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교령류(教令類)에는 교서(敎書), 유지(有旨), 홍·백패(紅·白牌), 고신(告身), 녹패(祿牌), 차정첩(差定帖)이 있다. 이들 중 단연 고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선대의 사환이 문중에 있어 사회적으로 가문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신을 다른 문서보다 각별하게 유지 보전하는데 정성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임유후와 임백능의 고신이 중심을 이루며 임백능의 고신이 47점으로 가장 많다.

소차계장류(疏劄啓狀類)는 전문(箋文), 계초(啓草), 상언(上言), 소지(所志), 호적(戶籍)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점의 전문은 각각 위사

(慰事)와 영절(令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초본(草本)에 해당하며, 상인은 임유후가 공조 참판(工曹參判)에 임명되자 신병상의 이유 등으로 사직을 청하는 내용이다. 소지 3건은 모두 임백능, 임치원을 중심으로 한 풍천임씨 일가와 안씨, 한씨 집안 간의 산송 관련 내용이고, 호적은 임익등과 임도정 부자가 각각 주호로 등장하는 문서이다. 특히 이들의 호적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 노비를 중심으로 한 풍천임씨가 경제적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증빙류(證憑類)에 해당하는 문서는 1781년(정조 5)에 임유후의 시호 ‘정희(貞僖)’에 대해 시간원의 서경을 마친 시호서경완의가 있다.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에는 폐지 4점이 있다. 풍천임씨가 폐지는 관련 문서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연대 파악이 어려우나 대체로 19세기에 형성된 문서로 추정된다. 이들 문서는 주로 임백능 대에 매득한 토지에 대한 자료로 보인다.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에는 임백능이 작성한 간찰 두 점과 친족과 지우(知友)들 간의 간찰이 30여 점 남아 있다. 이들 간찰 중에는 임백능이 봉화현감, 제주목사로 재직할 시점에 주고받은 간찰이 다수 전하고 있어 이들 지역과의 교류상을 보여주고 있다. 혼서는 두 점으로 1884년에 임영준이 그의 장손 임헌재가 혼인할 때 쓴 것과 1926년 임헌재가 그의 셋째 아들이 혼인할 때 쓴 것이 있다.

치부기록류(置簿記錄通)는 2점으로 임헌재가 1902년에 용인군수와 화천군수를 역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이방전하기」는 1902년 4월에서 동년 6월까지 3개월 간의 용인관아 내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적은 것이다.

시문류(詩文類)에는 시문과 시권 두 종류가 있다. 시문은 주로 임백능, 임영준, 임헌재 대에 작성된 것들이다. 임백능 대에 형성된 시고는 봉화현감, 제주목사에 부임하는 과정이나 봉직 중에 작성된 것과 함께 그가 당상관으로 승자할 당시 축시가 있다. 시권은 임백능을 비롯하여 임기호, 임강호 형제 그리고 임헌재의 과거를 통해 형성된 문서이다. 임백능은 나이 28세에 과거에 응시하여 배강한 문서가 두 점 남아있다. 이 외에도 임기호, 임강호 형제를 비롯하여 임헌재가 10대에 과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시권이 전하고 있다.

본 가문의 고문서는 교령류를 중심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고신은 임유후와 임백능 대에 형성된 문서가 중심이 되며, 이 외의 여타 자료 또한 이들 두 인물의 족적에 따라 17세기 중엽과 19세기 이후의 자료로 대별된다. 특히 임유후의 진퇴와 관련한 다양한 문서가 남아있고, 치부자료로 용인과 화천군의 아문 용하기가 있다. 이들은 구한말 관청의 재정운영을 살필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된다.

•임유후(任有後, 1601-1673) : 임유후는 4형제 중 유일하게 문과에 합격하여 사환명가의 전통을 이어나갔는데, 그의 급제는 증조 임윤 이래 4대로 연속된 경사였다. 1601년 서울에서 출생한 그는 장령 이유달과 3종형 임숙영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문재가 출중하였다. 24세에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했고, 1626년(인조 4) 문과에 합격하여 관계에 입문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가주서로서 척화를 주장하여 기개를 크게 떨쳤다.

참고 문헌 | 『고문서집성71-안산 이천 풍천임씨·양주 광주정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의정부 장암 반남박씨 서계 종가 고문서

경기도 의정부(議政府) 장암동(場岩洞) 수락산 기슭에 세거해온 반남박씨 서계 박세당(朴世堂, 1629-1703) 종가의 고문서이다. 의정부 장암 반남박씨의 고문서는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111-반남박씨 박세당·박동형가문편-에 실려 있다. 이에 의하면 본 종가에 소장된 고문서는 총 471점이다.

서계 박세당 종가의 가계는 박소의 손자 박동선(朴東善, 1562-1640)에게서 시작한다. 박동선은 1590년(선조 23)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역임했으며 탁월한 학식과 문장으로 당대의 문사들과 교류하였다. 그러나 인목대비에 대한 폐모논란이 일어났을 때 참여하지 않고 아들 박정(朴炡, 1596-1632)과 광나루에 은거하며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이후 박정은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1625년(인조 3) 4월에 정사공신 3등으로 책훈되었다. 당시 상전으로 공신도상(功臣圖像)을 비롯하여 노비, 금 옷감, 말, 60결의 전답을 받았는데 그 사패지의 위치가 바로 서계 종가가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이다.

서계 박세당 종가의 고문서는 총 471점이다. 이를 종류와 수량별로 살펴보면, 교령류(敎令類) 281점, 소차계장류(疏劄啓狀類) 4점,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3점, 증빙류(證憑類) 17점,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 8점, 치부기록류(置簿記錄通) 12점, 시문류(詩文類) 3점, 초상화 3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문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636년(인조 14) 박정 정사공신교서는 박정이 1625년 정사공신 3등으로 책훈된 교서를 병자호란 때 유실하여 손자 박태유가 1681년(숙종 7)에 다시 발급받은 것이다. 교서에 따르면 당시 상전으로 공신도상을 비롯하여 노비, 금 옷감, 말, 60결의 전답을 받았는데 양주의 도봉산과 수락산 일대가 사패지의 위치였다. 1640년(인조 18) 박동선 교지는 1640년 박동선이 세상을 떠난 뒤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으로 책훈되고, 종1품 승정대부 금천군(錦川君)으로 추증된 문서이다. 1660년(현종 1) 박세당 백패와 홍패는 1660년 박세당이 생원시에 입격하고 그해 증광 별시 문과에서 장원 급제를 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이후 박세당의 임명문서로는 1668년부터 1700년에 이르기까지 발급된 91건의 고신이 있다. 하지만 박세당은 곧 관직에 염증을 느끼고 수락산 석천동에서 학문과 저술에 몰두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그의 빠른 상경을 재촉하는 유지 4건이 함께 전하고 있다.

1709년부터 1737년에 이르기까지 고신 20점과 유서 1점이 전한다. 이는 박세당의 장손 박필기의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는 병으로 인하여 대부분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박필기의 문서 가운데에서는 그를 용궁현감에 임명한 1728년(영조 4) 고신과 용궁현감으로서 군포 건감과 홍학의 공로를 인정받아 아마(兒馬) 1필을 사급 받는 1732년(영조 8) 유서가 주목할 만하다.

박필기의 증손 박종길, 그의 아들 박승수의 문서가 또한 여러 점 남아있다. 1827년(순조 27) 박종길 홍패는 박종길이 문과 증광시 병과 제 1인으로 급제한 사실을, 1845년(현종 11) 박승수의 홍패는 박승수가 문과 정시에서 병과 제 3인으로 급제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박종길의 경우 1820년 종9품 목릉참봉부터 1852년 종2품 가선대부에 이르기까지의 관직 생활을 엿볼 수 있는 71점의 고신을 비롯하여 홍패, 교서, 유서, 시권 등이 함께 전하고, 박승수 또한 1845년부터 1865년 동안의 고신 44점과 전령, 시권이 함께 전해진다. 특히 박승수는 1847년(현종 13년) 20여 일간 금강산 유람을 다녀온 후 『동유일기(同遊日記)』를 썼다.

•박동선(朴東善, 1562-1640) : 1590년(선조 23)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역임했으며 탁월한 학식과 문장으로 민세백, 이정구, 이시발, 서성, 김세렴 등 당대의 문사들과 교류하였다. 그러나 1613년(광해군 5)에 인목대비에 대한 폐모 논란이 일어났을 때 참여하지 않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아들 박정(朴炡, 1596-1632) 또한 부친과 함께 탄핵을 받아 사직하고 은거하였다.

•박세당(朴世堂, 1629-1703) : 4세 때 부친을 여의고, 1636년(인조 14) 8세 때 병자호란을 당하여 할머니, 어머니를 모시고 피난길에 올라 원주, 청풍, 안동 등지를 전전해야 했다. 한성으로 돌아온 뒤에는 고모부 정사무에게 수학했으며 1645년(인조 23) 의령남씨와 혼인하여 10년간 처가살이를 하며 처남 남구만 등과 학업에 정진하였다. 1660년(현종 1)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그해 증광 별시 문과에서 장원 급제를 하면서 벼슬살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곧 양주 수락산의 석천동으로 물러나 학문과 저술에만 몰두하고자 하였다.

참고 문헌 | 『고문서집성111-반남박씨 박세당·박동형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서계 박세당 종택 고문서』, 의정부문화원, 2003.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하남 함평이씨 고문서

경기도 하남 함평이씨 가문이 하남역사박물관에 기증한 고문서이다. 하남 함평이씨의 고문서는 2005년 하남역사박물관에서 발간한 『하남 지역의 함평이씨 고문서』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하남 함평이씨 가문 소장 고문서는 107점이다. 이 가운데 1910년 이전 작성된 고문서는 총 48점이고, 근현대문서는 총 59점이다.

대대로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함평이씨 문중에서 하남역사박물관에 기증한 고문서이다. 『하남지역의 함평이씨 고문서』에서는 하남 함평이씨 문중에 소장된 고문서 총 107점을 소개하였다. 이 중 1910년 이전에 발급된 고문서는 48점이고, 그 이후에 발급된 근현대문서는 총 59점이다.

하남역사박물관에서는 이들 문서를 교지, 준호구, 관혼상제, 간찰, 경제생활, 학교생활, 공직생활, 4H활동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따라 하남 함평이씨의 고문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교지(教旨)에는 1857년부터 1894년까지 발급된 이증서의 교지 7점이 있다. 한량(閑良) 이증서는 1857년에 실시된 무과에서 병과 제 607인으로 급제하였고 이후 효력부위 수문장, 선략장군 행용양위 부사과 등의 관직에 올랐다가 1894년 1월 마침내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까지 올랐다.

준호구는 1726년부터 1828년까지 광주부에서 당시 주호(主戶)였던 이사중, 이종수, 이경홍, 이경룡, 이영운, 이유근에게 발급한 것이 전해진다.

관혼상제에 관련된 문서로는 1885년과 조선후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택기 7점, 면례 택일기 1점, 문복록 1점, 매장인허증, 묘지설치허가증, 제문 5점, 혼례 관련 혼서, 사주단자, 납폐단자, 물목 등 5점이 있으며, 조선후기 및 19세기 말에서 일제 강점기 때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간찰 4점이 있다.

이밖에 근현대 시기 함평이씨 집안의 경제생활을 보여주는 문서로 이규현의 출자증권, 저축예금통장, 이계원의 보험증서, 보험료 영수장, 저축예금통장, 대출금 영수증, 납입통지서, 축우사체

진단서가 있으며, 이계완, 조영숙의 통신표와 상장 및 졸업증서, 이계완의 사령장과 발령장·위촉장·수료 증서·표창장, 이승범의 상장 및 표창장은 각각 함평이씨 가문의 학교생활, 공직생활, 4H활동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4H운동(4H Club) : 1947년 3월 낙후된 농촌의 생활 향상과 기술 개량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을 고무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이다. ‘4H’는 지성(head)·덕성(heart)·근로(hand)·건강(health)의 뜻을 지닌 영어의 네 단어의 머리글자를 나타낸다. 4H운동은 농촌 청소년들로 하여금 농사와 가정 또는 사회생활에서 한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높은 이상과 농사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학습하며 스스로 실천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서로 도우며 조직 활동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참고 문헌 | 『하남지역의 함평이씨 고문서』, 하남역사박물관, 2005.
하남역사박물관 (<http://www.hanammuseum.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화성 거창신씨 고문서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백리에 세거해 온 거창신씨 동추공파 정송문중의 고문서이다. 화성 거창신씨의 고문서는 2012년 화성시청에서 발간한 『서봉산 아래 백리에 잠든 꿈 - 거창신씨 동추공파』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현재 화성 거창신씨의 고문서는 총 112점이다.

화성 거창신씨 동추공파 정송문중 후손들은 중종반정 이후 관직에서 밀려나 수원부 정송, 현재의 정남면 백리 마을에 정착하였다. 이후 200여 년 동안 중앙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다가, 23세 신이복이 문과에 급제하여 정2품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고 24세 신사직 역시 문과에 급제한데 이어 25세 신의묵과 신의학이 연이어 관직에 진출하면서 이 집안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신의학이 역모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정송문중 후손들은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다행히 1864년(고종 1) 신의학이 신원(伸寃)되면서 후손들에게도 다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장손 신영필은 1870년(고종 7) 76세의 나이로 소과(小科)에 응시하여 입격(入格)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화성시 거창신씨 동추공파 도록에서 소개한 고문서는 약 112점이다. 이들을 종류와 수량별로 살펴보면, 고문서는 교령류 44점, 소차계장류 1점, 서간통고류 4점, 치부기록류 4점, 시문류 4점, 기타문서 14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인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이복은 1729년 32세의 나이로 식년시(式年試)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 이 집안에는 신이복이 문과에 응시했던 시권이 남아있는데, 당시 영의정 홍치중의 주관 하에 ‘춘추는 왕도의 권형(春秋王道之權衡)’을 주제로 부(賦)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신이복은 이 시험에서 을과(乙科)에 6위로 급제하면서 관로(官路)에 들어선다. 이 집안에 남아있는 고신(告身)의 대부분은 신이복의 것인데, 1740년 통훈대부 행예조좌랑, 1773년 가선대부 병조참판, 1781년 정 2품 정헌대부에 임명한 고신 등이 함께 전한다. 신의묵

은 신이복의 장손으로 1815년 석성현감(石城縣監)에 제수되었다. 1816년 이조에서 그에게 발급한 유지(有旨)가 남아있는데, 이는 1816년 3월 호서 암행어사 이우수(李友秀)가 서계(書啓)에서 그의 공을 논하여 아마(兒馬)를 사급받은 문서이다.

신이복과 신사직의 뒤를 이어서 대과(大科)에 급제한 인물은 신의학이다. 그는 3대 대과 급제의 영예를 문중에 안겨주고 조부 신이복에 이어 당상관의 지위에 올랐으나 사도세자의 죽음에서 비롯된 벽파(僻派)와 시파(時派) 간 권력 투쟁과 당시 세도정치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사건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의 관직 이력 및 옥사 관련 문서 3건을 전사한 ‘승지공 서직이력’ 과 죽은 지 45년 만에 복권되면서 그의 이름으로 발급된 1864년 복관(復官) 교지가 있다.

거창신씨 동추공파 정송문중의 소장 문헌 중에 종계(宗稷) 문서가 있다. 이 문서는 순조 34년(1834) 11월에 신이복의 후손들이 종계를 만들면서 작성한 것으로서 종계서(宗稷序), 절목(節目), 좌목(座目)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종계 결성은 신의학의 죽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종계는 그의 죽음으로 야기된 문중의 위기와 흐트러진 문중의 결속을 위해 이들이 마련한 장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송문중에서 과거에 급제한 인물은 신의학이 복권되고 6년 뒤 1870년 식년시에서 76세 나이로 생원 3등 22위로 입격한 신영필 뿐이다. 1870년 사마시에 입격한 신영필의 시권이 함께 전하는데 그는 1875년 6월에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겸오위장에 특채되었으나 신병을 이유로 체차를 청하여 윤택되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겸오위장이 되었다. 이외에도 이들과 관련된 호구단자(戶口單子), 녹패(祿牌), 택일기(擇日記) 등이 함께 전하고 있다.

참고 문헌 | 『서봉산 아래 백리에 잠든 꿈·거창신씨 동추공파』, 화성시청, 2012.
화성시향토박물관 (<http://hsmuseum.hscit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화성 남양홍씨 고문서

경기도 화성 홍법리에 세거해온 남양홍씨 정효공파 가문의 고문서이다. 화성 합평이씨의 고문서는 2010년 화성시·화성문화원에서 발간한 『화성시의 고문헌3-남양홍씨 정효공파』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본 가문에 소장된 고문서는 총 219점이다.

남양홍씨는 남양, 즉 화성시의 토착성씨로 고려시대부터 이곳에 세거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홍언필, 홍섭 등 정승을 배출하면서 조선의 명족으로 성장한 남양홍씨는 문희공파, 정효공파, 참의공파, 주부공파, 대호군공파 등 5개의 파로 분파되어 남양부 일대를 터전으로 생활하였다. 이 가운데 정효공파는 청백리이자 효자로 명망이 높은 홍담을 파조로 하는 계파이다. 파조 홍담의 정치활동은 가세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이후 후손들의 정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화성 남양홍씨 가문의 고문서는 총 219점이다. 이를 종류와 수량별로 살펴보면, 교령류(敎令類) 141점, 소차계장류(疏劄啓狀類) 13점,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1점, 증빙류(證憑類) 4점,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 48점, 치부기록류(置簿記錄通) 11점, 시문류(詩文類) 1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문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효공파가 중앙 정치에서 두각을 드러낸 시기는 인조반정 이후이다. 이조와 이종사촌간인 홍진도와 홍진문 형제가 반정에 참여하여 공신으로 책록되면서 공신 집안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홍진도와 홍진문을 정사공신 3등에 책봉한 교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현재 홍진도 부분은 훼손되어 보이지 않고 홍진문의 이름만 남아 있다.

또한 이 때 홍진도와 홍진문의 아버지인 홍희 또한 순충보조공신 자헌대부 의정부우참찬겸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 익평군으로 추증되었는데, 이는 1637년 홍희 추증교지에 나타난다. 이후 1624년 홍진도는 종2품 가선대부에 오르고 ‘남양군’에 봉해졌으며, 홍진문 역시 공신책봉 후 ‘남창군’이라는 봉작호를 받게 되었

다. 당시 홍진문에게 내려진 공신교서는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교서를 찬술한 조익의 문집에 수록되어 내용이 전해진다. 1628년 장성현감 홍진문에게 표리 1습을 하사하는 유서(諭書)와 그를 수원도호부사에 임명하는 고신 또한 남아있다. 이렇게 두 형제가 공신으로 책봉되면서 이후 후손들은 군호를 승습하고 공신 후예가 받는 특권을 활용하며 가세를 유지해 갔다.

정효공파의 후손들은 정치적으로 17세기에는 서인으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된 이후에는 주로 노론으로 활동하였다. 남양군의 후손들은 종래 남양군 홍진도가 받은 사패지를 바탕으로 세거지인 흥법동을 벗어나 목천이나 청주, 진천 등지의 지역으로 세를 확장해 간다. 이와 달리 남창군 후손들은 종래 세거지인 남양의 흥법리를 비롯해 서여제면과 송산면 일대 등 남양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세거하였다.

남양군 후손가의 문서로는 차첩, 고신 등이 있다. 1655년 충훈부 차첩은 홍부의 아들 홍성원이 충의위에 입속된 것이고, 1661년 고신은 홍성원이 아버지 홍부의 별가로 3단계를 승급하여 정4품 하의 품계인 소위장군에 제수되고 이어 다시 4단계를 승급하여 어모장군에 제수된 것이다. 또 1689년 차첩은 아버지 홍숙의 별가(別加)를 대가(代加)하여 14세의 어린 나이에 정5품 상계인 통덕랑에 제수된 문서이다. 남창군 후손가의 문서로는 승습교지, 체아직 임명 고신 등이 있다.

1749년 승습교지는 홍호가 가선대부 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에 추증되고 익령군의 군호를 승습한 것이고, 1715년 고신은 홍호, 홍순원 부자의 체아직 임명문서이다. 이들은 실직으로 고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공신의 적장으로서 수십 차례 체아직에 임명되었다. 남창군 후손가에 전하는 홍호 관련문서 68건과 홍순원 관련문서 90건 중 이러한 체아직 임명 고신이 각각 59건과 64건에 달한다.

더불어 남양군파에는 사패된 재산과 관계된 문서가 남아있다. 홍진도의 사패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1658년 호조에서 경기도 관찰사에게 발급한 관(關)과 1720년 한성부에서 남계군택에 발급해 준 전준(傳准)이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 서면에 위치한 유희분 소유의 논과 밭이 적몰된 후 홍진도에게 사패지로 사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홍진문 후손가 또한 1624년 발급된 사패교지 한 장이 남아 있는데, 이외에 이 집안의 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은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6건의 준호구에 기재된 노비 목록을 참고할 만하다.

참고 문헌 | 『화성시의 고문헌3 남양홍씨 정효공파』, 화성시·화성문화원, 2010.
 화성시향토박물관 (<http://hsmuseum,hscit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화성 들목조씨 고문서

경기도 화성 들목(현재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세거하던 풍양조씨 가문의 고문서이다. 들목조씨는 들목에 사는 풍양조씨를 일컫는 말이다. 화성 들목조씨의 고문서는 2006년 화성시에서 발간한 『화성의 고문헌1 -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본 가문에 소장된 고문서는 총 873점이다.

들목조씨 집안의 조상이 화성에 처음 들어온 것은 임란 이전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후 그 후손들은 구포를 중심으로 근방에 흩어져 살아왔다. 이 지역이 들목조씨 집안의 중심지가 된 데에는 이곳이 조익(趙翼, 1579-1655)의 고향이자 사망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에는 본 가문의 문중서원인 명고서원(明臯書院)이 자리 잡고 있다.

화성 들목조씨 가문의 고문서는 총 873점이다. 이를 종류와 수량별로 살펴보면, 교령류(敎令類) 482점, 소차계장류(疏劄啓狀類) 46점,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2점, 증빙류(證憑類) 5점,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 62점,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 114점, 치부기록류(置簿記錄通) 6점, 시문류(詩文類) 94점, 성책고문서 103점, 기타문서 52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문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들목조씨 집안이 이곳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고문서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699년 조익의 셋째 아들 조복양에게 발급된 유지(有旨)이다. 유지에는 세자우빈객서연사(世子右賓客書筵事)로 임명된 조복양에게 속히 올라오라는 명령을 전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수취자 부분에 있는 ‘수원(水原)’은 당시 조복양이 수원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들목조씨가 이곳에서 400년 이상의 전통을 키워온 것이다. 조복양의 관력에 대해서는 들목조씨가에 남아있는 그의 흥패, 백패, 고신, 유지 등을 2권의 책으로 묶은 『송곡고명(松谷誥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38년 조익이 대과 문과 병과 제3인으로 급제한 조복양에게 재산의 일부를 특별히 떼어준 별급문기 또한 함께 전하고 있다.

들목조씨 중 가장 세상에 드러난 인물인 조지겸(趙持謙, 1639-1685)의 1663년 시권 또한 주목된다. 조지겸은 이 집안이 소론의 당색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인데, 시권 위에 쓰인 점수는 당시 그가 3등 33인으로 합격하였음을 보여준다. 이후 들목조씨는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는데, 그 사연을 드러내는 문서가 1753년 조상존 계후입안이다. 당시 과부인 전주이씨는 자손이 많은 조익의 제5자인 조현양 계열의 4세손인 조정기(趙廷琦, 1708-1756)의 아들 조상존을 양자로 들이기 위해 3일 밤낮을 울며 애원하였다고 한다. 양자로 온 조상존에 관한 문서로는 1789년 준호구가 있다. 조상존의 아들 조만원은 정조가 화성 지역에 설행한 시험에 계속 응시를 함으로 정조의 눈에 들었다. 이는 1790년 조만원 화성 응제시 시권, 1792년 조만원 응제방 등 그의 수많은 시권을 통해 알 수 있다. 결국 조만원은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그가 남긴 시권과 출방의 결과인 사급 교지들(1794년 조만원 초계문신 사급교지)은 정조 말년 당시 초계문신제도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이후 들목조씨 가문은 자신들의 선산과 묘촌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완문 2점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선산의 수호범위를 분정하는 것과 묘촌을 형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본 가문에는 명고서원 훼손에 관련된 단자(單子), 산송 사건 관련 간찰이 남아 있다.

- 참고 문헌
- 『화성의 고문헌1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화성시, 2006.
 - 화성시향토박물관 (<http://hsmuseum,hscity.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화성 수성최씨 한림공파 진사공후손 고문서

경기도 화성 장안면, 우정읍 일대에 세거해 온 화성 수성최씨 한림공파 진사공 후손가의 고문서이다. 화성 수성최씨의 고문서는 2013년 화성시에서 발간한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 수성최씨 한림공파 진사공 후손가』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본 가문에 소장된 고문서는 총 36점이다.

수성최씨는 시조 이후 3세에서 봉암공파와 종부령공파로 분파되었다. 이 중 종부령공파는 4세 최선, 5세 최세온에 이어 6세에 이르러 장남 최사기를 파조로 하는 통정공파, 차남 최이기를 파조로 하는 한림공파, 삼남 최수기를 파조로 하는 개령공파로 분파되었다. 이 가운데 한림공파 진사공 후손가는 화성시 장안면과 우정읍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하였다. 한림공파는 한림공 최이기의 여덟째 아들 최익령의 후손으로, 최익령이 진사(進士)를 지냈다 하여 진사공종중으로 불린다. 이후 진사공 최익령(7세)의 가계는 최표(8세), 최승장·최승숙·최승언·최승준(9세)으로 이어지는데, 이 중 최승장의 장자 최순(마산종중)과 차자 최함(독정종중)의 후손들이 현재 진사공 후손가에 전해지는 고문서의 주인공이다.

화성 수성최씨 한림공파 진사공 후손가의 고문서는 총 36점이다. 이를 종류와 수량별로 살펴보면, 교령류(敎令類) 6점, 소차계장류(疏劄啓狀類) 29점,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1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문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마산종중 최순의 후손가에는 최숙, 최하진, 최종술, 최영로, 최한주 등의 고문서가 남아있다. 이들 중 고신, 준호구, 소지류 문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1725년부터 1730년까지 발급된 최숙의 고신은 노인직으로서 최숙을 종2품 가신대부로 임명한 것이고 1710년 고신은 최하진을 병절교위 용양위부사과로 임명한 것이다. 준호구는 1801년부터 1867년까지 화성유수부에서 압장면 구이포에 사는 최종술, 최영로, 최한주, 최병주, 최현각에게 발급된 것이 전해진다. 이외에 소지류 문서로는 1815년 최종술의 효행을 칭찬한 현감 이위빈 등의 의송, 1811년 최영로의 삼세(三稅) 관

런 소지, 1831년 최한주의 가사(家畵) 경계 표시 관련 의송, 1863년 최병주의 묘소 관련 의송이 있다.

독정종중 최함의 후손가에는 최진, 최숙, 최수태, 최도원 등의 고문서가 남아있다. 여기에는 고신, 준호구, 소지류 단자가 있는데, 1709년에 발급된 고신은 노인직으로서 최진을 통정대부에 임명한 것이고, 준호구는 1678년부터 1871년까지 대부분 수원부(화성부 1건, 광주부 1건)에서 수원부 수류면에 사는 최진, 최숙, 최수태에게 발급된 것이다, 이외에 약 1774년(추정) 수류면 독정리 최씨 집안의 부인인 정씨의 열행(烈行)에 대하여 정려를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단자(單子) 1건이 있다.

참고
문헌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수성최씨 한림공파 진사공 후손가』, 화성시, 2013.

화성시향토박물관 (<http://hsmuseum,hscit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화성 함평이씨 고문서

경기도 화성 봉담읍에 세거해온 함평이씨 함성군파 가문의 고문서이다. 화성 함평이씨의 고문서는 2011년 화성시·화성문화원에서 발간한 『분화천에 뿌리내린 장군의 후예』 함평이씨 함성군파 종손가편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본 가문에 소장된 고문서는 총 331점(근·현대문서 104점)이다.

화성 함평이씨 함성군파의 세거지인 봉담읍 분천리(汾川里)는 조선시대 삼봉면 분천리에 해당한다. 조선후기에는 분화촌(盆化村)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마을의 모양이 ‘둥이’와 같이 오목하게 생겼다 하여 분촌이라고도 하였다. 분천리의 함평이씨 함성군파가 무반 집안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바로 함성군 이종생(李從生)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함평이씨 시조인 이언의 11세 손으로 세조 13년에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적개공신 2등에 올랐고 이후 각 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한 인물이었다. 함성군과 종손가는 경기도 화성지역을 중심으로 집성촌을 형성하여 세거하면서 무반 집안으로서는 드물게 많은 고문서 자료들을 생성하고 보존해왔다.

함평이씨 함성군파 가문의 고문서는 총 331점이다. 이를 종류와 수량별로 살펴보면, 교령류(敎令類) 284점, 소차계장류(疏劄啓狀類) 6점,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7점, 증빙류(證憑類) 3점,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 6점, 치부기록류(置簿記錄通) 1점, 시문류(詩文類) 10점, 기타문서 14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문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응성(李應星)은 함평이씨 함성군파 16세손이다. 이응성에 관한 문서로는 1594년 어모장군 훈련원정, 1597년 어모장군 도총부 경력, 1622년 어모장군 행충좌위부사과로 임명된 고신이 남아있다.

이응성의 손자 이형길(李亨吉)에게도 고신이 전해지는데, 그와 관련하여 남아있는 고신 중 가장 빠른 것은 1617년 병조에서 적장 전력부위 이형길을 승의부위로 삼은 것이다. 이는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세 계급이 높은 승의부위로 임명한 것인데, 조정에 공을 세운 공신의 후예인 이형길에게 특별히 품계를 내려주었다.

이형길의 독자인 이상(李相)과 관련된 자료로 준호구가 있다. 그가 발급받은 준호구는 1687년 한성부로부터 등급된 것인데, 이를 통해 당시 그가 한성부 남부 성명방 석교하계에 거주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아들 이경규(李景奎)는 충의위로 두 번에 걸쳐 증직을 받았다. 한번은 증 이조참의로, 또 한 번은 증 이조참판으로 증직되었다. 이는 모두 그의 손자인 이창운의 관직 상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754년, 1785년 이경규에게 내려진 추증교지에 나타난다.

이후 이경규는 삼촌질인 이수구를 양자로 삼게 되는데 1720년 준호구에는 입후되기 전, 1732년 준호구에는 입후된 후 수구의 4조가 기재되어 있다. 이수구 또한 사후 아들 이창운의 현달에 따라 1785년 자헌대부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 훈련원사 함평군에 추증된 교지가 남아있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함성군과 가계는 실제적인 무반 집안으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 정조 때 어영대장, 도총관 등을 지낸 이창운 등이 뛰어났다. 이는 본 가문에 남아있는 고문서 중 이창운 이후의 고신류가 많은 이유이다. 이창운의 고신은 1741년부터 1790년에 이르기까지 58점이 남아있다. 1759년 이창운은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에 제수되어 고신과 유서를 함께 받았는데, 유서는 그가 선천부사로 있을 때 군기수선 등에 힘쓰는 한편 군졸수렵의 폐단을 제거하고 영구히 준행할 절목을 만들어 군졸방역과 식료에 크게 도움이 되게 한 공로로 아마(兒馬) 한 필을 하사한다는 내용이다.

이창운의 아들 이유홍, 이유경 형제 또한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유홍은 무과 급제 후 무반의 청요직이라 할 수 있는 선전관을 거쳐 20대에 당상관에 오르는 등 승진을 거듭하였으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하고 사후 그의 손자 이민교에 의해 추증된다. 이유경은 1796년 7월 통제사에 임명되었으나 정조가 특별히 교지를 내려 그가 화성에 머물러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이창운이 갑자기 사망하자 이유경의 아들 이익서가 이유홍의 집으로 입후되었다. 그러나 이익서의 생가에 대한 애뜻함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본 가문에는 생부 이유경과 이익서 사이에 주고받은 서간을 묶은 간찰첩이 전해진다. 특히 서간의 내용 중에는 당대의 사회, 경제상을 소상하게 기록한 것이 많은데 이는 19세기 초 조선 사회의 꺾박한 경제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익서는 이후 1807년 어영대장의 전령에 따라 어영청의 가설초관으로 임명되었고, 1809년 무과에 병과 제25인으로 급제하였으며 함평현감을 하다가 1814년 총융청 우사 파충으로 임명하는 전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민교, 이규현의 고신 및 전령이 남아있고, 이규현의 장자 이계홍의 흥패와 강릉군수에 임명한 주임관고(奏任官誥)가 남아있다.

참고 문헌

『분화천에 뿌리내린 장군의 후예-함평이씨 함성군과 종손가편-』, 화성시·화성문화원, 2011.
 화성시향토박물관 (<http://hsmuseum,hscit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화성 해풍김씨 고문서

경기도 화성 우정읍 화산리, 호곡리, 주곡리 지역에 세거해 온 해풍김씨 남양쌍부과 가문의 문서이다. 화성 해풍김씨의 고문서는 2008년 화성시·화성문화원에서 발간한 『해풍김씨 남양쌍부과』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본 가문에 소장된 고문서는 총 263점이다.

해풍김씨 남양쌍부과가 세거해 온 현재 화성 우정읍 화산리, 호곡리, 주곡리 지역은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에는 ‘쌍부(雙阜)’라고 불렸고, 18세기 말에는 사정면, 팔라곶면, 압정면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그러다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이전하고 화성유수부로 승격된 19세기 초에는 우정면 호곡리, 압정면 주곡리, 장포리, 일원리로 편제되었다. 해풍김씨 남양쌍부과는 무신의 집안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통제사나 병마절도사를 다수 배출했고 형조판서에 오른 인물도 나왔다. 무엇보다 이 집안에는 약 300여 건에 달하는 고문서가 전해지는데, 이는 무신 집안 가운데서는 드문 경우이다.

화성 해풍김씨 가문의 고문서는 총 263점이다. 이를 종류와 수량별로 살펴보면, 교령류(敎令類) 230점, 소차계장류(疏劄啓狀類) 4점,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19점, 증빙류(證憑類) 3점, 치부기록류(置簿記錄通) 1점, 시문류(詩文類) 4점, 기타 문서 2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문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화성 해풍김씨가 무신 집안의 대열로 들어선 것은 김전(金殿, 1684-1751)이 무과에 급제하면서부터였다. 김전은 31세의 나이로 무과 식년시에 급제하였는데, 이는 1715년(숙종 41)의 교지는 김전 교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남아 있는 고문서 중 김전이 무신난 당시에 활약했던 흔적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1731년 김전 부인 추증교지, 1736년 김전 부모 추증교지가 있다. 이를 통해 그가 분무원종일등공신이었음이 확인된다.

해풍김씨 고문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은 김의(1755-1817)이다. 대부분 교지인데, 이를 통해 그가 1777년 무과에 급제하여 1779년 선전관에 임명되고 이후 경기우방어사, 장용

외영 친군위별장 등을 역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1865년 김의 추증교지에는 그가 흥경래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적극 활약한 사실을 보여준다.

김종철(1762-1812) 또한 1784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는 무과에 급제한 무신의 진로나 처우를 연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문서를 남겼는데, 하나는 1807년에 광양현감으로 재직하면서 중앙 정부에 보고한 본인의 이력서이고 다른 하나는 선전관이 되어 치른 면신례(免新禮) 문서이다. 김건(1798-1869)은 해풍김씨 가문에서 현신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김건은 1838년 충청도수군절도사를 시작으로 1848년과 1866년에 삼도통제사에 임명되었는데, 현재 김건의 고문서에는 1848년의 임명장이 없는 대신, 1866년과 1867년에 삼도통제사로 임명된 교지가 남아있다.

김건의 아들인 김태욱(1829-1890)은 청요직이라 할 수 있는 선전관, 별군직을 거쳐 무과에 급제한 재원이었다. 김태욱 또한 많은 고신을 남긴 인물인데, 현전하는 고문서 중 김태욱의 고신이 처음 시작되는 해는 1865년이다. 해당 교지는 그를 승정원 동부승지로 임명하고 있다. 또 그는 병조참의 및 참지를 거쳐 선전관을 지내는 등 중앙 내직에 있다가 1878년에 다시 외직으로 나가면서 당시 김태욱에게 내려진 1878년 밀부(密符)가 전하고 있다.

참고 문헌 | 『해풍김씨 남양쌍부과』, 화성시·화성문화원, 2008.
화성시향토박물관 (<http://hsmuseum,hscit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경기학 학술기획도서 6

경기고문서해제

옛 경기를 읽다

초판 1쇄 발행 2019년 12월 23일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1648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66 생생1990

기획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집필 박성호 외

편집 진디자인
031-256-3614

인쇄 우리들행복나눔 인쇄사업단
031-442-0470

ISBN 000-00-0000-0-0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책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